

# 신앙과 학문

제24권 제2호 (통권 79호)

기독교학문연구회

## 신앙과 학문

제24권 제2호 (통권 79호), 2019년 6월호.

발행일/2019년 6월 30일  
발행처/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유재봉(성균관대학교)  
편집인/손병덕(충신대학교)

편집, 제작/석종준  
인쇄/진흥인쇄랜드  
등록/문화 바02789  
ISSN 1226-9425  
주소/0392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9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02-3272-4967  
팩스/0303-0272-4967  
전자우편/gihakyun@daum.net  
홈페이지/<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 ■ 일반 논문

기독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회복을 위한 기독교 12단계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 심정연 · 5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Christian 12-Step Program to  
Recover Smartphone Addiction of Christian Adolescents  
| Jung Yeon Shim

기독교대학생의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과 성별 간 다집단 분석 -  
| 정숙희 / 이은수 / 김재영 / 신성만 · 33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Resilience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Christian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Gender Comparison Using Multiple Group Analysis -  
| Sookhee Jung / Eunsoo Lee / Jaeyoung Kim / Sungman Shin

기독교대학 신입생들의 필수 신앙 교과목에 대한 수업 적응도 분석 | 고우련 / 이은실 · 67  
Analysis of Class Adjustment in Required Christianity Courses among  
First-year Students of a Christian University  
| Wooryeon Go / Eunsill Rhee

삼위일체 해석원리를 구현하는 성경의 연극적 읽기 원리  
: 뱀후저의 삼위일체 소통원리와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방법론을 중심으로 | 서민정 · 97  
The Dramatic Reading Principle of the Bible that embodies Trinitarian  
Principle of Interpretation : Based on Vanhoozer's Trinitarian Principle  
of Communication and Stanislavski's Acting Method | Min Jeong Seo

기독교청년의 직업소명에 관한 고찰: 교회의 역할과 과제 | 이은미 · 127

A study on Vocational Calling of Christian Young Adult:

Roles and Tasks on Churches | Eun Mi Lee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백상현 · 159

The Investigation of Influential Variables on Institutional Commitment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 Sang Hyon Baek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영상물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업무수행역량 및 직업만족에 관한 연구

-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중심으로 - | 이희진 / 이원준 · 189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Problem of the Violence in Films,

Job Performance Ability and Job Satisfaction of both

Christian Film Crews and Atheistic Film Crews

- On the Basis of Binary Logistics Analysis - | Hee-Jin Lee / Won-June Lee

## 기독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회복을 위한 기독교 12단계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Christian 12-Step Program to Recover Smartphone Addiction of Christian Adolescents

심정연 (Jung Yeon Shim)\*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sessing the effects of Christian 12 step program for smartphone addicted adolescents. For achieving this research goal, this study developed the Christian 12 step program for smartphone addicted adolescents and explore the effectiveness by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study developed the Christian 12 step program based on Justification as a core concept of Gospel, and biblical understanding of smartphone addiction. After counseling Christian adolescents who were in the potential-risk group, the participants all changed from potential-risk group to the normal group. And they had higher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positive emotion, and ability to use various alternative activities than before the program.

Moreover, their God's images were changed: they started to recognize God's punishment toward sin, and his sorrow toward people who were snared in sin. Moreover, they had Jesus image through Gospel based on justification which God put on them Jesus righteous clothes. Their process to change are as follows: First, they started to repent after connecting smartphone addiction and idolatry. Simultaneously, they recognized excessive use of smartphone addiction inhibit their calling which God gave them. After they thought that they focused on God more, and they used various strategies to control smartphone, the amount of smartphone used decrease, and they all became the normal group of smartphone addiction.

**Key Words :** Christian 12-step program, smartphone addiction, God's image, justification, Christian adolescent

이 논문은 한국 연구재단 박사후 국내연구 (연구 번호: 2017S1A5B5A01026138)의 지원을 받았음.

---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성경적 상담학과 강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jungyeonshim@gmail.com  
2019년 04월 30일 접수, 05월 29일 최종수정, 05월 30일 게재확정

## I. 서론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의 10명 중 3명꼴로 급증하고 있는 현황이며(김영식·엄나래·김형석, 2018) 청소년의 일상의 학업 뿐 아니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긴급하게 다뤄져야 할 연구 주제이다. 스마트폰 중독 증상은 청소년에게 일상생활 장애, 내성, 금단, 가상세계 지향성 등으로 나타난다(Kim et al., 2014). 이런 청소년기의 중독은 타 중독으로 확장되거나(Manuel Gámez-Guadix et al., 2015) 회피 경향의 고착화를 일으켜(Billieux, 2013) 현실의 과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그러나 무엇보다 스마트폰 중독된 청소년은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발달이 총체적으로 저해된다(Hong et al., 2013; 이만제, 2009; 김병년, 2013; 심정연, 2017).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최적화된 스마트폰 중독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국내 연구들은 인지행동치료, 동기강화 상담 등의 인지와 동기, 행동 요인인 심리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최은미·김명식, 2016; 신성만·류수정·김병진·이도형·정여주, 2015) 외국의 중독 치료들은 인간의 영적, 심리적, 육체적인 전인적 측면을 고려한 치료들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고,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Chi et al., 2009; Kelly et al., 2008; Vederhus et al., 2014).

이런 중독의 영적 개입 중 단연코 관심을 받는 치료는 중독자의 ‘영적 각성’을 증진시켜 중독을 치료하는 AA(Alcoholic Anonymous), NA(Narcotic Anonymous)와 같은 12단계 프로그램 즉 익명의 중독자 자조 그룹(Self-Help)이다. 12단계 프로그램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위대한 힘에게 도움을 구하는 과정,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인정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소명과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 자조집단의 사회적 학습에 의한 회복 촉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근원적인 변화 동기와 능력을 얻고 추후 변화를 시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는다(김한오, 2010; 김형석·박상규, 2015; Bristow-Braitman, 1995; Moos, 2008).

특히 기독교 청소년은 신앙적 자원이 스마트폰 중독에 치료 효과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청소년을 위한 구체화된 성경적인 스마트폰 중독 프로그램은 미비하다. 기독교 청소년은 인지 발달을 포함하여 전인적 발달을 통해 예전의 발달단계보다 하나님을 정교하게 인식하고 신앙적 개념이 구체화되면서(심정연, 2017; Rizzuto, 1979) 신

양적으로 급격하게 발달한다. 이런 신앙적 발달 과정은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중요한 치료 자원이 된다. 실제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와 관계 경험은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했고(심정연, 2017), 긍정적 하나님 이미지는 중독의 핵심 치료 자원이었다(Timmons, 2012).

그러나 이런 12단계를 기독교에 적용할 때, 중독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12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변화보다, 불특정의 ‘신’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Alcoholics Anonymous World Services, 2001). 더 나아가 기존에 12단계를 기독교적으로 적용한 연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12단계 선언문들을 성경 구절로 전환시키는 단순한 도입으로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Celebrate Recovery, 2018; Timmons, 2012). 기존 12단계를 평가하고 복음의 관점에서 신앙적 개입을 새롭게 제시하는데는 미흡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을 고려한 개입이 요구된다. 동시에 영적, 인지적, 정서적 변화 과정은 역동적인 변화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되므로, 양적 자료와 더불어 질적 자료들을 기반으로 변화 과정의 역동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독과 회복의 신학적 함의를 기반으로 하는 12단계 개인 상담 과정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질적 자료와 양적자료를 통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II. 12단계를 적용한 스마트폰 중독의 영적 개입

스마트폰 중독은 행위 중독의 일종으로 최근 급증하여 주목받고 있는 중독이다. 타 중독과 유사하게 중독의 주요 특징인 내성, 금단 증상, 일상생활 장애의 특징을 지닌다(Kim et al., 2014). 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갈망(Craving)을 경험하고, 자기 조절력을 상실하며, 부정적 결과가 예측되는데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중독 패턴을 보인다. 스마트폰 중독의 기존 개입은 인지치료와 동기강화 상담 등 사고와 동기에 대한 접근이 이뤄졌지만, 총체적인 접근 중 하나인 영적 개입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했다. 실제 알코올, 약물, 도박 등 타 중독 연구들에서 12단계의 치료적 가치는 확인되어 왔지만(김형석·박상규, 2015; Bristow-Braitman, 1995; Chi et al., 2009; Gamble et al., 2016; Kelly et al., 2008), 최근 새로운 중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

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중독의 영적 개입 상담을 위해 본 연구는 12단계의 원리들을 성경적으로 평가하고, 개인 상담으로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전문가 타당도 검증 작업을 통해 기독교 12단계를 새롭게 개발하고자 한다. 12단계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1, 2, 3단계는 신과의 관계에 집중되는 단계로, 자신이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신의 도움을 확신하며, 자신을 맡기는 단계이다. 4단계에서 10단계는 자신의 인격적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여 신께 도움을 구하고 변화를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배상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 후, 11-12단계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다른 중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Alcoholics Anonymous World Services, 2001). 12단계의 원리들은 자조그룹의 구조화를 돕고, 단주, 단약에 집중하게 돕는다.

본 연구는 기독교적 12단계를 개발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을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기독 신앙의 핵심 요소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Calvin, 2008),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12단계를 기독교적으로 접근할 때, 12단계 과정의 선언문 내용을 성경 구절로 전환시킨 것과는 차별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12단계의 과정을 넘어, 성경적 변화의 원리들을 대입하여 새로운 기독교 12단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새로운 개입의 핵심의 축에는 하나님 이미지와 변화와 칭의의 이해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복음의 개념 안에서 하나님이미지를 구현하려고 한다. 하나님 이미지 변화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추구할 하나님 이미지는 성경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성품과 교리에 기반해야 한다. 복음의 교리 중 핵심 교리는 칭의이다. 즉, 십자가에서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용서 받아 자녀의 권리를 얻었다는 교리이다(Calvin, 2008).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에 대한 한 개인의 깊은 이해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순종, 경외를 일으킨다(Calvin, 2008). 그러므로 칭의를 이해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다. 성도는 칭의를 이해하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이미지화 하여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이미지들은 한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작용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McGrath, 2013). 동시에 스마트폰 중독을 우상숭배의 죄로서 제시한다(Welch, 2001).

둘째, 집단 자조 모임으로서 12단계를 교수해왔던 기존 연구들과 차별되게, 개인 상담으로서 12단계를 설계하고 진행한다. 집단 자조모임이 지닌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기존의 집단 자조모임은 집단 상담이기에, 한 개인의 내적 이슈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전문 상담이 개입된 요소들을 적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내적 탐색을 심도있게 병행하는 개인상담(김성이, 2012)으로 6회기를 구성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 집단의 유착으로 인한 과도한 응집성으로 인해(Erikson, 1993), 구조화된 자조모임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 본 연구 또한 초기 면담에서 각 학생들의 중독의 이슈와 연관된 완벽주의에 따른 우울감, 진로, 불안의 문제들을 각각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개별적인 개인 상담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선행 연구의 한계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 기반의 12단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질적 연구인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은 다음과 같다.

1. 새롭게 개발된 기독교 청소년의 12단계 스마트폰 중독 회복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2. 12단계 회복 개입의 효과성은 어떠한가?
  - (1) 개입은 스마트폰 중독 회복에 효과적이었는가?
  - (2) 개입 후 기독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서 무엇이 변했는가?
  - (3) 개입 과정에서 어떤 회복과정을 경험하였는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 이미지는 어떻게 변했는가?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목적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여, 교회 안의 기독교 청소년을 모집하였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스마트폰 중독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의지가 있고, 부모의 동의가 이뤄진 청소년들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은 주관적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사전 검사와 인터뷰를 통해 잠재 위험군에 속한 최종 3명을 선정하였다. 사전 검사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Kim et al., 2014)로 측정하였고, 잠재 위험군 이상의 점수가 나오는 청소년을 선정하였다. 잠재 위험군의 점수는 42점 이상이지만, 각각 하위점수 중 하나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잠재 위험군으로 분류한다(일상생활 장애 16점 이상, 내성 14점 이상, 금단 13점 이상). 참여자 1의 경우 총점 41점이었으나 일상생활장애가 18점으로 잠재적 위험군에 속한다. 참여자 1, 2, 3 모두 고 2(18세)로 여자 청소년 두 명, 남자 청소년 한 명으로 구성되었다.

사전 검사를 마치고 선정된 청소년 세 명에 대해서는 연구 과정에 대한 설명과 보호자 동의를 얻었고, 서면으로 보호자와 연구 대상자의 서명을 받았다. 나이와 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판별할 수 없는 익명으로 연구 내용이 발표되며,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 2. 자료수집

기독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회복을 위한 12단계를 6회기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 각각을 개인 상담으로 진행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양적, 질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양적 데이터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Kim et al., 2014)로 사전, 사후 점수를 측정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3명의 개인 상담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통계를 활용하여 사전, 사후 검증을 실시하기 보다, 중독군에서 정상군 사이의 절단선을 넘는 점수의 변화를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질적 데이터는 사례연구 기법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12단계 프로그램의 참여를 하나의 사례로 보고 분석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와 개별 면담으로 1시간씩 교회 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먼저 인터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패턴과 스마트폰과 연결된 감정들에 대해 물었다. 그 후 상담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새롭게 갖게 된 생각들과 변화된 부분을 묻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물었다. 상담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와 신앙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어떤 하나님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본 연구는 높은 타당도를 위해, 자료와 분석의 삼각기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여주는 첫 번째는 자료의 다양성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스마트폰 중독 척도 점수의 양적 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질적 자료를 통해 자료의 타당도를 높였다(Yin, 2011). 질적 자료로는 청소년들의 상담 후 인터뷰, 상담 과정 녹취, 상담 중간 과제 자료들과 상담 과정에서 작성한 이미지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6회기 상담 후 참여자별 1시간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상담의 효과와 변화 과정에 대한 자기보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두 번째로, 상담 전, 후 변화되는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자료를 작성하여 반영하였다. 세 번째로, 상담 과정에서 참여자의 허락 하에 녹취된 상담 자료들 중 유의미한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삼각 기법으로, 세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한 기법은 본 연구가 탐색하는 변화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뿐 아니라, 분석에 대한 타당도를 높인다(Merriam, 1988).

### 3. 자료 분석

본 연구방법은 사례연구로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는 특정한 경계선이 존재하는 ‘사례’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 내지 양상을 연구하는 것으로, “어떻게”와 “왜”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이다(Yin, 2011). 사례연구는 그 사례 자체가 지닌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할 때 적합하다(Merriam, 1988). 본 연구는 동일 프로그램 안에서 경험한 개인의 중독 회복의 변화 양상과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례연구가 적합하다.

사례연구의 방법론은 질적 연구의 과정을 따른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의 과정은 자료들을 개념화한 후, 그 안에서 범주들을 발견하였다. 궁극적으로 범주들을 기반으로, 연구 문제인 ‘12단계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와 ‘왜’ 변화하였는가의 영역(Yin, 2011)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분석과정의 높은 타당도를 위해 삼각 기법을 사용한 다양한 분석 관점의 수용을 통해 타당도를 높였다(Merriam, 1988). 본 연구는 코딩된 자료를 2명의 질적 연구자들이 함께 토론함으로써, 결과의 내용 타당도를 높였다. 질적 연구로 연구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연구자와, 신학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기독교 상담 전공 교수가 분석에 참여하였다. 먼저, 코딩된 자료들의 개념과 범주의 연결성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프로그램의 결과와 변화 과정을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에 스마트폰 과다 사용 변화과정에서의 도출 개념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신앙의 변화와 중독의 회복에 관한 범주들의 내용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후 최종 범주들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중독 회복 결과의 범주로는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와 집중력, 긍정정서, 학업과 여가 시간의 증가가 범주로 확인되었다. 자기 효능감 증가의 하위범주로는 스마트폰을 안했다는 뿌듯함과 실천할 수 있는 나로서의 자아상으로의 변화가 발견되었다. 학업 성취도와 집중력의 하위 범주로는 집중시간의 증가와 매일 학업 목표량의 성취가 확인되었다. 긍정정서 증가, 부정정서 감소의 하위범주로는 불안과 우울 감소와 스마트폰 과다 사용전의 긍정 느낌 회복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업과 여가 시간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이는 스마트폰 학업과 일의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양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준 양적 자료의 결과와 같았다.

스마트폰 중독 회복 과정의 범주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이상충배 연결 짓기,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소명 연결 짓기,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한 노력으로 확인되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한 노력의 하위범주로는 하나님을 우선시해야겠다는 생각의 전환과 실천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변화 실천의 범주로는 스마트폰을 맡기거나 조절하는 전략이 확인되었다.

## IV. 연구결과

### 1. 기독교 12단계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폰 회복을 위한 12단계 프로그램은 기존 12단계의 주요 요소들을 기독교 관점으로 고찰한 뒤,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신앙을 연결시키는 과정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문헌 연구, 12단계 프로그램의 기독교 상담 과정에서의 평가 및 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들의 내용 타당도 검토 과정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먼저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기존의 12단계의 구

성요소들과 기독교 신앙 자원들을 탐색하였다. 동시에, 중독 회복에서 12단계의 효과성을 문헌으로 확인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12단계의 한계점과 유용성을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 상담 전공 교수와 기독교 관점으로 중독 상담을 강의하는 본 연구자가 함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내용 타당도는 스마트폰 중독 치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독교 상담이 핵심 요소들이 12단계에 잘 접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동시에 연구 디자인의 적합성 검토가 포함되었다. 문헌 연구 및 내용 타당도 분석을 기반으로, 12단계 프로그램의 기독교 상담의 독특성을 접목하는데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들이 적용되어 기독교 상담의 독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위대한 힘에게 도움을 구하는 과정, 잘못에 대한 인식과 타인과의 관계 회복, 소명의 삶을 추구하는 기존 12단계 과정은 기독교 관점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신앙적 이해, 복음의 이해와 소명의 회복 과정으로 개발되었다. 기존의 기독교 12단계 프로그램은 일반 12단계에서 신을 하나님으로 정의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Timmons, 2012).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복음과 하나님 이미지 변화를 중점적으로 기독교 12단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동시에 스마트폰 중독의 독특성을 고려한 개입을 포함하였다. 특히 청의의 교리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 이미지의 변화와 중독의 동기를 탐색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접목하여 기독교 상담의 독특한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12단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청소년들의 변화는 명확한 자기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를 기반으로 일어난다. 트립(Tripp, 2001)은 청소년들의 생각과 동기 등의 마음을 드러내는 질문을 통해 그들 자신을 돌아보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시한다. 특히 자신들의 유혹에 대한 연약함과 죄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돕고, 실제로 유혹을 이기는 힘을 갖도록 돕기 때문이다.

상담 과정의 첫 회기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 라포 형성과 스마트폰을 쓰는 패턴을 검토하며, 스마트폰 사용의 장, 단점을 확인했다. 두 번째 회기는 스마트폰과 연관된 감정을 확인하며, 감정 대처 패턴을 살펴보고,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대처 패턴을 살피는 작업을 하였다. 세 번째 회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탐색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길 원하시는지를 탐색하였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과 우상과의 연관성을 탐색하며,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폰이 채워주는 욕구들이 우상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섯 번째는 복음을 기반으로, 예수님이 주신

칭의와 용서에 대해 스가라 3장을 통해 알아가며,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보았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 이미지 변화를 촉진하도록 도왔다. 마지막 회기에서는 자신의 소명을 1차와 2차 소명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그 소명에 맞게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나누었다.

2.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본 연구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소수의 참여자들로 인해 양적 연구의 자료는 잠재적 위험군에서 정상군으로의 집단 간 변동을 확인하였으며,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질적 자료에서 변화추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1) 스마트폰 중독 정도의 변화: 양적 자료

세 명의 잠재적 위험군은 모두 정상군으로 그룹 이동을 하며 변화되었다. 특히 참여자 1은 13점의 큰 점수 차이를 나타내었다. 잠재적 중독으로 진단하는 절단점은 42점으로 세 참여자 모두 정상군으로 변화되었다. 참여자 2의 경우 하위 요인인 일상생활 장애가 18점으로 잠재적 위험군에 속한다.

Table 1 Changes in smartphone addiction among participants

name	gender /age	smartphone addiction score	
		pre-test	post-test
Y (participant 1)	M/18	potential-risk group (score=43)	normal group (score=30)
M (participant 2)	F/18	potential-risk group (score=41)	normal group (score=39)
J (participant 3)	F/18	potential-risk group (score=42)	normal group (score=39)

## (2) 상담과정에서 스마트폰 중독 회복 양상: 질적 자료

### ① 참여자별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주요 핵심 감정

참여자들은 각자 스마트폰과 연계된 불안, 우울, 공허감 등의 각각 다른 감정들을 호소했다. 참여자 2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고 1때보다 성적이 떨어져 불안해했다. 스마트폰이 학업에 가장 큰 방해가 된다고 보고했다. 평소의 사용 패턴은 과제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에 과제를 하고 학원과 학교에 가는 것이 반복되었다 보니, 과제를 다 마치지 못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진로에 대해서는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 떨어지는 성적으로 인해 답답해했다.

“학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숙제를 빨리 해야 하는데.. 계속 10문제니까, 시간 조금이면 다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스마트폰을) 더하다가 하자” (참여자 2)

참여자 1은 완벽주의 성향으로 우울을 느끼고,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매일 왕복 4시간이 걸리면서 학교를 다니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면서도, 환경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자신이 견뎌야 한다고 여기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학교에서 배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쉴 수 있는 양호실이 없기에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웠고, 학교를 다녀오면 지쳐서 쉬기 위해 스마트폰을 보았다. 우울하거나 무료할 때 스마트폰을 통해 웃긴 영상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고, 친구들과 통화하며 우울하고 무료한 이유를 잊으려고 노력했다. 참여자 1은 스마트폰 사용을 하면 기분이 멍하고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하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다고 보고했다.

“그 순간만 괜찮은데, 그 뒤에 계속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스마트폰을 하면) 우울하고 무료한 이유를 잊게 되요. 기분이 멍해요.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참여자 3의 스마트폰 사용의 핵심 감정은 공허함이었다. 스마트폰을 하기 전에는 심심함을 느꼈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때와 하고 나서는 ‘공허함’을 호소했다. 공허한 이유로는 스마트폰 후 대가나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자 3은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으며, 스마트폰 사용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진 성적으로 인해, 시험 때 평소 때보다 강한 회피 성향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 ②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변화 결과

연구 문제 2-1과 2-2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되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서의 변화는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든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량의 감소로 인해 자기효능감, 학업 집중력, 긍정 정서, 학업과 여가 시간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의 증가였다. 참여자 3은 스마트폰을 안했다는 뿌듯함을 경험하고 더불어 자기상도 변했다. 스마트폰 조절 능력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증가했다. 기존에는 ‘생각만 하고 실천 못하는 나’라는 자기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나’로 긍정적인 자기상을 갖게 되었다(참여자 3). 동시에 스마트폰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만 머물렀던 과거에 비해, 이제는 선택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내용을 보지 않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참여자 1은 스마트폰을 그만해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는데, 실제 실천해보니 생각보다 쉽게 실천되었다고 설명한다. 모두 생각에서만 머물렀던 것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옮겼을 때 실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두 번째는 학업 성취도와 학업의 집중력이 증가하였다. 참여자 2는 기존에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학업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상담 과정에서 집중력이 증가하고, 학업 성취도도 높아졌다. 변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학업 시간과 집중 시간이 각각 증가했다. 동시에 자신들이 하루 계획 목표량을 성취하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예전에는 하고나서 살짝 자괴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휴대폰을 하고 싶을까.. (지금은 과제를) 한 번 할 때마다 공부할 수 있는 양도 많아지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져가지고.. 점점. 원래는 숙제가 10장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휴대폰을 보면서 하다보니까 한 2장 정도만 하고, 한 시간에 한 2장 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못해도 8장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해야 할 일을 해내고, 목표를 성취하는 뿌듯함을 경험했어요.” (참여자 2)

세 번째는, 긍정정서가 증가하고, 부정 정서가 감소했다. 모두 스마트폰 조절력과 학업에의 몰입이 증가하면서 뿌듯하고 성공했다는 성취감과 같은 긍정정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참여자 1, 2, 3), 과제를 잘 마무리 못하고 성적이 떨어지는데서 기인했던 불안과(참여자 2) 우울감이 감소하였다(참여자 1). 네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 외 시간이 확보되면서 학업 외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책 보는 시간, 친구들을



만나고 운동하는 시간(참여자 1, 2)이 증가하였다. 참여자 2는 자신에게 가장 변화가 느껴졌을 때가 자습시간이 확보되었을 때라고 했다.

“자습시간이 생겼을 때.. 화요일 목요일.. 내가 그래도 이것을 하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구나”  
(참여자 2)

동시에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성적이 떨어지기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해보니까..몬가.. 좀 옛날로 살짝 돌아가고 있는 느낌, 많이 옛날.. 스마트폰 별로 안했을 그런 때로.. 돌아간 느낌.. 공부할 때..도 자꾸 휴대폰 보던 것도, 이제는 아예 공부할 때 엄마한테 드리던 것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엄마한테 드리지 않고, 휴대폰을 그냥 끄고 있는 것만으로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참여자 2)

### ③ 스마트폰 중독의 회복 과정 및 하나님 이미지 변화 과정

마지막 연구문제 2-3인 기독교 12단계의 프로그램 과정 안에서의 변화과정은 스마트폰 중독의 회복과정은 네 가지 과정으로 확인되었다. 처음 단계에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죄(우상숭배)를 연결 짓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때 참여자들은 죄를 우상 숭배로 확산시켜 이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자신의 욕구를 우상 시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과 연관된 행동이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마음의 동기들을 탐색하고, 자신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기가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하기 위해서임을 깨달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자신의 소명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임을 깨달았다. 이들은 상담을 통해 성경적 관점에서 소명을 이해했다.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과 재능 및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스마트폰이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도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신앙적인 노력을 시작했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의 전환과 결심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났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스마트폰을 맡기거나 조절하는 전략을 실천하여 실제 사용이 줄어들었다.

이 과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하나님 이미지가 변화되었다. 참여자들의 하나님 이

미지는 가까이 계시며, 인도하시고, 죄를 처벌하시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죄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확장되었다. 동시에, 복음에 대한 이미지를 ‘칭의’의 이미지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미지가 확장되었다. 참여자들의 하나님 이미지 변화는 참여자들의 인터뷰 자료와 이미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참여자 2는 상담 전에는 “항상 옆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했다. 상담하는 후에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고 설명하면서 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였다. 또한 우상 숭배로서의 스마트폰을 이해하면서, 자신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시하면서 휴대폰을 하고 있으니깐.. 디게 안타까워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참여자 2).

참여자 1은 상담 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분이며, 어려운 결정의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상담 후에는 자신이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 특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새롭게 발견했는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참여자 1은 이 깨달음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왕복 4시간 걸리던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참여자 3은 초기 면담에서 물음표(?)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렸다. 하나님이 하늘을 다 덮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며 하나님 이미지를 그렸다. 상담 후 참여자 3의 하나님 이미지는 사랑하시며,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시면 받아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변화했다.

“생각했던 것보단 우리를 좀 더 많이 사랑하시고, 좀 무서우시는 것. 사랑하시는 거는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는 거랑. 무서우신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명령하는 그런 말투. 말투가 좀. 약간.. 묘사된 것도 약간 무섭고 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여자 3).

그러나 참여자 3은 동시에 회개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회개하면 용서 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고 했다. 상담 후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졌다고 보

고했다.

종합적으로, 기존에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참여자 1, 2는 현재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어려움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게 되었다. 기존에 하나님에 대해 거리감을 느꼈던 참여자 3은 말씀읽기 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칭의’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참여자 3은 “옷..새로 입혀준 것”이라고 칭의를 표현했다.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변화와 친밀감의 증진과 더불어, 스마트폰과 연결된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 사용과 두 가지 신학적 개념인 우상숭배와 소명을 연결시킨 것이다. 세 참여자 모두 자신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우상과 연결시켜, 죄성의 하나로 연결시켰다.

#### 1)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우상숭배와의 연결 짓기

첫 번째로, 참여자들은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정의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자신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동기와 연결시켰다. 상담 개입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을 행동의 차원의 죄로 이해하지 않고, 스마트폰 사용 동기로 확대하여 이해하면서(Welch, 2001) 이들에게 죄의 관점에 대한 확대를 가져왔다. 이것은 죄를 피상적인 행동 차원이나, 인지 차원에서만 정의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의 근원적 동기 차원으로 확장시키도록 도왔다. 기존에 이들은 행동, 인지차원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죄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동기 차원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죄’로 인식하면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신앙적인 문제임을 자각하고, 회개로 이어졌다. 즉 각 개인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동기에 우상이 연결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열어줄 뿐 아니라, 현실의 삶의 이슈와 신앙의 이슈를 구체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자 2는 우상에 대해서 새롭게 개념화하여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확대하여 이해하였다.

“옛날에 우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막 그냥 교회에서 배운 것, 황금송아지..이런 것만 우상인줄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걸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참여자 2).

참여자 1은 기존에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사전지식이 있었고, 자신의 우상

숭배 경향을 자각하고 있었다. 자신이 늘 어떤 방면이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상담을 통해서도 기존 우상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자잘 자잘한 거라도 제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된다는 거고 내가 나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참여자 1).

두 번째로, 참여자들은 대상으로서의 스마트폰, 친구들의 인정, 미래를 보고자 하는 욕심을 스마트폰과 연계된 우상들로 삼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참여자들은 우상에 대해 확대하여 이해하게 되었고, 이런 구체적인 예시들의 적용은 참여자들에게 내적으로 실제 하나님보다 의존하고 중요시하고 있는 것들을 탐색하도록 도왔다. 참여자 1은 우상을 이해하는 맥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치는 두는 것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 스마트폰, 미래를 보고자 하는 것, 혼자 욕심을 내는 것, 부모님이라고 답했다. 특히 참여자 1은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시 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하는 우상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데, 핸드폰을 하면서 애들이 연락 안하면, 애들이 저를 보는 시선을.. 애는 연락 안하니까 안될꺼다.. 그런 것들이..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1).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연락이 안될 경우, 친구들이 자신을 소외시킬까 두려움으로 스마트폰을 계속 하게 된다고도 말했다. 이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참여자 1은 우상의 개념과 범위를 새롭게 확장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부모님도 우상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부모님께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형태임을 자각했다.

“하나님보다는 부모님한테 더 의지를 많이 했던 같아요. 힘들 때 묻가 하나님보다는 엄마, 아빠한테 가서 더 말하고, 그런 점이 좀 있었어요. 선생님이 초기에 오셨을 때 청소년부실에서 모든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딱 듣는 순간 부모님이 우상이 될 수도 있구나” (참여자 1).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스마트폰을 우상으로 섬기는 과정은 하나님을 향한 시간과 관심을 빼앗아 가며,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이들이 자각한 스마

트폰 사용의 이상 숭배적 양상은 먼저,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말씀 읽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빼앗겨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는 것이었다. 참여자 3은 스마트폰과 이상숭배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을 덜할 때’로 이상숭배의 과정을 설명했다.

“말씀도 읽기도 하고..했었는데.. 그 읽을 시간을 스마트폰을 하다보니까 읽을 시간도 없어지고.. 유튜브 많이 보고 이리다 보니까, 성경책을 읽어야 하는데 안읽고.. 그랬어요” (참여자 2).  
 “해야 할 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는 시간도 빼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우리가 가는 길은 돈이랑, 스마트폰인데 원래 가야할 길은 믿음이란 그런 길이었는데 지금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있으니,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가야할 것 같아요” (참여자 3).

이들은 동시에 스마트폰과 떨어지면 불안해하며 금단증상들로 인해 스마트폰에 노예같이 매여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이상숭배의 양상을 고백하였다(Welch, 2001).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끊길 때..자기 전에 어제같이..” (참여자 3)  
 “보다 보면 중독이 되니까. 중독이 되면, 떨어트리면 안 되고, 불안하니까” (참여자 2)

## ii)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소명과 연결 짓기

두 번째로, 참여자들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소명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연결 지었다. 특히 공군 사관학교를 가고 싶은 자신의 꿈이 명확했던 참여자 2는 자신들의 소명이나 할 일을 깨닫고 학업의 시간에 충실하고 우선순위의 중심을 잡으면서 스마트폰 사용량이 줄어들었다. 단순히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을 때, 스마트폰을 조절할 수 있는 동기를 얻었다. 이런 목표 수립과 스마트폰 조절력은 참여자 1에게도 적용되었다. 참여자 1은 김정고시로 진로를 설정하고, 하루에 구체적인 자습시간과 계획을 정하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참여자 2는 소명에 대해서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잠재력의 씨앗이 뿌려졌으며, 자신의 장점들(친화력, 리더십, 성실)등을 잠재력으로 이해했다. 앞으로의 직업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재능 뿐 아니라 친구, 시간, 음식, 육체 등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참여자 2는 상담 과정을 통해 직업적 소명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었다.

“그 직업으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일 수도 있다... 그때는 되면 내가 제일 좋겠지.. 그걸 하고 나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2).

“좀.. 아직 우리나라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 불안할 텐데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어서” (참여자 2)

이런 직업관의 확장과 함께 시간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소명과 스마트폰 사용을 연결시켰다. 자신의 잠재력을 자라게 하는 것에 스마트폰이 방해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저에게 뿌려진 씨앗이 자랄지 말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제 꿈이라는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을 자라게 하려면 스마트폰 말고도 다른 것도 열심히 하고 해야 하는데 스마트폰만 하다보면 그 씨앗이 자랄 수 없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스마트폰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또한 시간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돈가를 해야할 때는 해야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참여자 2)를 원하신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참여자 1도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셨고, 그 목표로 하여금 스마트폰 조절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참여자 3은 시간을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에 시간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보고했다.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참여자 3은 시간을 자원으로 이해하는 감각이 증가하는 것이 보였다.

“스마트폰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바로 가버리고.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시간을 못 쓰고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좀 더 많이 하면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참여자 3).

### iii) 변화 전략: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한 노력

하나님을 더 중요시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환되고 그에 따른 회개가 실천되었다. 참여자들은 스마트폰과 연계된 우상과 우상숭배로서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이해한 후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적인 반응과 실천 전략을 실행하였다. 참여자 2의 우상의 개념에 대한 확장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의 구체적인 연결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회개의 신앙 반응으로 연결되었다.

“기도하면서 휴대폰 사용을 좀 줄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안하고 스마트폰을 우선으로 해서 용서해주세요..” (참여자 2).

참여자 1과 참여자 3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기도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단순히 사용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참여자 3은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성경책을 읽을 때였으며, 하나님이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했다. 말씀을 통해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했다. 참여자 3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으며,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생각을 더 알게 되었다고 했다.

“조금 더 보니까 더 몰랐던 것 조금 더 알 수 있고, 가까워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몰랐던 것을 보고 아니까, 생각도 더 하게 되니까” (참여자 3)

iv) 변화 실천: 스마트폰을 맡기거나, 조절하는 전략을 실천함.

구체적으로 참여자 2와 참여자 1은 스마트폰을 부모님께 맡기고 조절했으며, 참여자 3 또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을 실천하였다. 이들의 실천은 6주 과정에서 실제적인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을 경험했고, 실천하였다.

## VI. 결론

먼저 본 연구는 12단계를 기반으로 기독교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 개인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 감정을 탐색하고 개입하는 과정과 더불어, 하나님 이미지와 스마트폰과 우상과의 관계, 복음과 소명의 적용 등의 구체적인 신앙 개입을 포함하였다. 이 중 칭의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 이미지 개입을 기반으로 하나님 이미지의 탐색과 변화의 축진을 추가하였다. 이 내용은 기존의 기독교 12단계들이 제시하지 못한 복음 중심의 12단계를 제시하는 것이기에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한다. 연구 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연관 감정을 확인할 때, 불안, 우울, 공허감들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감정들은 기존 연구들에

서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을 촉진하거나,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정구철, 2016; 황경혜·유양숙·조옥희 2012; Gao et al., 2017).

위의 과정으로 개발된 스마트폰 중독 회복을 위한 기독교 12단계 프로그램은 효과적이었다. 프로그램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스마트폰 잠재적 위험군에서 정상군으로 변화하였다. 양적데이터 기반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척도에서 잠재적 위험군의 점수에서 정상군의 점수로 변화를 이뤘다. 질적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 학업 성취도와 집중력, 긍정정서, 시간의 확보로 인한 다양한 활동 가능 등의 가시적인 변화를 보고하였다. 자기 효능감의 증가는 알코올, 약물 중독의 회복에서도 중요한 회복의 표지로 작용한다(Moos and Moos, 2006). 학업과 집중력의 향상은 유사한 행위 중독인 온라인 게임 중독 회복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온라인 게임 중독 회복에서도 성적이 오르고 학업 목표의 성취 경험을 한 것이 게임중독 회복의 주요 결과로 나타났다(유호순·경수영·이은영·이현교, 2012). 스마트폰을 많이 안하던 예전의 때, 즉 깨어있던 때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던 참여자 2의 경험은 유호순 외(2012)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회복 연구에서, ‘머리가 개운하다’는 보고와 유사하다.

상담 과정에서 이들은 하나님 이미지와 신앙과 연결되어 스마트폰 사용이 변화되었다. 회복과정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우상숭배 연결 짓기,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소명 연결 짓기,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한 노력 및 스마트폰 조절 전략의 실천으로 변화과정이 확인되었다. 이들의 하나님 이미지는 칭의를 기반으로 재형성되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의를 자신들의 죄와 교환하시며, 자신들을 보호하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분으로 이해했다. 하나님은 옆에 계셨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고 표현하며 더욱 친밀한 하나님을 설명했다(참여자 2). 동시에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참여자 1), 자신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했다(참여자 1). 참여자 3은 물음표와 그냥 지켜보시는 분으로 인식했는데, 성경을 통해 보다 친밀하게 경험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 성경 말씀과 기도, 교리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상담 과정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 결과는 긍정적인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가 중독 보호와 회복의 핵심 요소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심정연, 2017; Timmons, 2012). 동시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를 아는 것은 중독 회복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한다(Welch, 2001).



상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확인된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신앙과의 연결 짓기 과정은 내담자의 이슈를 신앙의 이슈와 ‘연결 짓기’하는 작업으로 실천신학의 핵심요소이다(Welch, 2001). 왜냐하면 실천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이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이슈와 어떻게 실천적으로 ‘연결’되며 ‘적용’되는지를 고찰하기 때문이다. 실천신학은 실제 자신의 실천 경험에 대한 신학적 연결의 지식과 그에 대한 믿음을 요한다(Welch, 2001). 즉, 이상숭배가 단순히 신학적 개념이 아닌 현실에 내담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중독 경험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Welch, 2001). 자신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통제가 불가능한 것 같고, 노예된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죄의 노예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식과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기반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영성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McGrath, 2013). 동시에 기독교 신앙은 모든 상황과 내면의 요소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사건, 선택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황은 없다(Powlison, 2010). 왜냐하면 한 개인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 상담은 특정 개인의 이슈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연결시키는 실천신학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것은 기독교 상담 과정의 필수적 요소이기도 하며, 궁극적 변화를 위한 상담의 과정적 목표이기도 하다. 이것은 상황의 분석과 더불어, 직면의 과정에도 요구되는 것이다.

트립(2001)은 청소년들이 모든 상황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고 연결시켜야 하며, 자신들의 매일의 삶에 주어진 유혹과 어려움을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자신이 유혹에 연약하고, 죄성이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이해하는 성경적 자기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며 그 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상담 과정에서 이런 ‘연결짓기’의 과정이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이 매일 접하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관점을 제공하고, 이 문제를 신앙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과 효과를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은 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습관성 문제를 넘어,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이 주는 이익을 더 갈망하고, 예배했다는 신앙적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연결시켰다. 이런 실천신학적 적용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회개하는 과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런 변화는 인지적인 변화 뿐 아니라 영적 변화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성에 대한

감각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증진은 성령의 깨달음으로만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상담의 과정에서 스마트폰 중독 행위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이해하게 되었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 행위에 대한 인지적, 영적 이해의 변화는 변화 동기를 촉진시켰다. 더불어, 이들은 스마트폰 사용 조절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조절하는 행동적 전략 뿐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노력하는 신앙적 반응으로서 변화 전략을 함께 탐색하고 실천에 옮기는 양상을 보였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의 사용 동기가 자신의 과도한 욕구를 이상화하는 것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자각했다. 이들은 죄를 피상적이거나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복합적이고 근원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이해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도록 돕고, 자신의 죄성을 구체적으로 직면하도록 도왔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신앙적 반응을 독려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기독교 상담은 행동의 뿌리에 있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 변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해왔다(Powlison, 2010; Tripp, 2001; Welch, 2001). 한 개인의 사고와 정서 뿐 아니라, 행동을 추진하는 동기가 궁극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일종의 이상숭배의 발달 과정으로 이해되어 지는 중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에 대한 인식과 회개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이상으로서의 죄에 대한 근원적 이해가 요구된다(Welch, 2001). 마음의 동기로서 이상을 탐색하는 과정은 궁극적인 이상이 자기 이상화(자기중심성)를 드러내고 그것과 연결된 다양한 추가적 가치들을(나태, 쾌락, 안전 추구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돕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하는 이상으로서 스마트폰, 친구들의 인정,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보고했다. 이 결과는 심정연(2017)이 스마트폰 중독적 사용 동기가 타인의 인정, 사회적 성공, 멋진 자아상, 편안함, 자기만족, 안정감 등의 욕구의 추구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지지한다. 동시에 이런 이상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발달 단계에서 가치를 두는 친구들의 인정, 용납, 소유, 명예의 이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Tripp, 2001).

더 나아가 상담자의 이상에 대한 다양한 예시는 내담자에게 새로운 연결 짓기의 통찰을 제공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 1의 사례에서, 부모님도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상담자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자신의 이상에 대한 탐색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이것은 기독교 상담자가 어떻게 죄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연결시켜 직면하는지에 따라

보다 자신의 이슈와 연관된 다양한 죄의 역동성을 내담자가 발견하고 성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양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노예처럼 매여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생각하고 몰입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에 노예처럼 매여 있는데, 계속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면서도 끊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안하고 있으면 불안한 금단을 경험할 때 노예처럼 매여있다고 느꼈다. 이는 기존 중독에서 우상숭배의 양상에서 보이는 ‘노예됨’과 같은 맥락이다(Welch, 2001).

세 번째로 스마트폰 중독과 소명에의 연결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변화에 중요한 변화요인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소명의 관점에서 학업과 시간의 가치 및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해야 할 일을 찾을 때 조절할 수 있는 주요 동기를 얻었고, 자신의 잠재력이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인터넷 게임중독 회복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흥미로운 일을 찾거나, 새로운 관심을 찾아 현실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회복을 경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윤호순 외, 2012). 그러나 이들은 성경적 상담 개입을 통해, 자신의 일의 성취를 하나님과 무관하거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개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임상적 개입을 위해 본 연구는 영적 개입에 대해 전무했던 스마트폰 중독 치료에 12단계의 영적 개입을 새롭게 적용한 첫 연구이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 치료에 영적 개입을 통해 청소년들의 영적 자원을 활용하여 회복을 돕는 연구가 된다. 기독교 상담의 정수인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 이미지’의 변화를 기반으로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기독교 상담의 새로운 개입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독교 영성의 핵심인 하나님 이미지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독교 상담의 개입에 새로운 임상적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신앙적 관점인 우상숭배와 소명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신앙적 관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려는 시도 등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앙적 관점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이해는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변화 동기를 제공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소명을 실현하는 맥락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기존에 중독의 변화의 요인에 대한 다양한 동기 중, 신앙적 동기가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독 상담에서 변화 동기를 강화하고자 할 때, 청소년들이 신앙의 동기를 갖고 변화를 추구하게끔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첫째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의 잠재적 위험군만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효과성을 검토한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들은 스마트폰 중독의 고위험군과 정상군의 대조 연구들을 통해 변화과정의 다양한 현상들을 파악하고 영적 개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에만 국한된 개인 상담을 대학생과 성인에게도 확장하여 진행하고 그 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 영적 개입에 대한 다양한 연령층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김영식 · 엄나래 · 김형석 (2018).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Kim, Y. S., Eum, N .R., Kim, H. S. (2018). *Korea Smartphone overuse in 2017*. Ministry Science and ICT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김한오 (2010). **12단계 중독 치료 (제5판)**. 계요병원 알코올센터.
- [Kim, H. O. (2010). *12 steps for addiction treatment*. (5th). Gyeonggi-do: Keyo hospital alcohol center.]
- 김형석 · 박상규 (2015). 도박중독자의 GA 참여를 통한 회복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 111-138.
- [Kim, H. S., Park, S. G. (2015). Qualitative study about recovery experience of gambling addict through participation in GA.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 111-138.]
- 김성이 (2012). **약물중독총론**. 경기도: 양서원.
- [Kim, S. Y. (2012). *Drug & Alcohol treatment and prevention*. Geonggi-do, Yangseowon.]
- 신성만 · 류수정 · 김병진 · 이도형 · 정여주 (201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동기 강화상담 집단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상담학연구**, 16(4), 89-109.
- [Shin, S. M., Ryu, S. J., Kim, B. J., Lee, D. H., Chung Y. J (2016).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MI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adolescents internet-addic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6(4), 89-109.]
- 심정연 (2017). **기독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영성의 역동성: 한국판 단축형 하나님 이미지 척도를 기반으로**. 박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Shim, J. Y. (2017). *Christian spirituality's dynamics influencing Christian adolescent smartphone addiction: Based on the Korean Brief Version of God's Image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유호순 · 경수영 · 이은영 · 이현교 (2012). 인터넷게임중독 청소년의 회복과정에 관한 연구: 혼란과 몸부림에서 벗어나기. **청소년학 연구**, 19(10), 73-99.
- [Yoon, H. S., Kyung, S. Y., Lee, E. Y., Lee, H. G. (2010). A study on recovering process from internet game addiction in adolescents: Escaping from Confusions and struggl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0), 73-99.]
- 정구철 (2016). 대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655-665.

- [Jeong, G. C. (2016). Relationships among mental health, Internet addiction, and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4), 655-665.]
- 최은미 · 김명식 (2016).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을 위한 동기강화중심 집단상담과 인지행동 집단상담의 효과 연구. *상담학연구*, 17(3), 169-185.
- [Choi, E. M. Kim, M. S. (2016). The effect of Motivational Interview Oriented and Cognitive Behavioral Group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with Smartphone Addic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3). 169-185.]
- 황경혜 · 유양숙 · 조옥희 (2012).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상지통증, 불안, 우울 및 대인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365-375.
- [Hwang, K. H., Yoo, Y. S., and Cho, O. H. (2012). Smartphone overuse and upper extremity pain, anxiety,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0), 365-375.]
- Alcoholics Anonymous World Services (2001). *Alcoholics Anonymous: The Story of How Many Thousands of Men and Women have Recovered from Alcoholism*. 4th Ed. New York, NY: Alcoholics Anonymous World Services Inc.
- Bristow-Braitman, A. (1995). Addiction recovery: 12-step programs and cognitive-behavioral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JCD*, 73(4), 414-418.
- Calvin, J. (2008).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Signalman Publishing. Kindle Edition.
- Celebrate Recovery (2018). Retrieved May 15, 2019, from <https://www.celebraterecovery.com/resources/cr-tools/12steps>.
- Chi, F. W., Kaskutas, L. A., Sterling, S., Campbell, C. I., and Weisner, C. (2009). Twelve step affiliation and 3 year substance use outcomes among adolescents: Social support and religious service attendance as potential mediators. *Addiction*, 104(6), 927-939.
- Gamble, J., and O'lawrence, H. (2016). An Overview of the Efficacy of the 12-Step Group Therapy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 *Journal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39(1), 142-160.
- Gao, T., Xiang, Y. T., Zhang, H., Zhang, Z., and Mei, S. (2017). Neuroticism and quality of lif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Psychiatry Research*, 258, 457-461.
- Kelly, J. F., Brown, S. A., Abrantes, A., Kahler, C. W., and Myers, M. (2008). Social

- Recovery Model: An 8Year Investigation of Adolescent 12Step Group Involvement Following Inpatient Treatment.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32(8), 1468-1478.
- Kim, D., Lee, Y., Lee, J., Nam, J. K., Chung. Y., (2014). Development of Korean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Youth. *PLoS One*, 9(5), 1-8.
- McGrath, A. E. (2013). *Christian spirituality: an introduction*. MA: Blackwell Publishing.
- Merriam, S. B.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CA, US: Jossey-Bass.
- Moos, R. H. (2008). Active ingredients of substance use focused self help groups. *Addiction*, 103(3), 387-396.
- Moos, R., and Moos, B. (2006). Rates and predictors of relapse after natural and treated remission from alcohol use disorders. *Addiction*, 101, 212-222.
- Myers, D. G., Jones, S. L., Roberts, R. C., Watson, P. J., Coe, J. H., Hall, T. W., and Powlison, D. A. (2010).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E. L. Johnson(E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Academic.
- Ozer, E., and Bandura, A. (1990). Mechanisms governing empowerment effects: A self-efficacy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3), 472-486.
- Rizzuto, A. M. (1979). *The birth of the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immons, S. M. (2012). A Christian faith-based recovery theory: Understanding God as sponsor.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1(4), 1152-1164.
- Tripp, P. D. (2001). *Age of opportunity: a biblical guide to parenting teens*. Phillipsburg, NJ: P & R Publishing.
- Vederhus, J. K., Timko, C., Kristensen, Ø., Hjemdahl, B., and Clausen, T. (2014). Motivational intervention to enhance postdetoxification 12 Step group affiliat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ddiction*, 109(5), 766-773.
- Welch, E. T. (2001). *Addictions, a Banquet in the Grave: Finding Hope in the Power of the Gospel, Resources for Changing Live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 Yin, R.K. (2011). *Qualita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논문초록

## 기독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회복을 위한 12단계 기독교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심정연 (충신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회복을 위한 12단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중독 회복을 위한 기독교적 관점의 12단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양적, 질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음의 정수인 칭의의 이해와 스마트폰 중독의 성경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12단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잠재적 위험군 청소년들을 기반으로 상담을 실시한 결과, 잠재적 위험군에서 정상군으로 넘어가는 변화가 일어났으며, 자기 효능감, 학업 성취도, 긍정정서 및 다양한 대체활동의 증가의 변화가 일어났다. 동시에 하나님이 죄를 처벌하시고, 스마트폰 사용의 죄의 울무가 된 이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하나님 이미지가 증진되었다. 무엇보다 복음의 정수인 칭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통해 의의 옷을 입히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복음의 이해가 더해졌다. 이들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우상숭배의 양상을 연결시키고 죄로서 인식하며 회개를 하게 되었다. 동시에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휘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했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신앙의 렌즈로 인식하게 되며 변화 동기를 얻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과 결심, 회개가 일어났으며 실제 스마트폰 조절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량이 줄며, 정상군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기독교 12단계 프로그램, 스마트폰 중독, 하나님 이미지, 칭의, 기독교 청소년



## 기독교대학생의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과 성별 간 다집단 분석 -

###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Resilience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Christian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Gender Comparison Using Multiple Group Analysis -

정숙희 (Sookhee Jung)(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은수 (Eunsoo Lee)\*\*

김재영 (Jaeyoung Kim)\*\*\*

신성만 (Sungman Shi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resilience and smartphone addi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mong Christian college students. For this study, 656 Christian college students were surveyed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re used to evaluate model fit and mediating eff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depression has led to smartphone addiction. Second, depression was found to have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ilience and smartphone addiction. It means that family resilience reduces individuals' depression and low-level of depression decreases risk of smartphone addiction. Lastly,

---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goodnews@handong.edu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Korea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eunsoo9090@gmail.com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원(Institute of Basic Science),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대 수리과학관, jaykim870418@gmail.com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sshin@handong.edu

2019년 04월 13일 접수, 05월 31일 최종수정, 06월 03일 게재확정

gender differences were examin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Depression has larger effect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female students rather than male student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intervention of Christian community are required to decrease students' depression and to strengthen the family resilience.

**Key Words** : Christian college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family resilience, depression, mediating effect, multi-group analysis

## I. 서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의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인구의 89.6%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3.6%로 동일 기간 일본(60~70%), 중국(6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7). 이처럼 국내에서 특히 높은 보급률을 보이는 스마트폰은 기존의 휴대전화 기능에 더하여 어플리케이션, SNS, 미디어, 게임 등의 기능을 갖추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유용성, 접근성, 편리성 등의 이면에는 디지털 매체의 확대에 의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이 존재한다(신광우 외, 2011). 한국정보화진흥원(2019)에 따르면 스마트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2014년도 12.2%에서 2016년 15.3%, 2018년도 13.8%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더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이는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 군의 경우 2014년도 2.0%에서 2016년도 2.5%로, 2018년 2.7%로 늘어나 매년 상승 추세에 있다. 그 중에서도 성인 스마트폰 이용자 중 20대가 고위험군 3.4%, 잠재위험군 20.6%를 기록하며 10대에 이어 대학생 시기에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단계로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자유가 증가하는 시기이며, 중·고등학생 시기에 비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사용하기가 훨씬 용이하여 중독 위험률이 높을 수 있다(이보라 외, 2005; 전호선·장승옥, 2014).

성인 초기 발달 과업을 이루어야 할 중요한 시기인 대학생 때, 스마트폰 중독은 거북목 증후군, 수면장애, 눈의 피로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윤주영 외, 2011; 황경혜 외, 2012)는 물론 강박증, 정신증, 불안,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건강 문

제(황경혜 외, 2012; 이성철 외, 2014)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인지·정서적, 관계적 발달을 저해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문제는 기독교대학생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연구에서 기독교대학생과 청소년 집단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병년 외, 2013; 장성화·진석연, 2009), 특히 개인의 종교적 영적 안녕감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박명준·신성만, 2014).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 차원에서의 개입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정신건강 문제에서 기독교청년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기독교대학생들을 위한 신앙성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김병년 외, 2013).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부모양육태도, 가족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 대인관계 등이 있으며(김병년 외, 2013; 김병년·최홍일, 2013; 이현숙, 2016; 조선희·전경숙, 2016), 개인적 요인으로는 우울, 불안, 충동성,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미 외, 2014; 안주아, 2016; 유승숙·최진오, 2015; 이진령 외, 2014; 전호선·장승옥, 2014; 조규영·김윤희, 2014). 이 중 우울, 불안, 충동성과 같은 부정적 정서 요인은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것으로 중독의 상담 및 치료 영역과도 관련을 가지며 연구의 초점이 되어왔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 중에서 가족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가족탄력성이란 가족을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간주하여 위기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가족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발전해 나가는 능력을 뜻한다(Walsh, 1996). 즉, 가족탄력성이 높은 가족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여 역경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구성원들의 가정 내 경험과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Patterson, 2002). 따라서 높은 탄력성을 가진 가족은 구성원의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적응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도록 하여 삶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우울감을 경감시키고 중독 문제를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가족탄력성이 낮은 경우 환경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되어 우울감의 증가와 그로 인한 스마트폰 과의존 등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가 스마트폰 중독을 심화시키는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는데(김병년, 2013), 그 중 우울은 현대 대학생들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로 스마트폰 중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많은 실증적 연구에서는 일반집단에 비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의 경우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져(Thomee et al., 2011), 우울 수준이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강력한 위험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이어리·이강이, 2012).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우울감과 영향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특징적인 것은 다수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진령 외, 2014; 안주아, 2016; Demirci et al., 2015; Haug et al., 2015). 성별에 따른 차이는 단순한 집단 비교를 넘어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김재엽·황현주, 2016; 전호선·장승옥, 2014). 이처럼 성별에 따른 단순한 집단 비교에서부터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변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 결과에서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전호선·장승옥, 2014).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함에도 가족관련 요인 중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고,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대표적인 정신건강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우울정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현재 기독교 내부에서 스마트폰 중독 자체에 초점을 맞춘 국내 실증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며, 이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적다. 지금까지 기독교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 이루어진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폰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조절 효과를 규명한 연구(정숙희 외, 2015)와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박진희·전요섭, 2013),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 사이에서 신앙 성숙도의 매개 관계를 검증한 연구(오인근, 2019) 등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족 요인과 정신건강 요인,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살펴본 실증적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탄력성이 기독교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우울정도가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파악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독교대학생의 우울정도와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가족탄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독교대학생의 우울정도는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기독교대학생의 가족탄력성, 우울 및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일상생활 장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내성, 금단이라는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신광우 외, 2011).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장애’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은 현실보다 가상공간에서 관계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내성’은 스마트폰을 예전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지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한다. ‘금단’은 스마트폰 사용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면 불안이나 강박적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 이처럼 일상생활 장애,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내성, 금단의 4가지 하위차원을 포함한 개념을 스마트폰 중독이라 할 수 있다.

위험상황에서 가족이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탄력성은 가족 구성원의 가정 내 경험과 대처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tterson,

2002). Walsh(1996)는 가족탄력성이 높은 가족은 역경 앞에서도 의미를 찾아 긍정성을 유지하고, 탄력성이 높은 가족은 구성원들 간의 분명한 경계를 유지하되 그 역할은 안정적이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또한 의사소통이 명확하고 감정표현에 있어 개방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의존 가족에서 나타나는 경계의 모호함과 감정의 억압, 과도한 통제 노력 등의 특징과 상반되며, 동시에 가족체계 이론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가족 기능을 포함한다. 따라서 가족탄력성은 중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가족 취약성과 상반되는 특징을 반영하므로 가족탄력성이 구성원의 중독에 주요한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가족탄력성과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연관시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혜령(2015)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탄력성은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민정, 2016)를 통해 가족탄력성이 우울과 인터넷 게임중독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이충효(2015)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 가족관련 요인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부모님이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적절한 가족 기능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부모-자녀 관계와 연관된 변인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장재홍·김광현, 2009), 그 중 다수의 연구에서 부모 양육태도, 부모-자녀 갈등, 의사소통 양식 등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김병년 외, 2013; 이수진·문혁준, 2013; 이은정·어주경, 2014). 구체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 상호작용은 적절하고 자유로운 감정표현, 자녀의 정서적 욕구 충족, 정서적 지지의 제공 등을 포함하며 이는 일탈행동을 증재하고 자기조절 능력을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낮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수준과 연관되어 있다(김대명·조준수, 2015; 이지원, 2011; 임훈정, 2015). 반면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 결핍, 억압된 정서 표현, 과도한 정서 관여, 의사소통의 부재, 과도한 행동통제, 낮은 지지 수준 등을 포함하며 이는 높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배성만 외, 2012; 신영주·최정윤, 2003).

한편, 중국, 타이완, 터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Gunuc and Dogan, 2013; Li et al., 2014)에서는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가족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

가 낮았으며, 가족이 덜 응집적이며, 부모가 더 냉담하고, 부모-자녀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관계와 인터넷 중독, 물질 사용 경험을 함께 살펴본 연구(Yen et al., 2007)에서 부모-자녀 갈등, 낮은 부모의 지지 수준, 낮은 가족 기능의 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물질 남용 수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과 물질 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이 공통적임을 보고했다.

이처럼 비록 직접적으로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가족 요인과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연관시켜 살펴본 많은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체계의 의사소통과 역할, 가족 규칙 등 가족탄력성과 관련된 요인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가족탄력성과 우울

가족탄력성은 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 사건과 스트레스 수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며, 따라서 가족탄력성이 낮을 경우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사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박지현, 2009). 또한 가족탄력성이 낮은 경우 외부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족 기능이 저하되며 이는 곧 가족의 전체적인 스트레스 수준의 증가로 연결되어 구성원 개개인에게 부정적 심리·정서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가족 구성원이 문제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때 가족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이 저하되어 있거나 부족할 때 개인의 우울감이 증가하므로 낮은 가족탄력성은 우울감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가족탄력성과 우울 수준을 함께 살펴본 선행연구(이영경·정명희, 2013)에서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은 가족의 스트레스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가족 내에서의 관계적 지원을 강화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과 가족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인정, 2007; 김현주·이성애, 2011). 특히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중독자 가족 등 위기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 다양한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에

따라 가족의 적응력, 긍정적 정서, 심리적 안녕감 등 가족의 적응적 행동과 심리·정서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살 사고,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행섭·김진숙, 2008; 심미영 외, 2014; 안성아·심미영, 2013; 우재희, 2014).

또한 가족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응집성, 가족건강성 변인 또한 개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 내에서 긍정적인 심리정서적 경험을 하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적응적이며 자아존중감, 행복감 등의 심리적 자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역기능적인 가족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하진·김정옥, 2009; 조은경·정혜정, 2009; 김순기·유영주, 2001).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가족에서의 경험은 개인의 정서적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특히 가족탄력성은 가족과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미쳐 가족 구성원의 우울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많은 연구자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으로 다양한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우울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주요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로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높은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병년 외, 2013; 정희진, 2014; 황경혜 외, 2012; 황승일, 2013; Demirici et al., 2015),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의 우울 수준이 일반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병년, 2013; 박용민, 2011; 전호선·장승옥, 2014; Thomee et al., 2011).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 대인관계 위축, 활동에 대한 전반적 관심의 감소 등으로 인해 타인을 만나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접근이 쉽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스마트폰에 몰입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병년 외, 20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우울감이라는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며, 정서조절 능력이



낮으며 부정적 정서에 대처 방략이 빈약할수록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김은영 외, 2016). 이와 같이 우울은 부정적 감정 경험을 유발하며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이나 가상세계로 몰입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 대학생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우울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변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정서조절 등의 개인 심리내적 요인은 물론 부모양육태도, 대학생활 적응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의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기숙, 2015; 김대명·조준수, 2015; 김은영 외, 2016; 심미영 외, 2016; 유승숙·최진오, 2015). 즉,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개인이 다양한 원인을 통해 우울감을 경험하며, 이 우울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이 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4.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현재까지 스마트폰 중독을 주제로 이루어진 다수의 사전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성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주아, 2016; 이진령 외, 2014; 황경혜 외, 2012; 이성철 외, 2014; Demirci et al., 2015; Haug et al., 2015). 연구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선호하고 관계 지향적인 특징을 보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평소 스마트폰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로 인해 여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이진령 외, 2014). 또한 여학생들은 감정적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일어날 경우 문자, SNS 사용 등을 통해 대처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남학생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검색, 오락, 업무처리를 주로 하는 반면 여학생은 문자, SNS를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밝혀졌다(Bianchi and Phillips, 2005; Park and Lee, 2014).

한편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스마트폰 중독 관련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다수 밝혀지고 있다. 스트레스와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살펴본 전호선, 장승옥(2014)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재엽, 황현주(2016)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경우에서만 아동학대 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경로에서 우울감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스마트폰 중독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며,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에 또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6년을 기준으로 H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입학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769명의 신입생 중 응답에 결측이 있는 15명을 제외하고 종교가 기독교라고 응답한 6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318명으로 전체의 48.5%이고, 여학생은 338명으로 전체의 51.5%였다. 경제적 수준은 하위 수준으로 응답한 학생이 92명으로 전체의 14.2%, 중간 수준으로 응답한 학생이 425명으로 전체의 65.7%, 상위 수준으로 응답한 학생이 129명으로 전체의 19.9%였다.

#### 2. 측정 도구

##### (1) 가족탄력성

본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Walsh(1998)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김미옥(2001)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 가족이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가족통제감과 갑작스런 위기가 있을 때 상호협력적인 노력을 통하여 강화되는 가족강점이 있다. 가족통제감은 Antonovsky와 Sourani(1998)가 개발한 가족통제감 1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으로는 ‘내가 지치고, 기운이 없고, 화가 났을 때, 우리 가족은 내 감정을 잘 알아준다’, ‘가족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늘 해결책을 찾는다’ 등이 있다. 가족강점은 Olson(1993)이 개발한 가족강점척도 12문항을 사용하였고, ‘우리 가족은 자

랑스럽다’, ‘서로를 존중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 방법(internal consistency approach)을 사용하여 각 하위요인을 평균내어 총 6개의 측정변수로 만들었다(Little et al., 2002).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각 하위문항인 가족통제감과 가족강점은 .88로, 전체문항은 .93으로 나타났다.

## (2)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신선인(2001)에 의해 타당화된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20)의 우울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우울한 증상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 ‘매우 그렇다’부터 4점 ‘매우 아니다’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높은 점수일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우울감과 불행감을 느낀 적이 많았다’,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느낀 적이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69로 나타났다.

## (3)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동일 외(2012)가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일상생활 장애 5문항, 가상세계 지향 2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으로 4가지 요인을 측정하는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점수의 범위는 15점부터 60점까지로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묶음(parceling)은 내적 일관성 방법을 사용하여 각 하위요인을 평균 낸 총 4개의 측정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8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와 가설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주요 변수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0.0을 통해 기술 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plus 7.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측치 처리를 위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했다.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은 각 사례 수준의 우도함수를 계산하여 결측치가 존재하는 그대로 불완전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MCAR이나 MAR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통적인 방법보다 정확한 추정방법이다(Arbuckle, 1996). 또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의 적합도와 유의한 경로를 확인하고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매개효과를 붓스트랩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hi^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여러 적합도 중에 CFI, TLI, RMSEA를 같이 선정하여 결과에 제시하였다. CFI와 TL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기저모형에 비해 이론모형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며, 두 지수 모두 .95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90 이상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반면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서 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06 이하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낸다(Hu and Bentler, 1999). 마지막으로 구조모형에서 남녀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를 실시하였다.

#### 4.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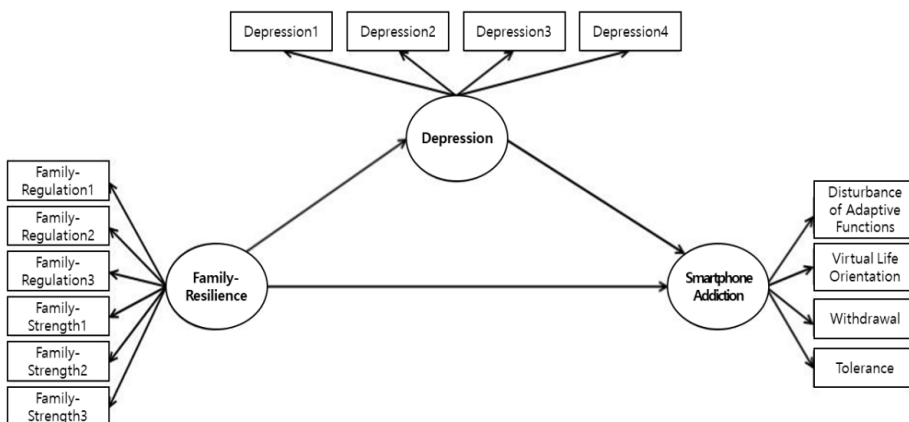


Figure 1. Graphical Representation of Mediation Model of Family-Resilience,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 IV. 연구 결과

### 1. 기술통계 및 상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구하여 Table 1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가족탄력성 하위측정변인의 평균값은 3.37에서 3.97, 우울은 1.52에서 2.35, 스마트폰 중독은 1.54에서 2.37로 나타났으며,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rmal Probability Analysis of the Major Variables

Latent Variables	<i>M</i>	<i>SD</i>	Indicators	<i>M</i>	<i>SD</i>	Skewness	Kurtosis
Family Resilience	3.72	0.61	Family Regulation1	3.82	0.73	-.381	-.447
			Family Regulation2	3.80	0.71	-.521	.083
			Family Regulation3	3.57	0.55	-.448	.128
			Family Strength1	3.37	0.69	-.228	.043
			Family Strength2	3.83	0.75	-.467	-.143
			Family Strength3	3.97	0.79	-.709	.261
Depression	2.07	0.57	Depression1	2.28	0.81	.083	-.564
			Depression2	2.13	0.83	.367	-.393
			Depression3	2.35	0.86	-.018	-.725
			Depression4	1.52	0.61	.794	.072
Smartphone Addiction	2.00	0.44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	2.24	0.57	-.072	-.242
			Virtual Life Orientation	1.54	0.48	.602	-.098
			Withdrawal	1.87	0.53	.281	-.240
			Tolerance	2.37	0.58	-.202	.024

주1) Family Resilience의 하위측정변수로 가족통제감 18문항과 가족강점 12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주2) Depression의 하위측정변수로 일반정신건강척도(KGHQ-20)의 우울 4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음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715**	1												
3	.654**	.671**	1											
4	.579**	.582**	.570**	1										
5	.728**	.723**	.646**	.632**	1									
6	.755**	.749**	.680**	.636**	.822**	1								
7	-.146**	-.076*	-.165**	-.148**	-.139**	-.148**	1							
8	-.234**	-.187**	-.196**	-.233**	-.227**	-.243**	.403**	1						
9	-.126**	-.085*	-.101**	-.142**	-.118**	-.126**	.424**	.579**	1					
10	-.269**	-.291**	-.283**	-.194**	-.259**	-.261**	.262**	.273**	.193**	1				
11	-.120**	-.120**	-.124**	-.089*	-.123**	-.096*	.227**	.170**	.259**	.123**	1			
12	-.198**	-.193**	-.164**	-.216**	-.188**	-.187**	.263**	.282**	.230**	.245**	.446**	1		
13	-.179**	-.135**	-.164**	-.156**	-.126**	-.131**	.262**	.209**	.208**	.141**	.435**	.603**	1	
14	-.154**	-.145**	-.169**	-.144**	-.134**	-.117**	.270**	.210**	.254**	.120**	.712**	.461**	.504**	1

주) 1-Family Regulation1, 2-Family Regulation2, 3-Family Regulation3, 4-Family Strength1, 5-Family Strength2, 6-Family Strength3, 7-Depression1, 8-Depression2, 9-Depression3, 10-Depression4, 11-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 12-Virtual Life Orientation, 13-Withdrawal, 14-Tolerance

## 2.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 (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 우울, 스마트폰 중독 잠재변인의 구성개념이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324.555(df = 74)$ , CFI=.946, TLI=.934, RMSEA=.072로 적절하게 나타나,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2) 구조모형 검증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가  $\chi^2 = 324.555(df = 74)$ , CFI=.946, TLI=.934, RMSEA=.072

로 본 연구의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경로계수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탄력성이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eta = -.304, p < .01$ ), 이는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우울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392, p < .01$ ). 이는 우울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탄력성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beta = -.067, p > .05$ ), 이는 우울이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The Path Coefficient among Major Variables

경로	<i>b</i>	<i>s.e.</i>	$\beta$	Bias-corrected 95% CI	
				Lower	Upper
Family Resilience→Depression	-0.232**	0.044	-0.304	-0.319	-0.148
Depression→Smartphone Addiction	0.392**	0.392	0.405	0.296	0.503
Family Resilience→Smartphone Addiction	-0.067	0.038	-0.091	-0.143	0.005

\*  $p < .05$ , \*\*  $p < .01$

### 3.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스트랩을 실시하였다. 부스트랩은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신뢰구간을 제시해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본다. Table 4에서 매개효과는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이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4 The Result of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경로	<i>b</i>	<i>s.e.</i>	$\beta$	Bias-corrected 95% CI	
				Lower	Upper
Total Effect	-0.158	0.036	-0.214	-0.231	-0.070
Direct Effect (Family Resilience→Smartphone Addiction)	-0.067	0.038	-0.091	-0.143	0.034
Mediating Effect (Family Resilience→Depression→Smartphone Addiction)	-0.091	0.020	-0.123	-0.133	-0.045

4. 성별 간 다집단 분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잠재변수 간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로계수의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 구조 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 순서로 검증하였다.

(1) 형태동일성 검증

남녀 집단별 구조방정식 모형에 어떠한 모수의 제약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형 적합도를 검증해 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chi^2 = 461.539(df = 159)$ , CFI=.935, TLI=.926, RMSEA=.076로 적절하게 나타나,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측정동일성 검증

모형의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었으므로, 남녀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측정변수의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모형과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을 비교하였다. 각 모형은 내재된(nested) 관계이므로 모형비교에  $\chi^2$ 차이검증을 사용하였다. Table 5를 보면, 측정동일성모형과 기저모형 간의  $\chi^2$  값 차이는 15.46( $df = 11$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 측정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다.



Table 5 Goodness-of-fit index of Invariance Test

Model	$\chi^2$	df	CFI	TLI	RMSEA
1: Configural Invariance (base model)	461.539	159	0.935	0.926	0.076
2: Metric Invariance	476.998	170	0.934	0.930	0.074
3: Structural Invariance (path a constrained)	477.459	171	0.934	0.930	0.074
4: Structural Invariance (path a & b constrained)	484.380	172	0.935	0.931	0.074
5: Structural Invariance (path a & c constrained)	480.093	172	0.934	0.930	0.074

주) path a: Family Resilience→Depression, path b: Depression→Smartphone Addiction, path c: Family Resilience→Smartphone Addiction

### (3) 구조동일성 검증

구조모형에서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에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족탄력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계수가 남녀 집단 간에 동일한지 평가하기 위해 동일화 제약을 가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_{\Delta} = 0.461, df = 1$ ). 그 다음으로 가족탄력성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계수에 대해 남녀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한 결과, 경로계수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_{\Delta} = 2.634, df = 1$ ). 마지막으로 우울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계수에 대해 남녀 집단 간 동일화 제약을 가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녀 집단 간 경로계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chi^2_{\Delta} = 6.921, df = 1$ ). 따라서 남녀 간 가족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만,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6에 남녀별 경로계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았고( $\beta = -0.226, p < .01$ ),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았으며( $\beta = -0.071, p < .05$ ), 우울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284, p < .01$ ). 여학생의 경우,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았고( $\beta = -0.226, p < .01$ ),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았으며( $\beta = -0.071, p < .05$ ), 우울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beta = 0.480, p < .01$ ). 이 결과에서 여학생의 우울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계수가 남학생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6 The Path Coefficient of Structural Model

Path	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i>b</i> ( <i>s.e.</i> )	$\beta$	<i>b</i> ( <i>s.e.</i> )	$\beta$
Family Resilience→Depression	-0.226(.041)	-0.264**	-0.226(.041)	-0.332**
Family Resilience→Smartphone Addiction	-0.071(.035)	-0.098*	-0.071(.035)	-0.100*
Depression→Smartphone Addiction	0.284(.059)	0.337**	0.480(.084)	0.460**

\*  $p < .05$ , \*\*  $p < .01$

다음으로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우울의 매개효과를 남녀별로 살펴본 결과, Table 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둘 다 우울이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Mediating effect of Male and Female Students

Group	<i>b</i>	<i>s.e.</i>	$\beta$	Bias-corrected 95% CI	
				Lower	Upper
Male Students	-0.064	0.018	-0.089	-0.101	-0.032
Female Students	-0.108	0.025	-0.153	-0.161	-0.062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우울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여 기독교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과 개입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수

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정은 외, 2013; 김병년 외, 2013; 이상준, 2015; 전민, 2012; 정희진, 2014; 황경혜 외, 2012; 황승일, 2013). 이는 우울한 증상이 있는 경우, 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현실을 회피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독교대학생과 일반 대학생 집단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 선행 연구와(김병년 외, 2013; 장성화·진석연, 2009), 종교적 안녕감이 스마트폰 중독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박명준·신성만, 2014)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하는 집단에서도 우울감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가족탄력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우울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대학생이 속한 가족의 탄력성이 낮을 경우 높은 우울성향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게 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등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가족 변인(김대명·조준수, 2015)과는 다르게 가족탄력성의 경우, 탄력성이 낮아질수록 우울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탄력성은 가족 외부의 스트레스 환경과 관련된 변인이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높은 가족탄력성은 가족 내 관계적 지원, 적응력, 긍정 정서, 안녕감 등 부정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증가시키는 반면 낮은 가족탄력성은 자살사고, 우울, 불안 등의 부정 정서와 연관되어 있다고 밝혀져 왔다(박인정, 2007; 김형섭·김진숙, 2008; 김현주·이성애, 2011; 심미영 외, 2014; 안성아·심미영, 2013; 우재희, 2014).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소속된 가족 내에서 위험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대처로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가족탄력성, 우울 및 스마트폰 중독과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남녀 대학생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울에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는 계수를 검증했을 때,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본 연구 결과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목적이 주로 감정과 연관이 있는 문자, SNS에 있다는 선행연구(Bianchi and Phillips 2005; Park and Lee, 2014)의 결과를 연관 지어 해석해보면 여학생의 경우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 감정 중심의 대처를 위해 스마트폰을 활발하게 이용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 공동체에 제시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기독교 청년들이 우울감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 공동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청년들의 스트레스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기독교 청년의 우울감을 예방하고 경감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영적인 건강과 함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우울한 기분에 대한 신앙적 접근의 노력과 더불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내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고 기독교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통해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기독교대학생의 영육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책이 될 것이다.

둘째, 기독교대학생의 가족탄력성이 우울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는 기독교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청소년 및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함을 밝힌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의 강점을 활용하여 문제에 대처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해결해내는 가족 경험이 개인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경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 체계 간에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직된 관계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고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삶의 역경 앞에서 가족이 연합하고, 문제점과 어려움보다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회와 학교 등 사회의 중간 체계에 속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기독교 청년의 개인적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속한 가정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가족 상담과 지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독교대학생의 가족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부모나 교사 등 권위자가 독선적이고 복종을 요구할수록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현숙, 2007; 이진영, 2004), 교회나 학교를 포함한 사회 중간체계에 속하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전통적인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지위의 고하에 따라 구성원간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닫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보다 구성원 모두가 사랑 안에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개인의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관계를 경험하고 학습하여 각 구성원이 원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기독교 가정의 경우 가족 내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구성원간의 관계를 형성하며 사랑 안에서 상호 지지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통해 가족 개개인이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앞에서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학생과 비교했을 때 여학생에게서 우울이 스마트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동기와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인 관계망을 유지하고 소통하는데 관심이 높아서 스마트폰의 SNS 기능을 더 많이 활용하고 사용시간과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Lee et al., 2016). 이를 고려할 때, 스마트폰 사용의 올바른 시간관리 및 적절한 통제력을 기르고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 지역의 기독교 대학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국에 있는 다양한 기독교대학생 집단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의 기독교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가족탄력성 변인과 관련해서 연구 대상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 다양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가족의 기독교인 여부나 부모-자녀 간의 대화시간 같은 가족 특성 변인을 포함시켜 연구한다면 더 풍부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 참여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외에 영성, 신앙심, 영적 안녕감 등의 관련 변인이 다양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 기독교

대학생의 우울과 중독에 영향을 주는 기독교적 요인이 다양화, 세분화 된다면 기독교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넷째, 기독교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간의 스마트폰 중독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비기독교인 대학생의 표본 수가 적었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결과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여 검증한다면 기독교대학생과 비기독교인 대학생간의 스마트폰 중독 경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대학생 사회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가족탄력성과 우울과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 성별차이 검증을 통해 성별에 따른 개입의 방향성 제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강혜령 (2015). **고등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관계에서 불안과 우울의 매개효과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을 매개변수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Gang, H. R. (2015). *The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Academic Life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 With Self Resilience and Family Resilience as the Parameters*. Doctoral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고기숙 (2015).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대학생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2, 189-216.
- [Go, G. S. (2015).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and School Adaptation. *The Journal of School Social Welfare*, 32, 189-2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2018). *2018 Internet Usage Survey Summary Report*.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 김경은 외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이화간호학회지**, 47, 27-42.
- [Kim, G. E. et al. (2013). Relationship between Smart 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and Anxiety Levels amo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Ewha Nursing*, 47, 27-42.]
- 김대명 · 조준수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관계에서 불안과 우울의 매개효과. **교육종합연구**, 13(2), 151-169.
- [Kim, D. M. and Jo, J. S. (2015). Mediating Effect of Anxiety and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ther and Mother Rearing Attitude and Smartphone Addiction. *Comprehensive Study of Education*, 13(2), 151-169.]
- 김동일 외 (2012). 성인용 간략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629-644.
- [Kim, D. I. (2012). Development of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s: Self-repor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2), 629-644.]
- 김미옥 (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에 대한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의 영향력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8, 9-40.

- [Kim, M. O. (2001). A Study on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of Adaptation of Famil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8, 9-40.]
- 김민경 (2016).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과 가족탄력성 및 인터넷게임중독의 관계에 대한 융합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1), 205-210.
- [Kim, M. G. (2016). Relationship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tress, Depression, Family Resilience and Internet Game Addiction. *The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7(1), 205-210.]
- 김병년 (2013). 대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39, 49-81.
- [Kim, B. N. (2013).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and Smartphone-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9, 49-81.]
- 김병년 외 (2013).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67-98.
- [Kim, B. N. et al. (2013).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A Focus on Differences in Classifying Risk Groups. *Studies on Korean Youth*, 24(3), 67-98.]
- 김병년 · 최홍일. (2013).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9(1), 1-25.
- [Kim, B. N. and Choi, H. I. (2013). Effects of Study Overprotective Parent's Raising Attitude on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Addict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29(1), 1-25.]
- 김수미 외 (2014). 대학생에서 우울, 충동성, 회복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53(4), 214-220.
- [Kim, S. M. et al. (2014). The Effect of Depression, Impulsivity, and Resilience on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y Association*, 53(4), 214-220.]
- 김순기 · 유영주 (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43-64.
- [Kim, S. G. and Yoo, Y. J. (2001). The Effects of Family - of - origin's Emotional Health and Ego - identity on Psychological Well - being of Married Young Adults. *Th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6(1), 43-63.]
- 김은영 외 (2016). 대학(원)생들이 경험하는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정서



- 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6), 97-118.
- [Kim, E. Y. et al.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College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ifficulty in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6), 97-118.]
- 김재엽 · 황현주 (2016). 아동학대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우울의 매개효과 검증과 성별 간 다집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53, 105-133.
- [Kim, J. Y. and Hwang, H. J. (2016). The Effects of Child Abuse on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53, 105-133.]
- 김현숙 (2007). 공유적 권위와 기독교 교육. **기독교교육정보**, 17, 193-214.
- [Kim, H. S. (2007). The Role of Shared Authority in Christian Education. *Korea Society for Christio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17, 193-214.]
- 김현주 · 이상애 (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한부모 가족과 양부모 가족의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3(3), 215-241.
- [Kim, H. J. and Lee, S. A. (2011).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Comparison of Single Parent Family and Two-parent Famil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3), 215-241.]
- 김행섭 · 김진숙 (2008). 상담일반: 자녀 스트레스가 여성 한부모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처전략과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9(4), 1567-1584.
- [Kim, H. S. and Kim, J. S. (2008). The Effect of the Parenting Stress on Single Mothers' Adaptation-with the Mediation of Coping Strategy and Family Resili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4), 1567-1584.]
- 박명준 · 신성만 (2014).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이 인터넷 게임, 사이버섹스,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중독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5(2), 753-771.
- [Park, M. J. and Shin, S. M. (2014). The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on Addictions to Internet Games, Cybersex and Smartphone Use among Korean Youth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5(2), 753-771.]
- 박용민 (2011).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Park, Y. M. (2011). *A Study on Adults' Smart Phone Addiction and Mental Health*. Doctoral Thesis. Sangji University, Wonju, Korea.]

- 박인정 (2007). **한국 이혼자녀의 가족 Resilience에 대한 사례연구 : 가족과정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Park, I. J. (2007). *A Case Study on the Family Resilience of Korean Divorced Child : Focused on the Family Process*. Doctoral Thesis. Seoul Women University, Seoul, Korea.]
- 박지현 (2009).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Park, J. H. (2009). *The Effects of Family Stress and Resilience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Middle Age*.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 University, Seoul, Korea.]
- 박진희 · 전요섭 (2013). 기독교청년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스마트폰 중독과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신앙과 학문**, 18(4), 141-164.
- [Park, J. H. and Jeon, Y. S. (2013). Relationship among Covert Narcissism, Smart Phone Addiction and Spiritual Wellbeing in Christian Adolescents. *Faith & Scholarship*, 18(4), 141-164.]
- 배성만 외 (2012).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3), 529-544.
- [Bae, S. M. et al. (2012).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Internet Addictio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3), 529-544.]
- 서하진 · 김정옥 (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41-178.
- [Seo, H. J. and Kim, J. O. (2009). Self-esteem and Happiness caused by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3), 141-178.]
- 신광우 외 (2011).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
- [Sin, G. W. et al. (2011). *Development Report of Smartphone Addiction Diagnosis Scal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신선인 (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KGHQ-20과 KGHQ-30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 210-235.
- [Sin, S. I. (2001).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 KGHQ-20 & KGHQ-30.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6, 210-235.]
- 신영주 · 최정윤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과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3(1), 121-122.

- [Shin, Y. J. and Choi, J. W. (2003).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Resources*, 2003(1), 121-122.]
- 심미영 외 (2014). 장애인가족의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4), 267-276.
- [Shim, M. Y. et al. (2014). Influence of Stress on Family Adaptation of Disabled Family :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Family Strength.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4), 267-276.]
- 심미영 외 (2016).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관계: 우울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5), 227-236.
- [Shim, M. Y. et al. (2016). A Study on Influential Relations between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College Students: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Efficacy. *The Journal of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227-236.]
- 안성아·심미영 (2013). 가족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장애인 가족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7, 277-300.
- [Ahn, S. A. and Sim, M. Y. (2103). Influences of Family Strengths on the Family Stresses and Family Resilience of Disability Famil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7, 277-300.]
- 안주아 (2016).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와 중독; 우울, 충동성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 및 중독이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6(4), 128-162.
- [Ahn, J. A. (2016). A Study on the Smart phone Use Behavior and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Effect of Depression, Impulsiv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 Campus Life.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6(4), 128-162.]
- 오인근 (2019). 기독교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신앙성숙도의 매개효과. **복음과 실천**, 63(1), 347-376.
- [Oh, I. G.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Faith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Mental Health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복음과 실천**, 63(1), 347-376.]
- 우재희 (2014). 알코올중독자의 가족관계와 자살과의 관계 연구: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3), 365-386.
- [Woo, J. H. (2014).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Family Relationships and

- Suicide for Alcoholic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9(3), 365-386.]
- 유승숙 · 최진오 (2015).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 불안, 공격성의 관계: 자기통제의 조절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3(1), 131-144.
- [Yoo, S. S. and Choi, J. O. (2015). The Relationship of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with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Korean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13(1), 131-144.]
- 윤주영 외 (2011).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건강문제. **국가위기관리학회보**, 3(2), 92-104.
- [Woon, J. Y. et al. (2011). Smart Phone Addiction and Health problem in University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3(2), 92-104.]
- 이보라 외 (2005). 외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1), 79-97.
- [Lee, B. R. et al. (2005). The Effect of Extraversion on Adjustment to College -Mediated by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1(2), 79-97.]
- 이상준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따른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비교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7(2), 55-79.
- [Lee, S. J. (2015). Comparison Study of Protective and Risk Factors in Youth's Smartphone Addiction and Smartphone Game Addidc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7(2), 55-79.]
- 이성철 외 (2014).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 사회 불안의 상관 관계. **생물치료정신의학**, 20(3), 212-218.
- [Lee, S. C. et al. (2014). The Relationship of Smart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Social Anxiety on Adolescents :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20(3), 212-218.]
- 이수진 · 문혁준 (2013). 중학생의 자기통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만족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6), 587-598.
- [Lee, S. J. and Moon, H. J. (2013). Effects of Self-Control,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on Smart-phone Addic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6), 587-598.]
- 이어리 · 이강이 (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심리적 요인이 초등학교생의 중독적인

-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1(2), 27-39.
- [Lee, A. R. and Lee, K. Y. (2012). The Effects of Parental factors, Friend's factors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Addictive Mobile phone Use of Children.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21(2), 27-39.]
- 이영경 · 정명희 (2013).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족탄력성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1, 111-134.
- [Lee, Y. G. and Jung, M. H. (2013). The Effect of Family Resilience on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61, 111-134.]
- 이은정 · 어주경 (2014).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른 고등학생의 충동성과 부모양육태도의 차이. **생애학회지**, 4(1), 1-17.
- [Lee, E. J. and U, J. G. (2014). The Differences of the Impulsivity and Parenting Attitude of the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 Smart-phone Addiction. *Journal of Life-span Studies*, 4(1), 1-17.]
- 이지원 (201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Lee, J. W. (2011). *The Effects on the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by Their Parental Attitude and Self-control*. Doctoral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이진령 외 (2014). 성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력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 16(3), 1557-1566.
- [Lee, J. L. et al. (2014). The Effects of Gender, Self-Esteem and Self-Control on the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3), 1557-1566.]
- 이진영 (2004). 부모권위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Lee, J. Y. (2004). *Adolescence's Self-esteem on Parental Authority : in focus on the Christian Faith*. Doctoral Thesis. Sungkyul University, Anyang, Korea.]
- 이충효 (2015). 초·중·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Lee, C. H. (2015). *A Meta-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s Smartphone Addiction*. Doctoral Thesis.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Korea.]

- 이현숙 (2016).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연구: 스트레스 정도,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4), 163-172.
- [Lee, H. S. (2016). A Convergence Study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Parent-Son/ Daughter Communication on Addiction to Smartphones : Focused on the Mediated Effect of Stress Level, Self-Control and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4), 163-172.]
- 임훈정 (2015). 부모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Lim, H. J. (2015).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ur and Communication Style on the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 Doctoral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장성화 · 진석연 (2009). 기독교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사회적지지 및 정신건강 비교.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1, 179-202.
- [Jang, S. H. and Jin, S. W. (2009). A Study of Comparison of Cellular Phone Addiction Level,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Between Christian Teenagers and Non-Christian General Teenagers.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and Psychology*, 11, 179-202.]
- 장재홍 · 김광현 (2009).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57-183.
- [Jang, J. H. and Kim, G. H. (2009). Research Trends in Internet Addiction in Korea and The West, and Recommendation to Future research: from 1996 to 2007. *The Journal of Future Youth*, 6(4), 157-183.]
- 전민 (2012). 의사소통 불안과 우울취약성이 대학생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Jeon, M. (2012). *Effects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and Depressive Vulnerability on College Students' Smart-phone Overuse*. Doctoral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Korea.]
- 전호선 · 장승옥 (2014). 스트레스와 우울이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8), 103-129.
- [Jeon, H. S. and Jang, S. O. (2014). A Study on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Stress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Moderating

- Effect of Gend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8), 103-129.]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7). **NIPA 자료집: 2017 일본 모바일 시장 현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NIPA (2017). *NIPA Resourcebook: 2017 Japan Mobile Market Status*. NIPA.]
- 정숙희 외 (2015). 기독교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조절 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4), 243-273.
- [Jung, S. H. et al. (2015). The Mediating Effect of Faith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Mental Health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6(4), 243-273.]
- 정희진 (2014). **우울과 불안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Jung, H. J. (2014). *The Impa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on Youth Smartphone Addiction*. Doctoral Thesis. Myoungji University, Seoul, Korea.]
- 조규영 · 김윤희 (2014).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3), 1632-1640.
- [Cho, G. Y. and Kim, Y. H. (2014).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1632-1640.]
- 조선희 · 전경숙 (2016).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관련 요인. **스트레스연구**, 24(1), 13-22.
- [Cho, S. H. and Jeon, G. S. (2016). Correlates of Problematic Mobile Phone Us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4(1), 13-22.]
- 조은경 · 정혜정 (2009). 원가족 건강성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105-132.
- [Cho, E. G. and Jung, H. J. (2009). Self-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Mediated the Effect of Family-of-origin Health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4), 105-132.]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8년 스마트폰 ·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한국정보화진흥원.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9). *Smartphone · Internet and Dependency Survey Result of 2018*.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황경혜 외 (2012).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상지통증, 불안, 우울

- 및 대인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365-375.
- [Hwang, G. H. et al. (2012). Smartphone Overuse and Upper Extremity Pain, Anxiety,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0), 365-375.]
- 황승일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Hwang, S. I. (2013). *Study on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Smart phone Addiction*. Doctoral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Antonovsky, A. and Sourani, T. (1988).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family adap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9-92.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A. Marcoulides and R.E. Schumacker (Ed.).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ianchi, A. and Phillips, J. G. (2005).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roblem mobile phone use. *CyberPsychology & Behavior*, 8(1), 39-51.
- Demirci, K. et al. (2015). Relationship of smartphone use severity with sleep quality, depression and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4(2), 85-92.
- Gunuc, S. and Dogan, A.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Turkish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their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family activiti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 2197-2207.
- Haug, S. et al. (2015). Smartphone use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young people in Switzerland.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4(4), 299-307.
- Hu, L. T. and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Lee, K. E. et al. (2016). Dependency on smartphone use and its association with anxiety in Korea. *Public Health Reports*, 131(3), 411-419.
- Li, W. et al. (2014). Family factors in Internet addiction among Chinese youth: A review of English-and Chinese-language studi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s*, 31, 393-411.
- Little, T. D. et al.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151 - 173.
- Olson, D. H. (199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es(2nd ed.)*. New York: GuilfordPress.
- Park, N. and Lee, H. (2014). Gender Difference in Social Networking on Smartphones: A Case Study of Korean College Student Smartphone User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21(2), 1-18.
- Patterson, J. M. (2002). Integrating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349-360.
- Thomee, S. et al. (2011). Mobile phone use and stress, sleep disturbances, and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a prospective cohort study. *BMC public health*, 11(1), 66.
- Walsh, F. (1996). The concept of family resilience: Crisis and challenge. *Family process*, 35(3), 261-281.
-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Yen, J. et al. (2007). Family Factors of Internet Addiction and Substance Use Experience in Taiwanese Adolescents. *Cyber Psychology & Behavior*, 19(3), 323-329.

논문초록

기독교대학생의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과 성별 간 다집단 분석 -

정숙희 (교신저자/한동대학교)

이은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재영 (기초과학연구원)

신성만 (한동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대학생의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우울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 이 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여 기독교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개입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H 대학교 기독교학생 6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성별 간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은 가족탄력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하여 가족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우울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성별 간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독교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가족탄력성을 높이고 대학생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대학생, 스마트폰 중독, 우울, 가족탄력성, 매개효과, 다집단 분석

## 기독교대학 신입생들의 필수 신앙 교과목에 대한 수업 적응도 분석

### Analysis of Class Adjustment in Required Christianity Courses among First-year Students of a Christian University

고우련 (Wooryeon Go)\*

이은실 (Eunsill Rhe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Given the fact that Christian colleges cannot consider religion of applicants when they select students, it makes them pay more attention to disparity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students' learning interest and motivation produced by taking required Christianity courses. Therefore, this study explored class adjustment of first-year students attending a Christian college which has many compulsory Christianity courses in the first-year curriculum because freshmen have higher possibilities of maladaptation and dropout of school. As a result, an element negatively influenced on freshmen students' class adjustment was the difficulty of lectures. One of the reasons why they recognized those kinds of courses are difficult was lack of Christianity backgrounds and time for studying. However, three factors affected to students' class adjustment revealed capacity of learning environment, awareness of class meaning and necessity, and awareness of learning ability. And then, this research found that those three factors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their final grades. In addition, feedbacks were provided only for students who wish to get in order to help them to become aware of their own adjustment level and to make them use the information for applying it into their studies. In consequence, the more Christian students who took the feedbacks got the higher grades than students who did not take it. Therefore, taking a feedback positively influenced on learning achievement of Christian students.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about learning achievement between

---

\* 이스턴핀란드대학교(University of Eastern Finland), School of Applied Educational Sciences and Teacher Education 박사과정, woorygo@uef.fi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오석관 309호, esrhee@handong.edu

2019년 05월 01일 접수, 05월 30일 최종수정, 06월 03일 게재확정

both the whole and non-Christian students regardless of taking feedbacks. Lastly, with regards to class maladjustment level, adjustment level, and final grades,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students. In conclusion, those results imply the importance of providing proper physical and cognitive supports for class adjustment of Christian and non-Christian freshmen respectively in order to increase their internal learning motivation and to achieve their studies successfully in the required Christianity courses.

**Key Words** : Christian college, first-year student, required Christianity courses, class adjustment, learning achievement

이 논문은 2019년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 I. 서론

대학들은 첫 1년이 남은 대학 생활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First-year Student Engagement in College”를 내세우며,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De Clercq et al., 2018: 68; Conley et al., 2013: 75-76; 김수연, 2012: 140). 대학 생활 적응이란 학업, 대인관계와 같이 전반적인 대학 생활에서 발생하는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의미하며, 특별히 대학이 요구하는 다양한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는가를 나타내는 학업 적응은 이 개념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Baker & Siryk, 1984: 18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업 적응연구에 비하여 현재까지 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의 수업 적응에 대한 하위 영역이나 구성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오종현 외 2017: 493). 그러나 최근 이하은 외(2016: 806-811)가 학업 적응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개별 대학 수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업 적응’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고, 이후 이 도구를 활용하여 오종현 외(2017: 496-502)가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학기 중 발생하는 대학생들의 수업 적응도 변화를 추정한 바 있다.

한편, 기독교 세계관 위에서 학문과 현실을 바라보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된 대부분의 기독교대학은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분류한 신앙 관련 수업들을 그 학교의 교육 목표 즉, 정체성과 부합하는 수업으로 인식하여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록 한다(이은성, 2017: 113). 특히, 이러한 수업이 주로 1학년 교과 과정에 집중된 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은 수업에서 기인한 중도 탈락을 지양하고 전반적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의 수업 적응과 학업 성취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박미정 외 2012: 328). 그 이유는 기독교대학이 지원자의 종교 여부와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기초 필수 교양으로 신앙 과목을 운영함으로써 모든 신입생들이 의무적으로 이러한 교과목들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며(박혜림, 2015: 373), 수업에 부적응한 학생들이 대학 1학년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 알아(김수연, 2012: 141) 학업 중단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학문적 탁월성과 전인교육을 추구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설립된 H 기독교대학을 사례로 하여, 필수 신앙 수업에서의 신입생 적응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수업 적응 연구에서는 특별히 학업에 잘 적응하였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학업 성취 정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a) 수강생들의 종교여부에 따라 신앙 수업 적응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고, b) 종교여부에 따라 신앙 수업에서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지 인식하는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여, c) 수업 적응이 이러한 신입생들의 학업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d) 이러한 수업 적응 정도를 학생 스스로가 인식하는 것이 신앙 수업 학업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크게 네 가지 연구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의 측면으로 신앙 수업 적응과 학업 성취의 관계를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대학 교양 교육 과정 평가 기준에 포함된 ‘교과목 구성의 대학 설립 이념과의 일치성’에 따라(박혜림, 2007: 120) 기독교대학으로서 신앙관련 교과과정의 운영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수업적응과 학업성취

수업 적응이란 대학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학업과는 달리, 일정한 환경 및 방법과 체

계적인 수업 구조 내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응을 의미한다(오종현 외 2017: 493). 이것은 심리적 요인, 외부 상황, 수업의 형태와 환경, 관계적 요인, 시기적 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다(곽수란, 2012: 3-7). 그러므로 수업 적응 행동이란 학습자가 수업 상황에서 a) 발생하는 일들을 바르게 수용하고, b) 집중을 방해하는 내외적 요인들을 조절하며, c)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며, d)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나타낸다(원재순·김진숙, 2016). 요약하면, 학생의 관점에서 자신의 학업을 위해 대학이 제공하는 수업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업성취란 이러한 수업 적응의 평가 및 결과적 측면으로서 나타나는 일련의 학습과제를 교수-학습 과정 속에서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의미하며,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학습 활동 결과의 일부분을 의미한다(김영미, 2006: 9). 즉, 학업 성취는 교육을 통해 얻은 성과를 말하며, 이것은 교육 목적을 달성한 정도 및 학습을 토대로 개발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업 적응과 학업 성취 간의 관계를 밝혀낸 연구들을 통해 이 두 요소 사이에는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상호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조한익, 2012: 466; Brady-Amoon & Fuertes, 2011: 432). 다시 말하면, 수업에 적응을 잘하는 학생이 학업 성취가 높을 수 있다는 것과(성미향, 2006: 42; 조한익, 2014: 207) 학업 성취가 높은 학생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수업에 잘 적응하는 것이다(Conoley & Conoley, 1991: 82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연구 경향에 근거하여 수업적응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즉, 수업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이 더욱 성공적인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업 적응은 학업 성취에 대하여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특별히 다른 교육 기관보다 대학에서 이러한 영향을 더 생각해보아야 하는 이유는 학생 스스로가 적성 그리고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을 선택하는 권한 때문이다(임대규 외 2016: 86-87). 하지만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요구하는 필수 과목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 수준이 전제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김정효 외 2017: 206-208). 즉, 필수 과목에서는 학생들은 수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율성과 내재적 동기 수준을 가지므로 수업에 첫 발을 내딛을 때 거부감이 더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하고 학업을 잘 해내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조건이 존재하는 대학 필수 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업 적응이 과연 학업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 2. 기독교대학 필수 신앙 수업 적응의 의미와 종교 여부에 따른 신앙 수업 동기 수준 차이: 기대 가치 이론을 바탕으로

34개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한 기독교대학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한 박혜림(2015: 362-363)의 연구에 따르면, 사립학교에서 설립 이념을 토대로 교육목적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선정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는 것은 학교 존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즉, 교육목적, 교육목표, 교육과정의 세 요소는 학교 설립 이념을 달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기독교대학들은 기독교 정신이 반영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와 관련한 교양 및 전공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지정된 몇몇의 필수 과목을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필수 교양으로 가장 많이 개설된 과목은 ‘성경의 이해’로(박혜림, 2015: 373-374), 이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학업 수행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입문 과목으로 제공되고 있다(한윤식, 2003: 228).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은 기독교대학이 일반 대학에 기독교적 요소를 단순히 추가시키는 것으로 대학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이명호, 2003: 9), 기독교대학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학문적 수월성(Academic Excellence)을 지닌 학문의 공동체(Academic Community)라는 것을(박진경 역, 1992: 91) 더욱 명확하게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에서의 신앙 수업 적응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학사 운영을 수용하는 학생 구성원의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김영종·이현철, 2016: 267), 크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학생의 수업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신입생으로 그 대상을 국한하여 논의한다. 기독교인 신입생의 경우, 신앙 수업에서 마주하는 수업 구성원들의 다양한 해석 및 견해로 인한 내외적인 신앙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 수업 부적응 및 중도탈락이 발생하며 이러한 현상은 대학 입장에서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부적응과는 또다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김영종·이현철, 2016: 267). 하지만 비기독교인 신입생의 경우, 기독교대학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기독교인의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수업 적응의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학생에게 부여된 필수 신앙 교과 이수가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빈번하게 제기하는 불만사항 중 하나이며(이은성, 2017: 116), 특별히 종교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 흥미 및 내적 동기 수준 차이에 주목하

도록 한다. 게다가 신앙 수업에 참석하는 동안 기독교대학에 입학한 비기독교인 학생들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독교인 학생들이 누리는 혜택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종교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는 해당 수업 뿐만 아니라 이후 대학 생활 4년 내 내 영향을 준다(Millet, 2015: 19). 그러므로 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신입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De Clercq et al., 2018: 67), 특히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동기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신앙 관련 의무 수업에 참여 및 적응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경험이 될 수 있다.

Ajzen(2012)에 따르면, 종교 여부에 따른 학습 동기 수준 차이는 심리학자 마틴 피시베인(Martin Fishbein)이 기대 가치 이론(Expectancy Value Theory)을 통해 인간의 행동에 대한 동기와 태도를 예측하고 설명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선택하고 이러한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i.e., 성취)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행동 동기는 “기대와 가치” 두 가지 변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기대는 행동 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지각된 성공 가능성(i.e., 수행에 대한 믿음 및 높은 기대치)을 의미하며, 가치는 행동 후에 이러한 선택의 결과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것으로써, 이 행동을 성공한 경우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이익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동기가 반영된 행동은 기대와 가치의 곱으로 이루어지며 결국 이 두 변수가 모두 존재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즉, 기대 가치 이론에서 한 쪽 값이 0이 되면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본 수업 적응 연구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에서 학생들은 행동 동기에 의해서 학업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성취 결과로 실제 학점을 받게 된다. 이때 학점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 수행에 대한 가치이며, 종교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좋은 학점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둔다. 그리고 기대란 학생들이 신앙 수업 관련한 학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가능성을 의미하며, 신앙 수업에서 종교 여부에 따라 기대 수준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이것은 종교 여부에 따라 학생들이 학기 말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학점의 차이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동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소인 수업 적응은 결국 이를 구성하는 두 요소인 기대와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업 적응 정도에 대한 인식을 피드백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신앙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높아진 기대가 학생들의 높은 가치인 학점과 만날 때, 결국에는 신앙 수업에



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와 성취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중도 탈락 및 이탈의 가능성이 높은 1학년 교육 과정에 신앙 필수 교과 이수가 집중된 기독교대학에서 기독교, 특히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의 수업 적응 정도를 검토하고 이들이 대학 교육에 잘 적응하도록 도울 지원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 III. 연구 방법

#### 1. 사례 선정 이유

##### (1) 대학 학습활동 질 관리 체계

H 기독교대학에서 학습 활동 질관리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는 SPARC 시스템은 총 5가지 요소(Study, Participation, Activity, Realization, Change)가 연계되어 순환하는 ‘환류 체계’이며(Figure 1, 이하은·강병덕, 2017), 이 체계 내의 적응은 수업 적응으로서, ‘대학 생활 적응1’과 같은 넓은 의미보다는 ‘개별 수업 단위’에 국한된다(고우련·김우성, 2019: 9). 즉, 학습자가 강의 및 과제와 관련한 상황들을 수용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보다 세부적인 의미를 갖는다.

##### (2) 수업 적응 도구 개발

H 대학에서 수업 적응도 설문은 총 2가지로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문항으로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Table 1). 1차 설문은 수업에서 제공 받은 자원에 대한 적응 정도를(학기 4-5주차 시행), 2차 설문은 수업 관련 세부 요인에 대한 적응 정도를(학기 11-12주차 시행) 측정한다. 설문 후, 피드백은 학생 전체의 적응 정도에 관하여 교수자에게,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과 적응 정도를 비교하여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된다. 즉,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뿐 아니라 교수자의 수업 개선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고우련·김우성, 2019).

---

1) 개인이 대학이라는 환경속에서 생활하며 부딪히는 변화와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대처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박미정 외 2012: 328).

Table 1 Class adjustment scal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2015–2017)

Year	Descriptions	Improvements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e Academic Adjustment<sup>2)</sup> subscale of SACQ<sup>2)</sup></li> <li>• Develop 1<sup>st</sup> class adjustment scale</li> <li>→ Use 9 out of total 24 item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sup>st</sup> scale item improvement</li> <li>→ Divide the item related to level of difficulties into general class and assignment</li> <li>→ Add an item related to types of support</li> <li>→ Remove the item related to amount of time that students have spent for adjusting to the class</li> <li>• Needs of more specific class adjustment items</li> <li>→ Develop 2<sup>nd</sup> class adjustment scale</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duct surveys twice per semeste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eds to know the survey results</li> <li>→ One of causes of low survey participation</li> <li>→ Develop a feedback paper</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ovide feedbacks to lecturers and to students who wish to get</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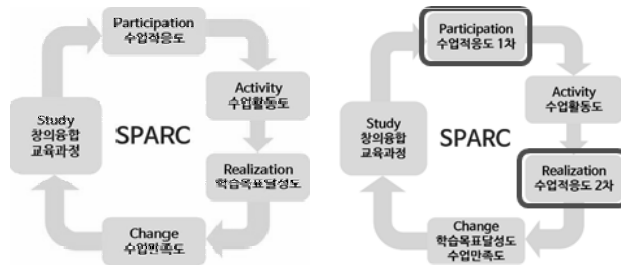


Figure 1. Existed (Left, 2015) and Improved (Right, 2016) SPARC System

### (3) 신앙 과목 중요성

H 대학은 개교 당시,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기독교적 정체성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이 말하는 학문적 탁월성을 이룩해야 할지를 심사숙고한 덕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독교 대학의 모델을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황영호 외, 2011). 이 대학은 ‘기독교 정신, 학문적 탁월성, 세계 시민 소양, 그리고 훌륭한

2) 대학 생활 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이하은·강병덕, 2017에서 재인용; Baker & Siryk, 1984; 현진원, 1992 번안; 김지연, 2015 수정)

한 기독교적 인성, 특별히 정직과 봉사의 희생정신을 겸비한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배출한다'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H 대학교 교육이념, 2018),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중심 대학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H 대학은 인성·영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채플 시간 이외에 신앙 과목을 필수/선택 교양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목들은 특별히 무전공으로 입학한 1학년 교과 과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신입생들은 필수 신앙 교과 2-3개를 입학 첫 해에 수강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신입생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소성호, 2018), 신입생들의 99% 이상은 이 대학이 기독교대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대학 선택의 주요 이유로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대학이라서(1위)'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과 비전 때문에(3위)'를 꼽았다. 그리고 '인성 및 신앙 교육(1위)'을 가장 기대하는 학습 활동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입학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신앙 교과목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의 학습 기대가 어느 정도 대학의 교육 목표와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H 대학교 교육제도개선 위원회, 2014)의 주관식 응답에 따르면, '신앙 교육 강화'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이유로 학교의 정체성 및 교육 이념 언급, 신앙 과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에 나가기 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따라서 H 대학은 신앙 필수 과목에 대한 대학과 학생들의 요구가 일치하는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4) 비기독교 신입생 증가

H 대학은 대학 선택에 있어 학생들의 높은 능동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려는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2012년 이후 수시 입학 비율을 대폭 확대하였다(고우련·김우성, 2019: 12). 수시 비율을 확대한 초반에는 자발적으로 이 대학을 선택하는 비기독교인의 평균 비율이 8.95%(2012-2015년) 이었다. 하지만 전체 기독교 청년 수가 줄어들고(김은혜, 2014: 9-10) 전체 대학 입학 인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반상진 외 2013: 191-193)에서 최근 3년간 비기독교 학생 입학 비율은 12.3%로 무려 3.35%가 증가하였다(소성호, 2018).

따라서 이 대학이 기독교 학교로서 종교 관련 수업이 의무라는 것을 학부모와 지원자가 모두 충분히 예상하도록 돕는 한편, 신앙 관련 수업을 듣는 기독교 그리고 비기독교 신입생들의 수업 적응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한다.

2. 연구대상

H 대학은 2018년 2학기에 채플을 제외하고 신앙관련 필수 혹은 선택 교과목으로 약 30개 과목을 개설하였다. 이 중, 총 6개의 필수 교과목을 수강하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1차 338명, 2차 288명에게 수업적응도 설문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두 설문에 모두 참가한 206명 중, P/F가 아닌 Grade 형식으로 학점을 받은 148명의 응답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 결측값 35명을 제외한 113명의 기독교인 여부를 포함한 최종 연구 대상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frequency(%))

Prof.	Lectures	No.	Language	Freshmen	Survey Participants	Christians	Non- Christians	Missing Values
A	Understanding of Bible	01	Korean	27(13.1)	18(12.2)	12(11.8)	1(9.1)	5(14.3)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02		32(15.5)	24(16.2)	19(18.6)	2(18.2)	3(8.6)
		03		50(24.3)	32(21.6)	27(26.5)	2(18.2)	3(8.6)
B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04	English	38(18.4)	31(20.9)	23(22.6)	5(45.4)	3(8.6)
		05		16(7.8)	13(8.9)	8(7.8)	0(0.0)	5(14.3)
		06		43(20.9)	30(20.2)	13(12.7)	1(9.1)	16(45.6)
				Total				206(100.0)

3. 연구 도구

우선 1차 설문은 주관식 3문항과 강의계획서, 과제 및 수업의 난이도, 과제의 양, 강의 속도, 전반적 적응 정도에 대한 객관식 6문항이 하위 요인 없이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2차 설문에는 1차와 다른 9문항을 총 5개의 하위 요인(i.e., 학습 환경 수용

(Capacity of Learning Environment 3문항: 과제, 자료, 수업 방식 적용을 수용하는 것), 수업 필요와 의미 인식(Awareness of Class Meaning and Necessity 2문항: 수업 내용, 흥미 및 동기를 인식하는 것), 학습 능력에 대한 인식(Awareness of Learning Ability 2문항: 과제 해결 및 지식 이해 정도를 인식하는 것)와 수업 참여도(Participation 1문항)과 전반적 적응 정도(Overall Class Adjustment 1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두 설문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으며, 영어가 더 편한 학생들에게는 영문 버전의 설문지가 제공되었다.

#### 4.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교과목 담당 교수와 논의하여 데이터 수집을 승인 받은 후, 강의실 방문을 통해 설문 응답자료를 수집하였다(1차: 9월 17일~9월 26일, 2차: 10월 29일~11월 9일). 이후 SPSS 23.0을 사용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코딩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설문분석의 결과는 설문지에 추가로 작성된 주관식 응답 분석과 더불어 교수자에게 제공되었고, 설문 결과 피드백을 희망한 개별 학생들에게는 개인과 동일과목 수강생의 적응 정도를 비교한 자료를 제공하였다(오보라·김우성, 2018).

분석 방법의 경우, 데이터의 유형과 연구 문제에 따라 객관식 응답은 빈도, 교차, 상관, 평균비교 방법으로, 주관식 응답은 R 프로그램을 통하여 핵심 단어를 시각화하는 기법 중, 빈도가 많은 단어일수록 크게 표현되는 워드클라우드 (Wordcloud)와 상관이 높은 단어간 연결을 보여주는 동시출현 네트워크(Co-Occurrence Network)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특별히,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된 수업 적응 요인과 실제 받은 학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학업 성취에 대한 수업 적응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 IV. 연구 결과

#### 1. 기초통계량

1차 설문(문항별)은 Table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업에서 제공받은 자원에 대한 적응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써, 모든 문항에서 학생들은 보통 수준의 적응 정도를 보여주

었으나 전반적인 수업의 난이도보다( $M = 1.89$ ,  $SD = 1.02$ )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더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M = 3.68$ ,  $SD = 1.26$ ).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비기독교인 집단( $n = 11$ )과 기독교인 집단( $n = 102$ )의 문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로 검정한 결과, 전반적인 수업 난이도와 수업 적응도 정도 문항만 유의수준 1%에서 종교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수업이 더 어렵고( $U = 280.500$ ,  $p < .01$ ), 더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U = 293.500$ ,  $p < .01$ ).

Table 3-1 Descriptive and comparative statistics of 1<sup>st</sup> class adjustment survey

Items	$M(SD)$	$U$	$p$
Syllabus (How useful) <sup>1)</sup>	3.17( .64)	430.000	.155
Lecture Speed (How fast)	3.22( .48)	512.000	.497
Adequacy of Assignment Amount	2.95( .42)	511.500	.251
Difficulty of Assignment	3.68(1.26)	397.500	.071
Difficulty of General Lecture	1.89(1.02)	280.500	.004**
Overall Class Adjustment	3.86( .84)	293.500	.006**

<sup>1)</sup> 4 Likert Scales for only this item(1 = Never, 4 = Very Useful)

\*\* $p < .01$

2차 설문(요인별)은 Table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수업 적응 요인들을 평가한 것으로써, 모든 요인에서 학생들은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 = 3.26$ ,  $SD = 1.15$ ).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종교여부에 따른 수업 적응 요인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로 검정한 결과, 수업참여도 요인만 제외하고 모든 요인이 유의수준 5%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간 차이가 있었다. 즉,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학습 환경을 더 잘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U = 279.000$ ,  $p < .01$ ), 신앙 수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더 잘 인식하지 못하며( $U = 243.000$ ,  $p < .01$ ), 신앙 수업과 관련하여 스스로의 학습 능력을 더 낮게 인식하였고( $U = 315.500$ ,  $p < .05$ ), 전반적으로 이 수업에 더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U = 248.500$ ,  $p < .01$ ).

Table 3-2 Descriptive and comparative statistics of 2<sup>nd</sup> class adjustment survey

Subscales	<i>M</i> ( <i>SD</i> )	<i>U</i>	<i>p</i>	<i>α</i>
Capacity of Learning Environment	4.17( .60)	279.000	.005**	.737
Awareness of Class Meaning and Necessity	4.07( .76)	243.000	.001**	.822
Awareness of Learning Ability	3.87( .68)	315.500	.014*	.660
Participation	3.26(1.15)	431.000	.194	— <sup>1)</sup>
Overall Class Adjustment	4.05( .68)	248.500	.001**	— <sup>1)</sup>

<sup>1)</sup> Participation and Overall Class Adjustment cannot measure reliabilities because there is only 1 item in each subscale

\*  $p < .05$ , \*\*  $p < .01$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설문의 공통 질문이었던 전반적 적응 경우, 1차에 비해서 2차에 0.19( $SD = .81$ ) 증가했으며, Table 3-1과 3-2에서 나타났듯이 종교 여부에 따른 전반적 적응 수준 역시 1차와 2차 모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를 대응 표본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147) = 2.838$ ,  $p < .01$ ). 즉, 1차보다 2차에 학생들의 적응 수준이 증가했다.

## 2. 상관관계

### (1) 1차 설문: 부적응 요인

Table 4와 같이, 전반적인 수업 난이도(어려운 정도)는 전반적인 적응 정도와 가장 큰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수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수업에 더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전반적인 수업 난이도는 종교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들이 전반적으로 수업 난이도가 더 어렵다고 인식한다고 드러난 교차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chi^2(4) = 40.959$ ,  $p < .01$ ). 결국, 수업의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기독교인 학생들보다 수업에 더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items of 1<sup>st</sup> survey

	Syllabus (S)	Lecture Speed (LS)	Amount of Assignment (AA)	Difficulty of Assignment (DA)	Difficulty of Leecture (DL)	Overall Adjustment (OA)
S	1					
LS	.098	1				
AA	-.094	.027	1			
DA	-.270**	-.051	.018	1		
DL	.169*	-.245**	-.067	.016	1	
OA	.196*	-.246**	-.082	-.036	.594**	1

\* $p < .05$ , \*\* $p < .01$ 

수업 난이도가 어렵다고 선택한 학생들(Table 5의 ‘1= 포기하고 싶음’, ‘2=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포기할 정도는 아님’, ‘3=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럭저럭 따라감’, 이하 1-3)이 기독교 여부에 따라 수업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복수로 응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업의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 학생들은 ‘배운 바를 이해하기 전에 넘어가는 것’과 ‘부족한 학습량’을 그 이유로 언급하였으나, ‘불충분한 배경지식의 양’은 기독교인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 학생들의 수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였다.

Table 5 Reasons why students feel difficult in Christianity lectures (frequency)

Reasons	1			2			3			총
	C <sup>1)</sup>	NC <sup>1)</sup>	MV <sup>1)</sup>	C	NC	MV	C	NC	MV	
Lack of Christianity or bible backgrounds	0	0	1	0	<b>4</b>	0	<b>7</b>	<b>3</b>	<b>1</b>	<b>16</b>
Fast lecture speed before understanding	0	0	0	1	0	0	<b>6</b>	0	0	<b>8</b>
Professor's high expectancy	0	0	0	0	0	0	1	0	0	1
Burdens on resource usage for this lecture	0	0	0	0	0	1	2	0	0	3
Lecture provided in English	0	0	0	0	1	0	4	0	2	7
Lack of time for studying	0	0	0	0	2	0	<b>10</b>	0	2	<b>14</b>
etc.	0	0	0	0	1	2	1	0	1	5
No reasons	1	0	0	0	0	0	0	0	0	1
Total		2			13			40		55

<sup>1)</sup> C= Christian students, NC=Non-Christian students, MV= Missing Values



이를 위해, 학생들은 교수님들께서 강의해 주시는 내용을 어떻게 습득하고 학습할지 알려주는 것과 공부를 위해 필요한 PPT 및 추가 자료 제공과 상호작용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관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R 분석의 빈도분석인 워드클라우드 기법과 상관분석인 동시 출현 네트워크(Co-Occurrence)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한다(Figure 2).



Figure 2. Wordcloud(Left) & Co-Occurrence Network(Right)

## (2) 2차 설문: 적응 요인

2차 적응도 설문의 결과를 보면 수업 참여도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은 Table 6과 같이 수업 적응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수업 적응은 학생이 스스로의 학습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고( $r = .764, p < .01$ ), 수업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는 오히려 상관이 없었다. 이는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기독교인 여부에 따른 집단간 평균을 비교한 Mann-Whitney 검정 결과 수업 참여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업 적응 요인에서 기독교인 학생과 비기독교인 학생 간 적응 수준 차이를 보여준 것과 일치한다. 이에 수업 참여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KMO-Bartlett 검정 = .876,  $p < .01$ ), 기존 5개의 요인 중, 수업 참여도와 전반적 수업 적응 총 2개의 요인이 설문에서 제외되었으며( $\chi^2(20) = 80.034, p < .01$ ), 이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더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수정된 설문의 Cronbach's  $\alpha$  값은 .866으로, 7문항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최종 수업 적응도 설문은 높은 신뢰 수준을 보여주었다.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items of 2<sup>nd</sup> survey

	Capacity of Learning Environment (CLE)	Awareness of Class Meaning and Necessity (ACMN)	Awareness of Learning Ability (ALA)	Participation (P)	Overall Adjustment (OA)
CLE	1				
ACMN	.742**	1			
ALA	.570**	.558**	1		
P	.066	.107	.117	1	
OA	.595**	.615**	.764**	.122	1

\*\*  $p < .01$

### (3) 기독교인 여부와 예상학점 및 실제학점 차이

기독교인 여부에 따른 예상학점 및 실제 학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가지 학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비기독교인 집단( $n = 11$ )을 고려하여 Mann-Whitney 비모수 검정을 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기독교인 여부에 따른 예상학점과( $U = 293.500, p < .05$ ) 실제 학점( $U = 351.500, p < .05$ )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즉,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학기말에 더 높은 학점을 받으리라 예상하였고, 실제로도 더 높은 학점을 받았다(Table 7).

Table 7 Comparison expected and final grades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students

		A+	A	B+	B	C+	C	D+	D	F	Total
Expected Grades	Christian Students	13	30	30	19	3	1	-	-	-	100
	Non-Christian Students	0	2	3	3	1	1	-	-	-	10
	Total(N)	13	32	33	22	4	2	-	-	-	110
Final Grades	Christian Students	31	15	15	18	10	7	4	0	2	102
	Non-Christian Students	0	1	3	3	2	1	0	0	1	11
	Total(N)	31	16	18	21	12	8	4	0	3	113

#### (4) 수업적응과 실제학점

위에서 수정한 수업 적응 3요인을 바탕으로 실제 학기말 성적 간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요인별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에 따른 유의확률이 학습 능력에 대한 인식 및 전체 평균을 제외하고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기독교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 적응과 실제 학점은 정적 상관이 있다. 즉, B<sup>+</sup>와 C<sup>+</sup>를 받은 집단을 제외하고 요인별 적응값이 높을수록 실제로 높은 학점을 받았다 (Table 8). 이는 숫자 형식의 학점으로 상관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r = .287, p < .01$ ).

Table 8 Comparison final grades among subscales of 2<sup>nd</sup> class adjustment survey

	Capacity of Learning Environment (CLE)	Awareness of Class Meaning and Necessity (ACMN)	Awareness of Learning Ability (ALA)	M(SD)	N(%)
Grades	A+	4.35	4.38	4.11	41(27.7)
	A	4.32	4.08	4.00	24(16.2)
	B+	3.93	3.59	3.72	23(15.5)
	B	4.12	4.13	3.63	27(18.2)
	C+	4.31	4.33	3.87	15(10.1)
	C	4.08	4.06	4.00	8(5.4)
	D+	3.80	3.60	3.40	5(3.4)
	D	3.00	3.00	3.00	1(0.8)
	F	3.42	3.25	3.63	4(2.7)
$\chi^2(df)$		98.992(56)**	91.082(56)**	48.612(48)	49.830(24)** 521.816(488)

\*\* $p < .01$

### 3. 설문 결과 피드백 효과성

학생 스스로 자신의 수업 적응 수준을 인지하고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배부한 피드백의 효과성은 피드백 수령 유무에 따른 실제-예상 학점 차이를 통해 알아보았다. 예상 학점은 학기 말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학점을 의미하며, 2차 설문 당시 추가적으로 기재를 요구하여 수집된 정보이다. 학생들은 예상 학점을 기재한 2차 설문조사

후 그리고 실제 학점을 받기 전에 자신과 동료 학생들의 적응도를 비교한 설문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학업 성취에 대한 수업 적응 인식의 역할을 알아볼 수 있다. 전체,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집단의 피드백 수령 유무를 모르는 결측값 각각 7명, 6명,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Table 9), 전체 학생과 비기독교인은 피드백 수령 유무에 따른 예상-실제 학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기독교인은 피드백 수령 유무에 따른 예상-실제 학점 차이가 있었다( $t(94) = 2.322, p < .05$ ). 즉, 피드백을 수령한 기독교인 학생은 수령하지 않은 기독교인 학생보다 예상보다 실제로 높은 학점을 받은 비율이 많았고, 피드백을 수령하지 않은 기독교인 학생은 피드백을 수령한 기독교인 학생보다 예상보다 실제로 낮은 학점을 받은 비율이 많았다.

Table 9 Comparison between expected grades and final grades depending on both type of students and whether feedbacks were taken (Frequency(%))

	The whole participants' feedback taking		Christian students' feedback taking		Non-Christian students' feedback taking	
	Yes	No	Yes	No	Yes	No
Final > Expect <sup>1)</sup>	21(14.9)	19(13.5)	17(17.7)	12(12.5)	1(10.0)	1(10.0)
Final = Expect	20(14.2)	24(17.0)	9(9.4)	19(19.8)	3(30.0)	0(0.0)
Final < Expect	24(17.0)	33(23.4)	14(14.6)	25(26.0)	2(20.0)	3(30.0)
Total	65(46.1)	76(53.9)	40(41.7)	56(58.3)	6(60.0)	4(40.0)
	141(100.0)		96(100.0)		10(100.0)	

<sup>1)</sup> Final= Final grades, Expect= Expected grades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대학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학업과는 달리, 수업 구조 내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응인 수업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특별히, 기독교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신앙 수업에서 신입생들의 수업 적응과 성공적인 학업성취에 필요한 자원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집된 데이터가 분석되었다. 먼저 학기 초에는 수업 적응을 방해하는(i.e., 수업 부정적

응) 요소를 알아보고 수업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하였으며, 학기 중간에는 수업 적응에 중요한 요소를 알아봄으로써 수업 적응에 보다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알아본 수업 부적응 및 적응 요인의 정보를 학생 스스로 인지하게 함으로써 이것이 신입생들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필수 신앙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와 2차 설문 모두에서 기독교인 여부에 따라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즉, 기독교인 보다 비기독교인 신입생이 필수 신앙 수업에 더 잘 적응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종교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학습 흥미 및 내적 동기 수준 차이(김선정 외 2008)가 수업 적응의 차이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기독교대학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기독교인의 여부를 고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학한 학생이 필수 신앙 교과를 이수해야 함으로 발생하는 수업 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독교대학에 입학한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이 수업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른 수업 구성원(e.g., 기독교인 학생과 교수자, 조교 등)은 필수 신앙 수업에서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소수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위한 개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수업에 얼마나 참여하였나 하는 것보다 a) 학습환경을 얼마나 잘 수용하고, b) 어떠한 이유로 이 수업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인식하며, c) 이 수업을 잘 이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참여도 요인이 수업 적응도 설문에서 제외된 것은 해당 요인이 1문항으로 이루어진데다 다른 하위 요인과의 낮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실제 질문이 ‘나는 그룹 토의 및 발표에 참여하는 것이 두렵다’였는데, 교리를 전달하는 신앙수업의 특성상 질의 응답을 제외하고 그룹 토의 및 발표를 하는 능동적인 참여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수업 형태에 따라 얼마나 수업에 참여하는지를 측정하는 내용이 수업 참여도 문항에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혹은 수업에서 전달되는 지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참여하는 등 메타인지적(Meta-cognitive)인 관

점의 참여와 같은 문항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1차 설문을 통해 확인한 수업 부적응 요인은 전반적인 수업 난이도였다. 무엇보다 수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 학생들은 ‘배운 바를 이해하기 전에 넘어가는 것’과 ‘부족한 학습량’을 수업이 어려워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로 언급하였으나, ‘불충분한 배경지식의 양’은 기독교인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가장 큰 수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제시한 의견은 추가적인 학습자료와 상호작용의 기회 증가였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차 설문에서 확인한 수업 참여도가 수업적응과 관련이 없다는 결과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민혜리와 이희원이(2011: 67-69) 밝혀낸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로써 학생 참여적 수업 유도를 지적한 것과, 교수-학생 상호작용 측면에서 질문을 통한 지적 자극 부분을 나누어서 요구한 것과 일치한다. 즉, 강의를 이수하기 위해서 해야할 일들을 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일은 충분히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신앙 과목은 학생이 얼마나 많은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이다. 게다가 최영근(2014, 60)의 기독교대학 교양 과목 관련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 교과목은 채플과 같은 대규모 학생 대상이 아닌 강의실에서 소규모의 학생들과 활발하게 상호작용 하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선교적 기회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대화와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 그러므로 추가 자료나 상호작용의 기회는 신앙 수업에서 단순히 내용과 지식의 전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의문을 해소하거나 배운 것을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정립되는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어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업 적응은 실제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독교인 여부에 따라 실제 학점에 차이가 있었다. 즉, 수업에 잘 적응할수록, 그리고 기독교인 학생이 비기독교학생 보다 높은 학점을 받았다. 또한 적응 정도에 관한 피드백을 수령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예상보다 실제로 더 좋은 학점을 받은 비율이 많았는데

특히 이것은 기독교인 학생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점에서 적응도 피드백은 학기 종료 약 4주 전에 학생들이 남은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설문 과정에서 학기말 성적을 예상해 본 이후에 배부된 피드백은 학생 개인이 자신의 적응 정도를 인식할 뿐 아니라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봄으로써 예상보다 더 나은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교수자가 수업에서 더 제공해주어야 하는 외적인 자원만을 고민하기 보다 이렇게 학생 스스로가 학습과 관련된 내재적 동기(i.e., 기대 가치 이론의 기대 요소)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 역시 중요하다.

무엇보다 신앙 교과목에서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수인(2017)의 기독교 대학의교양 교과 중요성-만족도 분석 결과, 학생이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부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실제 H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사회에 나가기 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신앙교육의 강화를 강조했다라는 점이다(고우련·김우성, 2019: 13). 이 대학은 기독교 문화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 특수한 학습 환경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세상과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환경이 없는 일반 사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유은희, 2017: 462-464). 이것은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 학생뿐 아니라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교를 가지게 된 학생들에게도 기독교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축적된 지식을 가공하는 기회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신앙 수업을 통해 학생 스스로 어떤 삶의 목적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성찰하고 내면화할 수 있기에 결국 신앙 교육에서 내재적 동기를 분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수업 적응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학점과 학업 성취의 관점에서 분석한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에서 말하는 전인(The whole person) 교육의 전체(whole)를 협소하게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이론일 뿐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은 종교와 신앙을 단순히 지적인 문제로 제한할 수 없으며(이승열, 2017), 수업에 적응한다는 것을 성공적인 학업 성취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윤성민(2016, 220-222)은 기독교대학의 체질 및 신앙 교과목 관련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바로 신앙 교양 교과 담당 교수가 수업

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에 눈을 뜬 신입 및 재학생들에게 기독교적 관점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독교 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기독교 교과목이 보다 세밀해지고, 다양해지고, 실용적이 되어서 현 세대의 감각과 필요에 맞는 실제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는데(구제홍, 2007) 탁월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이은성(2017, 118-119) 또한 그의 연구에서 다른 전공과의 융합형 기독교 교양교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문적 융합을 통해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보다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이며 역동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종합해보면, 기독교대학이 학업 수행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가 기독교인 학생들에게는 도전이, 비기독교인 학생들에게는 호기심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행동적인 측면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신앙관련 수업에 대해 적응한다는 것만으로 개별 강의를 아우르는 기독교대학의 신앙 교육의 전체적인 운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 간 정규분포를 맞출 수 있도록 더 많은 비기독교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체 신입생의 12.5% 만이 비기독교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소성호, 2018) 신입생 관련 적응도 설문에 현재보다 더 집단 간 균형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데이터 양을 보충하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신앙 수업 적응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더욱 유익할 것이다. 또한 1·2학기에 모두 시행되는 신입생 필수 신앙 수업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양적 연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후속연구에서는 응답 수의 제한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던 수업적응과 학업성취 간 인과관계 규명과 더불어 종교여부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과 같은 보다 심층적인 구조방정식 분석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에서 교양교과를 통한 신앙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전략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들은 필수 신앙 수업을 수강하는 모든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한 학습 지원에 교수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수업 자원들 뿐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수업에 대한 정보들 (i.e., 수업 적응 정도)이 내재적 학습 동기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러므로 이 연구가 학생 개개인의 수업 및 대학 생활 적응과 더불어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교육의 핵심이자 신입생 교과 과정에 집중된 필수 신앙 수업의 보다 발전된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고우련 · 김우성 (2019). **2018 SPARC 개선 연구 보고서**. 한동교육개발원.
- [Go, W. R., & Kim, W. S. (2019). *SPARC Improvement Research Report in 2018*. Handong Institute for Scholarship and Education Development.]
- 곽수란 (2012). 학업성취, 교사기대 그리고 학업적응과의 관계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1), 1-24.
- [Kwak, S. R. (2012). A causality analysis of the academic achievement, teacher's expectation and student's academic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2(1), 1-24.]
- 구제홍 (2007). 정보사회의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 명지대학교 인성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18), 35-68.
- [Koo, J. H. (2007). Education for personality in Christian universiti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Centered on a case study at Myongji university.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18), 35-68.]
- 김선정 · 현우식 · 손호현 (2008). 비기독교인을 위한 기독교교양교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학회**, 19(19), 95-133.
- [Kim, S. J., Hyun, W. S., & Son, H. H. (2008). A study on the need of specialized Christianity courses for the non-Christian students: A case study of Yonsei university.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19(19), 95-133.]
- 김수연 (2012). 대학 학업 중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1학년 적응 과정 분석. **진로교육연구**, 25(3), 139-160.
- [Kim, S. Y. (2012). A study on college freshmen's adaptation process influencing on the dropout: A basic research of the college dropouts' mobility path and structur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3), 139-160.]
- 김영미 (2006).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Kim, Y. M.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Learning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김영종 · 이현철 (2016). 기독교대학에서의 학교부적응 및 중도탈락에 대한 질적연구. **대학과 선교**, 30, 263-295.

- [Kim, Y. J., & Lee, H. C. (2016). Qualitative research on school maladjustment and dropout in Christian university. *Universtiy and Mission*, 30, 263-295.]
- 김은혜 (2014). 한국교회 청년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 윤리적 대안. **기독교사회윤리**, 30, 7-36.
- [Kim, U. H. (2014). A study of the crisis of Korean church based on the issue of the breakaway of young adults and a Christian ethical answer. *The Society of Korean Christian Social Ethics*, 30, 7-36.]
- 김정호 · 허지선 · 한신영 (2017).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과정 숙의를 통한 신조(Platform) 구축. **기독교교육논총**, 52, 181-220.
- [Kim, J. H., Huh, J. S., & Han, S. Y. (2017). Developing a platform for the improvement of religious education through curriculum deliberation from the Christian school perspective.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52, 181-220.]
- 민혜리 · 이희원 (2011).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강의의 특성 연구. **열린교육연구**, 19(1), 57-88.
- [Min, H. R., & Lee, H. W. (2011). The characteristics of good teaching based on the students'awarenes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actual learning experiences between a university in Korea and oversea universitie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9(1), 57-88.
- 박미정 · 함영림 · 오두남 (2012).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 정도 및 상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 327-337.
- [Park, M. J., Ham, Y. L., & Oh, D. N. (2012). Levels and their correlations of decision-making-competency, adjustment to college life,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in freshme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4), 327-337.]
- 박진경 역. (1992). **기독교대학의 이념**. Holmes, A. F. (1987). *The Idea of Christian College*. 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 [Park, J. K. (1992). *The Idea of Chrisrian College*. Daegu: CUP. Trans. Holmes, A. F. (1987). *The Idea of Christian College*. Michigan: Willig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박혜림 (2007). 대학 교양 교육과정의 평가 준거 개발 연구. **교육과정연구**, 25(3), 109-132.
- [Park, H. R. (2007).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valuation domain, elements, and criteria for general curriculum of the 4-year college. *The Korean Society for*

- Curriculum Studies*, 25(3), 109-132.]
- 박혜림 (2015). 기독교대학의 교육목표-교육과정 연계성 분석. **신학과 실천**, 44, 359-394.
- [Park, H. R. (2015). The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educational goals and curriculum in Christian colleges. *Theology and Praxis*, 44, 359-394.]
- 반상진 · 신현석 · 노명순 · 조영재 · 박민정 · 김영상 (2013).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 대책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0(4), 189-211.
- [Ban, S. J., Shin, H. S., Noh, M. S., Cho, Y. J., Park, M. J., & Kim, Y. S. (2013). University enrollment quota adjustment and restructuring according to decline in school age popul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20(4), 189-211.]
- 성미향 (2006). **초등학생의 성공지능과 학교생활적응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 [Sung, M. H. (2006). *The influence of successful intelligence and school adjustment on academic achievement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inju, Korea.]
- 소성호 (2018). **신입생설문조사결과**. 입학사정관팀, H 대학교.
- [So, S. H. (2018). *First-year Student Survey Report*. Admission Department, Handong Global University.]
- 오보라 · 김우성 (2018). **2017 SPARC 개선 연구 보고서**. 한동교육개발원.
- [Oh, B. R., & Kim, W. S. (2018). *SPARC Improvement Research Report in 2017*. Handong Institute for Scholarship and Education Development.]
- 오종현 · 오보라 · 김우성 (2017). 대학생들의 수업 적응도에 대한 잠재전이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7), 489-508.
- [Oh, J. H., Oh, B. R., & Kim, W. S. (2017). Latent Transition Analysis of the Class Adjustment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7), 489-508.]
- 원재순 · 김진숙 (2016).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3(9), 177-205.
- [Won, J. S., & Kim, J. S. (2016). A meta-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9), 177-205.]
- 유은희 (2017). 기독교교육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출구면접: 기독교교육과 학생들이 지각하고 경험한 전공교육 과정. **신학과 실천**, 53, 459-496.
- [Yoo, E. H. (2017). Graduating senior exit interview on their perceptions and experiences for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 *Theology and Praxis*, 53, 459-496.]

- 윤성민 (2016). 채플과 기독교 교양과목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31, 199-226.
- [Yoon, S. M. (2016).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Chapel and Christian Liberal Education in Kangnam University.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31, 199-226.]
- 이명호 (2003). **한국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위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Lee, M. H. (2003). *A Study on Identity Crisis of Christian University in Korea*. Master's Thesis Goshin University, Busan, Korea.]
- 이수인 (2017). 기독교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를 중심으로. *ACTS 신학저널*, 35(1), 75-107.
- [Lee, S. I. (2017). The analyses of students' perception on the satisfaction, learning experiences, and learning outcomes of general education of a Christian university: Mainly with Asian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ACTS Theological Journal*, 35(1), 75-107.]
- 이승열 (2017). **기독교대학 채플의 활성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LEE, S. Y. (2017). *A study on revitalization strategy of the student Chapel of a Christia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Cheonan, Korea.]
- 이은성 (2017). 교양과목을 통한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의 전략적 운영 방안 탐색. *기독교교육논총*, 51, 101-124.
- [Lee, E. S. (2017). Seeking an effective approach for the personality education through Christian liberal arts courses in Christian university.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52, 101-124.]
- 이하은 · 강병덕 (2017). **2016 SPARC 개선 연구 보고서**. 한동교육개발센터.
- [Lee, H. E., & Kang, B. D. (2017). *SPARC Improvement Research Report in 2016*. Handong Educational Development Center.]
- 이하은 · 오종현 · 강병덕 (2016). 대학생들의 수업 적응도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한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6(10), 795-824.
- [Lee, H. E., Oh, J. H., & Kang, B. D.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ass Adjustment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0), 795-824.]
- 임대규 · 권해숙 · 오원정 (2016).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 취업가능성, 취업전략, 전공희망취업에 미치는 영향 - 세무회계전공 대학생들

- 을 대상으로. **취업진로연구**, 6(4), 85-109.
- [Lim, D. K., Kwon, H. S., & Oh, W. J. (2016). The Influence of Major Selection Motive on Major Satisfaction, Instruction Participation, Employability, Employment Strategies, Major Hope for Employment - In case of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Tax and Accounting.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6(4), 85-109.]
- 조한익 (2012).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취목표지향, 희망 및 학습 전략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3), 465-483.
- [Cho, H. I. (2012). The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hope, and learning strategy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3), 465-483.]
- 조한익 (2014). 초등학생의 학업·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 자기결정성,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초등교육연구**, 27(4), 207-229.
- [Cho, H. I.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cademic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determination theory,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7(4), 207-229.]
- 최영근 (2014). 학원복음화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대학 선교의 신학과 효율적 방안: 한남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26, 37-71.
- [Choi, Y. K. (2014). Theology and strategy for campus ministry in the Christian university.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26, 37-71.]
- H 대학교 교육이념, <http://www.handong.edu>. (검색일 2018.9.10).
- [H- University Mission Statement & Vision. <http://www.handong.edu>. (2018.9.10)]
- H 대학교 교육제도개선위원회 (2014).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 결과 (학생 및 졸업생) 주관식**. H 대학교.
- [H- Education System Improvement Committee. (2014). *H- Education System Improvement Research Report*. H- University.]
- 한윤식 (2003). 기독교대학으로서의 한동대학교 그 가능성과 구현 방안. **통합연구**, 16(2), 225-251.
- [Han, Y. S. (2003). How can Handong university develop into a genuine Christian university. *Journal of Integrative Studies*, 16(2), 225-251.]
- 황영호·김형겸·김대옥·서병선·유기선·곽진환 (2011). **신앙교육과정 개편보고서**. 신앙교육원, H 대학교.
- [Hwang, Y. H., Kim, H. G., Kim, D. O., Seo, B. S., Yoo, K. S., & Kwak, J. H. (2011). *Christian Core Curriculum Revision Paper*. Center for Christian Foundation,

H- Universtiy.

- Ajzen, I. (2012). Martin Fishnein's Legacy: The Reseasoned Action Approach.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40(1), 11-27.
- Baker, R.,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o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
- Brady - Amoon, P., & Fuertes, J. N. (2011). Self-efficacy, Self-rated abilities,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9(4), 431-438.
- Conoley, J. C., & Conoley, C. W. (1991). Collaboration for child adjustment: Issues for school- and clinic-Based psychologis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6), 821-829.
- Conley, S., Travers, V., & Bryant, B. (2013). Promoting psychosocial adjustment and stress management in first-year college students: The benefits of engagement in a psychosocial wellness seminar.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1(2), 75-86.
- De Clercq, M., Roland, N., Brunelle, M., Galandm B., & Frenay, M. (2018). The delicate balance to adjustment: A qualitative approach of student's transition to the first-year at university. *Psychologica Belgica*, 58(1), 67-90.
- Millet, H. K. (2015). The year of change: Challenges faced by first-year students based on individual identities. Senior Honors Projects, 2010-Current, 102. Retrieved from <https://commons.lib.jmu.edu/honors201019/102>

논문초록

## 기독교대학 신입생들의 필수 신앙 교과목에 대한 수업 적응도 분석

고우련 (이스턴 핀란드 대학교)

이은실 (교신여자/한동대학교)

기독교대학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기독교인의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필수 신앙관련 교과목 이수가 종교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학습 흥미 및 동기 수준과 관련되는지에 주목하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는 1학년 교육과정 에 필수 신앙교과목이 집중된 대학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적응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생들의 필수 신앙 수업 부적응 요인은 전반적인 수업 난이도였으며, 학생들이 수업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이유로는 불충분한 배경지식과 학습량을 꼽았다. 둘째, 신앙 수업 적응 요인은 학습환경 수용, 수업의 필요와 의미 인식, 그리고 학습 능력 인식으로 드러났다. 셋째, 이러한 수업 적응 요인과 실제 학기말에 받은 학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넷째, 학생 스스로 적응 수준을 인식하여 학습에 적용 하도록 제공한 적응 수준 피드백은 기독교인 학생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수업 부적응, 적응 수준 그리고 예상학점 및 실제학점 모두는 기독교인 여부에 따라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필수 신앙 수업을 수강하는 신입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해서 기독교인 여부에 따라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수업 적응과 같은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데 필요한 물리적, 인지적 차원의 구별된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기독교대학, 신입생, 신앙 필수 교과, 수업 적응, 학업성취



**삼위일체 해석원리를 구현하는 성경의 연극적 읽기 원리 :  
밴후저의 삼위일체 소통원리와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방법론을 중심으로**

**The Dramatic Reading Principle of the Bible that  
embodies Trinitarian Principle of Interpretation :  
Based on Vanhoozer's Trinitarian Principle of  
Communication and Stanislavski's Acting Method**

서민정 (Min Jeong Seo)\*

**Abstract**

This article shows that the dramatic reading of the Bible can be an interpretative way of implementing the Trinitarian principle by approaching the biblical text holistically through the balance of reason and experience. For this specific reason, I insist on reading the Bible as the “play of Playwright”, from the author’s perspective. Unfortunately,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every dramatic interpretation approach of the Bible will convey the author’s intension. Improvised acting for instance, it is an audience driven interpretation—allowing for subjective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interests and preferences of its audience than to convey the author’s intention. Therefore, my suggestion is to avoid such audience-centered interpretation but to understand the Bible first and foremost as the revelation of the Author, God.

This paper suggests four reading principles – imagining, speaking, following, performing – based core concepts of Stanislavski, in effort to accomplish the dramatic reading of the Bible. ‘Imagining’ is a kind of thought process through which we enter into the world of the text, enabling us to transcend literalistic meaning into a more detailed understanding based on situational language. ‘Speaking’ seeks to understand a particular situation as part of the flow of the whole story by testifying to the summary. At the same time, this is the

---

\* 백석대학교(BeakSeok University) 교양대학 외래강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76,  
hi-day29@hanmail.net

2019년 05월 11일 접수, 05월 30일 최종수정, 06월 03일 게재확정

principle by which we participate in the situation as a character. “Following” seeks after “the super-objective” that penetrates the whole text, and is used for analyzing the text according to authorial intention. God the Son accomplishes this super-objective in the text, and the objectives of various characters are found within this overarching objective. “Performing” helps u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text by embodying the characters of the story. This embodiment is based on each character’s unique objective and background. In biblical interpretation, although these four principles occur together organically, it is this fourth principle that accomplishes dramatic reading. Based on the Bible, we are able to react to the text by imagining the will of God the Father, testifying to the summary of the text, following after God the Son’s objectives and activities, and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text contextually by the help of the Holy Spirit.

Such dramatic reading has a holistic element based on role experience. In this process,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knowing comes into conflict. This conflict enables the interpreter to recognize how his or her motivations are either synchronized or distinct from “the super-objective” of the text, helping to overcome the temptation of subjective reading and to proceed forward to practicing knowledge.

**Key Words :** the Bible, dramatic reading, interpretation, narrative, Stanislavski, Vanhoozer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백석대학교, 2017)를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 1. 들어가는 말

현대 텍스트 해석을 둘러싼 담론들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다원주의를 전제한다. 그리고 성경 텍스트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며 해석자의 주관적 해석을 지양하는 기독교 학문은 수용자 중심의 다원주의 해석태도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요구받는다. 이에 케빈 밴후저(Kevin J. Vanhoozer)는 다양한 해석 방법을 사용하되 여러 가능성에서 텍스트에 실재하는 “하나의 참된 해석(밴후저, 2012: 671)”을 찾는 과정으로서 성경 해석의 다원성을 언급한다. 그는 다원주의적 해석 환경이 오히려 신학적 위기를 드러내 준다고 보며 삼위일체를 토대로 한 삼중적 소통이론을 통해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석 태도에 대해 신학적으로 답한다.<sup>1)</sup>

1) 밴후저는 성경 해석에서 드러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에 대해 “저자-텍스트-독자라는 문학적 삼중성”을 적용하여 성부 하나님을 발화자로, 성자 하나님을 의미 수반 발화로 하나

본고에서는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통 행위에 대한 그의 입장에 근거하여 삼위일체 원리가 성경 해석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방법론적 시도로 연극적 읽기의 원리를 다루려 한다. 뱀후저의 언급처럼 성경의 연극적 읽기가 다양한 해석 방법들 중의 하나일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의 참된 해석”을 목표로 한다면 삼위일체의 원리는 그 신학적 방향과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성경의 연극적 읽기는 해석자에 따라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으며 연극적 시도들이 성경의 풍성한 의미를 이성 과 경험이 조화된, 구체적이고 전인격적인 방법으로 묵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시도들이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허용하는 다원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텍스트에 ‘실재하는 의미’를 찾는 과정이 되는 데에 기여하고자 본고에서는 필자가 생각하는 연극적 읽기의 몇 가지 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메타이야기인 성경은 내러티브성을 가진 다양한 문학적 글들이 저자이신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 아래 통일되게 구성되어 있다.<sup>2)</sup> 필자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담은 성경을 연극적인 도구로 해석하는 일이 성경적 원리를 갖기 위해서는 거대서사, 즉 메타이야기로서 강조되는 성경의 신적 저자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성경의 저자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의 일관된 의미를 담보하며 이는 연극적 읽기의 핵심적 해석 태도인 텍스트를 관통하는 초목표에 집중하는 원리로 반영된다.

성경의 연극적 접근은 해석자의 주관적 경험이 강조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태도와 맞닿는 부분이 있다.<sup>3)</sup> 뱀후저는 교리가 마치 스타니스랍스키가 말하는 “배우

---

님의 말씀이자 “메시지의 실체적 내용”으로, 성령 하나님을 “발신자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조건과 능력”으로서 효과수반발화자로 설명한다(뱀후저, 2012: 729).

2) 필자는 메타이야기를 거시적 관점에서 본 복음의 전체 줄거리이자 보편적 원리가 되는 이야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내러티브를 미시적 관점으로 본 복음의 실존적이며 구체적인 현장을 담은 이야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연속적이든 불연속적이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경의 내러티브들과, 이것들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의 이야기인 메타이야기의 관계는 인간들(다양성)과 하나님(통일성)이라는 성경의 이중저자가 갖는 특성을 잘 드러내 준다.

3) 지금까지 성경의 연극적 읽기를 삼위일체 신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경 해석의 실체적 원리로 적용한 국내의 선행 연구는 찾기 어렵다. 발타자르(Hans Urs von Balthasar)는 성경 해석을 미학적 차원, 하나님의 드라마(theodrama)차원, 그리고 삼위일체와 교회의 차원에서 다룬 바 있으나 연극 매체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연극적 해석의 실체에 대한 논의로 연결하지는 않았다(Bourgeois, 2002: 125-134). 다만 뱀후저가 연극 비유의 통찰로 교회론을 설명하고(Vanhoozer, 2005), 언어소통이론을 토대로 한 삼위일체론을 성경 해석의 틀로 제시한 것이 본고의 가장 대표적인 선행연구라 할 수 있다(뱀후저, 2012). 특히 뱀후저가 주요 연극 원리와 연출가들을 신학적 입장에서 조망한 점은 성경

에게 행동을 관통하는 선(the “through line of actions”)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고 언급하며 연극적 해석과 신학적 기능을 연결 짓는다(Vanhoozer, 2005: 371, 374).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은 배우가 연극의 중심 생각으로 훈련되는 역할을 구체화하고 즉흥적으로 하도록 준비하는 도구이다. 마찬가지로 교리는 드라마투르기 작업의 결과이며 제자들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중심 생각과 관통선을 기억하도록 돕는다(Vanhoozer, 2005: 372).

벤후저는 스타니슬랍스키가 정립한 “만약(if)”이라는 연극적 약속을 종말론적 관점의 가정으로 치환함으로써 메소드 연기법과 성화의 과정을 병치시키며 그의 신학적 통찰을 제공한다(Vanhoozer, 2005: 369). 콰비스(Timothy G. Gombis)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성경을 통찰한다. 그는 『이렇게 승리하라(원제: 에베소서의 드라마)』에서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드라마로 제시한다. 그는 에베소서를 명제적 지식을 담은 교리 혹은 목적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만을 담은 편지가 아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이해하도록 쓴 ‘드라마’라는 점에 초점을 둔다. 그의 견해는 성경을 담고 있는 드라마의 이야기 구조가 독자에게 인물들의 갈등과 역동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 상황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의 경륜적 모습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큰 이야기에 자리한 인간의 실존적 의미를 통찰하게 한다.

다만 연극은 인간의 몸과 음성, 생각과 마음을 도구로 삼는 매체이기에 성경을 읽는 해석자의 주관적 수용을 배제할 수 없다. 연극은 해석적 갈등의 쟁점인 이성과 경험의 측면을 동시에 반영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해석적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성과 경험의 균형적 해석이 성경적 방향을 갖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원리로 삼을 해석학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텍스트로서 성경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전제하에 상상하기(imagining), 말하기(speaking), 따라가기(following), 수행하기(performing)의 네 가지 연극적 원리를 제시하고 이 원리들이 삼위일체 원리를 구현하는 해석 태도가 될 수 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

해석과 연극적 접근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 외에 성경 읽기의 실제에 연극적 방법을 도입시킨 사례와 연구들은 국내외 비블리오드라마 관련 문헌에 다수 소개되어 있으나 성경의 연극적 접근에 대한 신학적 원리와 조망과는 관련을 찾기 어려워 실제 연극적 읽기 현장의 분석을 위한 참고 자료로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I. 성경 해석과 연극적 읽기의 원리

일반적으로 연극적 읽기는 상황적 맥락을 토대로 행간(subtext)의 의미를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냄으로써 텍스트 속 저자의 의도를 해석한다. 연극은 텍스트 해석을 토대로 연출가의 재해석을 거쳐 창의적으로 무대에서 상연된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을 연극적으로 접근하는 목적은, 공연이 아닌 성경의 인격적인 해석에 두고 있기에 연출가의 해석을 통한 무대형상화의 전단계인 텍스트 분석과 텍스트에 근거한 즉흥연기를 통한 행동화 과정에서 필요한 연극적 원리를 다루려 한다. 또한 이 접근은 텍스트의 창의적 해석을 강조하는 현대연극의 실험적 태도보다는 텍스트의 내용을 저자의 의도대로 따라가고 재현하는 해석적 태도를 갖는다.<sup>4)</sup>

본고에서 다룰 재현적 연극<sup>5)</sup>이 추구하는 ‘사실주의’는, 인간의 감각을 통해 인식되는 것뿐 아니라 지라르가 정의한 바와 같이 “있는 것을 있다고 여기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지라르, 2007: 190). 이는 성경 텍스트에 의미가 이미 있다는 뱀후저의 입장처럼 ‘실재하는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필자는 이 ‘실재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의미의 제공자이신 하나님의 신적 저자성을 그 중심에 두려 한다. 그리고 제시된 성경의 의미를 성경에 쓰여진 대로 진실하게 구현하는 과정으로 ‘재현적 연극’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성경을 토대로 재현되는 대상은 인간의 감각으로 인지되는 사실 세계뿐 아니라 감각 너머의 본질적 실존 세계도 포함한다. 배우가 단순히 텍스트의 내용을 관객에게 최대한 사실로 느껴지도록 그럴 듯하게 모방한다고 해

4) 창의적인 연극 접근은 텍스트의 내용을 좀 더 새롭게 통찰하고 생동감 있게 경험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텍스트 자체의 의미보다 수용자의 입장이나 경험이 강조되고, 수용자가 본문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이 되기도 한다. 이를 배제하고자 본고에서는 텍스트의 내용에 충실한 재현적 연극의 접근을 제안한다. 재현적 연극이 필자가 강조하는 성경을 저자중심적 해석에서 출발하는 데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5) 연극은 인간 마음의 내용을 행동이란 외적 형태로 표현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제시적(presentative)이다. 재현적(representative) 연극은 20세기 이후 사실주의에서 강조된 연극 형태이다. 재현적 연극은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이지 않는 벽’을 통해 관객이 보고 있다는 환상을 줄 만큼 텍스트의 내용을 사실대로 재현하고자 한다. 사실주의 연극을 중심으로 발달된 재현적 연극은 텍스트의 정보뿐 아니라 당시 사회적 배경의 문헌을 기초로 최대한 당시의 상황을 사실대로 고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서 성경을 통해 인식된 본질적 실존 세계가 구현되지는 않는다. 배우가 텍스트의 내용을 저자가 제공한 사건의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고 자신을 그 상황에 내맡기고 자극에 진실하게 반응함으로써 인물을 수행해야만 신적 저자가 제공한 의미, 실재하는 의미를 저자의 의도대로 해석할 수 있고 구체적 실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sup>6)</sup>

이 점에서 배우의 연기가 과장되거나 관객을 의식하는 행동이 아니라 인물로서 ‘진실된 동기’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방법론은 주목할 만하다.<sup>7)</sup> 성경은 무엇보다 ‘마음의 동기’ 즉 마음의 중심에 초점을 두고 독자의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인간 저자의 증언으로 구성된 신적 저자의 계시이다. 스타니슬랍스키는 텍스트의 주어진 상황을 “만약에라는 마법(magic if)”라는 상상의 지렛대를 사용하여 우리의 실존 앞에서 직면하게 한다. 배우이자 해석자인 우리는 각 인물의 행동을 일인칭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행동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동기를 찾아 텍스트의 사건을 역추적하며 구현할 수 있다.<sup>8)</sup> 그 속에서 인물을 맡은 해석자는 강력하게 추구하는 최종적 지향점인 목표(the objective)를 찾아 행동들을 정당화하며 구체적으로 경험한다.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방법론은 “만약에라는 마법”, 인물의 내적 동기, 목표와 초목표(the super-objective), 행동의 관통선 그리고 ‘역할로서 생활하는’ 연기 등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한다. 그의 접근법은 성경이 제공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과 인간, 피조 세계 사이의 사건들로 제시되는 상황적 지식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적 공간의 창출과 의미의 구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의미의 제공자이자 저자이신 하나님이

6) 여기서 해석의 텍스트는 신적 저자의 계시를 담는다는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해석을 위한 연극적 접근 과정에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7) 당시 배우의 과장되고 기계적인 연기에 반대하여 배우의 진실한 반응의 연기를 추구했던 스타니슬랍스키는 인물의 내적 동기에 따라 구체적 행동을 찾는 훈련을 체계화하고 발전시켰다. 현대 연극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연기법을 기초로 하여 안민수는 그의 연극연출론을 체계화하였다(안민수, 1998; 2015 참고).

8) 전국재는 성경 공부에 사용되는 다양한 연극적 방법을 “엄격한 현장재현, 촌극, 그림자극, 사회극, 역할극, 상황극” 등으로 소개한다. 그 외에도 “성경 본문의 성격에 따라 드라마(dramatic play), 이야기극화(story dramatization), 인형극, 무언극”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전국재: 1999, 28.). 이 중에서 “엄격한 현장재현의 연극”은 마치 형사가 사건 검증을 위해 현장을 재현하듯 텍스트의 내용을 역추적하여 재현하는 성경읽기로 소개된 바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텍스트의 상황을 막연히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정보와 맥락을 근거로 설득력 있게 추적하고 구현한다는 점에서 필자가 제안하는 연극적 읽기의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 사건 속에서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에서 초점을 두고 진실한 행동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점 등은 스타니슬랍스키가 강조하는 진실한 반응으로서의 행동을 구현함으로써 해석자가 성경 텍스트를 구체적이고 전인격적으로 통찰하고 접근하는 데에 유익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방법론이 성경 해석에서 독자에게 바람직한-성경의 본래 의도대로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역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성경 해석에 필요한 신학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뱀후저의 삼위일체 소통원리를 기초로 스타니슬랍스키 연기방법론에서 선택한 핵심 개념을 네 가지 연극적 읽기 원리로 제안하고자 한다.<sup>9)</sup>

## 1. 상상하기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속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확장이라고 할 때, 성경을 사건에 근거한 내러티브로 읽는 유익이 있다. 그것은 성경 내러티브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인간 삶과 동일한 요소를 지닌 내러티브 형식으로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상의 삶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성경 해석에서 작용하는 상상하기(imagining)의 원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큰 서사, 메타이야기 안에서 성경 속 각각의 사건과 진술을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상상하기는 성경의 해석에서 다양한 성격으로 기능하는데 특히, 상상을 통해 우리의 이성적 이해가 문자적 읽기를 넘어 하나님의 전체적 이야기 안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통찰의 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성경을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보고 그 안에서 각각의 다양한 문학적 장르의 텍스트들을 해석하는 일은 성경의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지라는 데에 기인한다. 다양한 인간 저자들이 쓴 문학적 형식을 가진 각 텍스트들의 구성이 비록 다양한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 텍스트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로 모아지며 전체를 포괄하는 한 가지 구성(plot)

9) 여기서 제시될 성경의 연극적 읽기 원리는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훈련법과 이를 수용한 안민수의 희곡분석과 인물분석의 방법을 토대로 삼았다. 안민수는 스타니슬랍스키가 강조한 텍스트의 초목표와 인물의 내적 동기에 근거한 즉흥 훈련에 첫인상 정리하기, 줄거리 요약하기, 내적 동기에 따른 행동선 만들기 등의 과정을 첨가하여 희곡의 실제 분석과정과 인물 형상화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본고에서 다룰 연극적 읽기 원리를 이끌어내는 데에 적합한 근거를 제공한다.

을 통해 전개되기 때문이다.

성경의 전체적 구성과 이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를 따라 각 텍스트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텍스트에 근거하여 상상하는 힘이 필요하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구속적 상상의 시각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연극적 해석에서 상상하기의 원리는 뱀후저의 언급처럼 “비록 실연은 해석에 본질적이지만, 그 악보에 종속되어” 있듯이(뱀후저, 2012: 562) 텍스트에 종속되어 있다. 피터슨에 따르면 묵상은 “일관된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이며(피터슨, 2014: 173), 우리는 “역사적 신앙을 고수하면서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침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에게 묵상은 “계시 전체의 이미지와 이야기가 우리의 이해력을 꿰뚫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피터슨, 2014: 173).

한편 연극에서 실제적 원리로 사용되는 상상의 개념은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한다. 역할 연기에서 상상은 성경의 사건을 ‘근거 있는 이유’를 토대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시공간 안에서 인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 작용한다. 텍스트의 한 장면을 연극으로 만들 때, 연기는 텍스트의 내용을 ‘근거 있는’ 상상으로 해석하고 구현하는 일이다. 연극에서 상상과 믿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배우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철저히 믿을 때라야 진실한 반응의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편적 원리를 명제로 기억하도록 쓰여진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사건’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이사야 6: 10)”게 하고자 기록된 글이라고 한다면 연극적 상상과 믿음의 원리는 성경 해석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공연을 전제로 한 텍스트 읽기에서 상상하기는 해석자의 창조적 해석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성경의 바람직한 이해와 적용을 위한 연극적 읽기에서 상상하기는, 해석자가 최대한 전방위적으로 텍스트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안민수는 상상에 대해 “사물의 참뜻을 꿰뚫어볼 수 있는 힘”이라고 설명한다(안민수, 2015: 240). 성경이 전하는 많은 사건과 증인들의 고백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속 사건의 시점으로 이동하여 텍스트가 자세히 전하지 않은 숨은 의미를 찾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인물이 하는 말을 읽을 때에도 그 사람이 어떤 이유와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앞뒤 문맥에 비추어 인물의 내적 상태와 감정을 상상하며 읽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는 많



이 왜곡되어 있고 진리를 분별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도, 축적된 이미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되어야 하며<sup>10)</sup> 이를 위해 성경 저자가 의도하는 텍스트의 문맥 안에서, 제공되는 언어들을 토대로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줄곧 ‘마음’에 집중한다. 성경은 구체적 시간과 공간에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성경 기자들의 초점은 모두 사건과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다. 또 성경은 각 인물들이 구체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한다. 마음은 명제적 지식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얻는 명제적 지식도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로 기억된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단순한 사실만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감정과 가치가 부여된 채로 마음에 기억된다. 이미지가 모여 사고를 형성하고 그 사고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세계관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세계관은 삶의 상황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구체적인 동인(動因)의 토대가 된다.

연극적 해석은 내가 아닌 ‘그 인물’의 입장으로, 여기가 아닌 ‘그곳’으로, 지금이 아닌 ‘그때’로 이동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내 입장이 아닌 철저하게 ‘타자’의 입장에 서는 일이다. 그렇다고 자신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일은 아니며 거부할 수도 없다. 연극적 해석에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극중 역할인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과, 역할을 경험하기 위해 전인격적으로 집중하는 ‘헌신’의 과정이 요구된다. 상상하기는 이러한 연극적 해석에 있어 필수적인 원리이다. 배우는 텍스트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많은 이미지가 담겨진 텍스트를 토대로 자신의 상상을 구체화시킨다.

성경 해석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한 뱌후저는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에서 텍스트에 본래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논의를 진전시킨다(뱌후저, 2012). 뱌후저는 그동안 해석자를 강조해온 시도들이 저자성을 소멸시켰다고 지적하며

10) 피터슨에 따르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예레미야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고 ‘심미적’인 진리의 현상 앞에서 여전히 세속적인 헌신을 다짐을 보이는 반응을 보인다(피터슨, 2006: 350-351).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의 왜곡된 해석을 구축해가신다. 고티스는 『이렇게 승리하라』에서 이미지가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면서, 죄로 물든 욕망과 소비의 이미지를 거부하고 구축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행동하는 ‘구속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Gombis, 2013).

저자를 부활시켜야 온전한 해석, 진정한 소통의 행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성경 해석에서 상상의 역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해석자가 경험하는 이해와 반응의 풍성함에 있지 않다. 진정한 소통은 뱀후저의 언급처럼 텍스트에서 “아무것이나(anything)” 발견해서 그것에 대한 해석자의 생각이나 느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소통은 텍스트가 이미 말하고 있는 “무엇(something)”을 해석자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실히 찾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뱀후저, 2012: 350).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이 저자이신 성경을 해석할 때 더욱 강조된다. 상상은 때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려서 독자로 하여금 이미지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통해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깊고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이것이 성경의 문자 중심적 해석을 넘어서 성경의 숨겨진 의미를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성경의 언어는 명시적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다. 성경에는 독자가 상상을 해야만 하는 시적 언어와 은유적 장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사건에는 그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그러므로 상상하기를 단순히 독자의 자유로운 해석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성경적 해석 원리로서 상상하기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 성경의 표면적 내용 너머에 있는 저자이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의미를 찾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세상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탐욕과 욕망이라는 왜곡된 이미지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속된 언어, 순결한 언어의 상정을 통해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거짓이 아닌 참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진리가 담겨있는 은유, 생명의 이미지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유와 이미지로 성경을 접근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당시나 현재의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초월적 진리의 세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선입견을 깨고 그것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게 하셨다. 상상은 우리가 경험과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세계를 넘어 초월적 진리의 세계를 깨닫도록 사고의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인식의 도구가 된다. 성경을 사실적 언어로만 접근하여 문자주의적 해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사용하는 은유와 시적 언어들을 의미의 제공자인 하나님 안에서 동시에 한 분 저자이신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 안에서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말하기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읽음보다 들음으로써 전달되었으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진 글이란 점에서 내러티브적 성격을 지닌다. 문학적 장치로서 내러티브는 일종의 ‘구성’을 갖는다. 이야기 자체가 상황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의 관점에 따라 첨삭되는 구성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은 성경에서도 적용된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인간 저자들이 선택한 다양한 문학적 양식을 통해 구성된 내러티브적 증언의 형식을 지닌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를 담은 메타이야기로서 일관된 방향을 가지며 그 큰 이야기의 속에서 다양한 내러티브들이 중심 메시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문학적 통일성을 지닌다. 따라서 각 내러티브의 줄거리를 정리하는 일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은 메타이야기 안에서 해당 내러티브의 의미와 위치를 파악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연극적 읽기에서 성경의 각 내러티브를 구체적 장면으로 구현할 때 성경 전체의 핵심 줄거리는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메시지이자 각 장면의 정확한 이해와 위치 파악에 중요한 거점이자 기준이 된다. 한편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말하는 과정은 교리를 내러티브화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전체 줄거리는 결국 정경으로서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리적 이해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줄거리는 성경의 내용이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리의 역할을 담당한다.

성경 해석에서 ‘말하기(speaking)’ 원리는 이와 같은 줄거리를 ‘말하는’ 행위로도 나타난다. 줄거리를 단지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리 내어 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뱀후저의 언급처럼 행위를 수반한 소통행위일 뿐만 아니라 증언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신앙을 기초로 전체 줄거리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메시지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현재를 사는 ‘나’로서 증언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각 내러티브에서 역할을 맡은 인물로서 ‘말한다’면 재현적 연극으로 구현되는 성경 속 과거 사건에 참여하여 목격하고 증언하는 체험을 통해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거나 전해들은 바를 증언하는 성격이 강하다. 바네트는 증언이 갖는 법적적 차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증언’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은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만큼이나 정확하게 자신이 실제로 보고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언급들에서는 ‘증언’이란 용어가 기본적으로 내면의 종교적 체험과 관련되지 않았다. ‘증거’는 확고한 사실들, 즉 실제로 체험하고 목격한 사건들의 세부적인 날짜, 시간, 장소, 정황 등에 관한 것이다(바네트, 1994: 63).

연극 작업에서 텍스트의 줄거리를 말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나 압축된 내용을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복음서의 줄거리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사도들이 목격한 구체적 시간과 장소의 정황을 가진 내용으로 압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해석의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사실을 통해 독자의 각성을 촉구한다. 성경의 인간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증언의 형태로 알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명을 담당한다.<sup>11)</sup>

이와 같은 증언과 선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하고 알림으로써 말과 행위의 소통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sup>12)</sup> 이미 연극적 읽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배 중에 성도가 다함께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초청해 함께 이루어 가셨던 구속 역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실존적 의미를 확인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 점에서 이미 성도들은 복음의 증언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스미스의 언급처럼 “매주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의 뼈대가 되는 구조를 리허설(Smith, 2009: 192)” 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극적 해석에서 ‘말하기’의 원리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전제하는 역사적 해석을 반영함과 동시에 증언의 행위에 적용된다. 증언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11) 뱌후저는 플랜팅가의 언급을 인용하며 성경을 이루는 증언의 언어행위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원천이 됨을 주목한다. 플랜팅가에 따르면 “우리가 그 신념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증언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만약 신념의 원천으로서 증언과 같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매우 초보적인 종류의 언어밖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Plantinga, 1993: 78/ 뱌후저, 2012: 469에서 재인용).”

12) 뱌후저는 행동이 말(words)보다 크게 소리내어 말한다면(speak), 이해를 말하는 신앙은 말과 행위라는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방식 모두를 포함한다고 언급한다(Vanhoozer, 2014: 1).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예배 때의 사도신경과 전도할 때의 복음으로 ‘말함’으로써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증언의 역할을 한다. 다른 하나는 인물로서 과거 성경 속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진리가 드러나는 현장의 목격자로서 증언하거나 사건의 단순 참여자로서 성경의 메시지가 증언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성경의 줄거리를 말하는 행위는 단순히 이야기의 요약을 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 삶의 뼈대를 이루는 메타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이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였다. 그들의 증언을 듣는 오늘의 독자도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는 삶으로 부름 받았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믿음의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을 증거할 뿐 아니라, 순종하여 따라가며 읽게 되고 동시에 삶에서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순교의 삶을 살게 된다. 성경 해석에서 쓰이는 연극의 개념과 실체는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성경을 전인격적 수용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통찰과 경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 3. 따라가기

연극적 읽기에서 ‘따라가기(following)’ 원리는 모든 극적 행동의 동기와 역동적 방향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핵심적 원리라 할 수 있다. 따라가기는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초목표(the super-objective)를 향해 인물의 내적, 외적 행동의 방향이 맞추어진다는 의미이다. 초목표와 목표는 사실주의 연기체계를 구축한 연출가 스타니슬랍스키가 창안한 개념으로, 즉흥연기 훈련에서 배우가 상황의 자극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행동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앞서 성경은 다양한 인간 저자들이 선택한 문학적 형식을 지닌 글들이 신적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의 목적을 향해 통일성 있게 구성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연극적 해석의 따라가기 원리는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역동적으로 정리한 초목표 아래 각 내러티브와 장면들이 의미하는 바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성경의 통일성 있는 해석에 기여한다. 동시에 각 상황에서 벌어지는 인물의 행동의 구체적 동기를 발견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연극적 행동을 구현하는 핵심적 원리로 기능한다.

연극적 읽기에서 따라가기의 원리는 초목표와 목표라는 두 측면에서 기능한다. 하나는 전체 텍스트를 관통하는 중심메시지인 초목표를 따라 각 장면과 사건의 의미를 발견해내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각 상황에서 인물이 텍스트 속 진술처럼 움직이도록 하는 마음의 움직임, 즉 동기와 욕구를 발견하는 일이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창조와 구현의 메시지를 담으며 그 회복이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그 방향이 집중되어 있다. 그 점에서 따라가기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드러나는 성경 전체의 초목표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성경 해석을 기독교론적으로 이끈다. 한편 성경의 초목표에 집중하는 기독교적 해석은 성경 속 인물을 맡아 장면을 구현하는 해석자가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은 행간의 의미를 찾아 다양한 개인적 해석을 시도할 때 그 해석의 타당성과 근거를 찾도록 요구한다.

초목표를 찾는 실제적인 작업에 대해 안민수는 텍스트를 “관통하는 주된 동기”로서 초목표를 이해하며 그것은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 갈등의 과정, 결말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안민수, 1998: 123). 그에 따르면 초목표는 “첫인상과 이야기 줄거리를 좀 더 밀도있게 조금씩 압축”시켜나가거나 “작가가 제시한 것으로부터 목표를 유추”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안민수, 1998: 122). 초목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행동을 추동하는 동기로서 기능하기에 일반적으로 동사로 표현된다. 따라서 초목표는 텍스트 전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나, 행동을 이끄는 핵심 동기이기에 역동적이며 구체적이다. 초목표의 이러한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성경의 핵심적 주제를 포괄적이되 역동적으로 접근하고 실천적으로 해석하는 데 기여한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큰 이야기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질서를 구현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가 전체 이야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라이트(N. T. Wright)는 기존의 복음서 해석에 대해 “나라”와 “십자가”의 개념을 서로 대치시키거나 혹은 둘 중 하나만을 강조함으로써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통일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라이트, 2003: 244)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전통적인 나라(kingdom) 신학들은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사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조치’를 강조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다. 아마도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바울서신을 주요한 원 자료로서 들여다보지 않은 이유일 것이며, 그러한 경향은 그들에게 크나큰 손실이었다(라이트, 2003, 245).

성경의 로마서를 비롯한 많은 서신서들은 복음의 의미와 그것이 창조와 구약 시대에서부터 어떻게 실현되어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혹은 나라를 강조하는 태도는 일부 문제에 해석을 치중하면서 성경 속 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통일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 데에서 기인한다. 라이트에 따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 예수의 공생애와 죽음 둘 다를 통해서, 그리고 그 두 사건 안에서 - 왕이 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Wright, 2003, 243)”이다. 라이트의 언급처럼 전체 이야기를 이끄는 핵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신 사건에 주목하여 복음서를 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목표는 ‘이 땅의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로 정리할 수 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의 왕권을 위임하심으로써 그의 통치를 시작하셨으며,<sup>13)</sup> 아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시키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의 왕권을 이 땅에 확실히 수립하시며 ‘참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하시는 역사를 지금까지 펼치고 계신다. 앞서 언급했듯이 복음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시적이고 명백하게 이 땅에 성취시킨 사건을 전한다는 점에서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거점이자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절정 단계는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초목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다. 그러므로 사복음서가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전체 이야기의 초목표를 성취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초목표는 저자의 중심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주인공의 극적 행동을 이끄는 중심 동기가 된다.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의 초목표는 성부 하나님께서

13) 빌에 따르면 창세기에서 아담은 에덴의 동물들과 온 땅을 다스리도록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아담의 목표가 된다. 아담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후에도 “자신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칠 때까지 다스림을 계속함으로써 목표를 성취해야 했다(빌, 2013: 52).”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된 동기로 드러난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메타이야기로서 바라보고 그 중심 메시지를 연극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각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구체적 행동을 근거로 마음의 움직임과 행동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성경의 사건을 추상적 개념의 지식이 아닌 삶의 정황을 전제한 상황적 지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내러티브 속 사건의 인물들이 서로 충돌하는 마음의 동기를 분석함으로써 각 장면이 향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초목표와 메타이야기의 의미, 즉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의 초목표에 초점을 두는 연극적 읽기 원리인 ‘따라가기’는 성자 하나님의 초목표를 좇는 해석 태도로 나타난다. 해석자는 성자 하나님의 초목표를 따라가며 성경의 각 상황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재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구현된 내용(진리)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속 예수님의 초목표를 분석하고 따라가면서 삶의 실제 현장에서 자신이 어떤 목적을 향해 살고 있는지,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초목표와 어떻게 부합하거나 충돌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다.

#### 4. 수행하기

연극적 읽기의 원리로서 ‘수행하기(following)’<sup>14)</sup>는 배우가 텍스트의 사건과 인물 분석을 토대로 얻은 목표에 맞게 인물을 내적, 외적 행동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통칭한다. 본고에서 ‘수행하기’란 단어는 ‘perform’이란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는 목격자, 즉 관객을 전제로 한 ‘공연’의 성격을 가짐을 내포한다. 여기서 ‘공연’은 배우와 관객이란 연극의 최소 단위로 성립된다.<sup>15)</sup> 성경을 이처럼 목격자를 염두한 공연을 전제한 텍스트로

14) 여기서 ‘행동하다’의 act가 아닌 perform(수행하다, 공연하다)의 단어로 명명한 것은, 성경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한 대로, 세상이란 관객을 염두하여 표현한 것이다. 뱀후저는 저서 *Faith Speaking Understanding*의 부제로 “교리의 드라마 수행하기(performing the drama of doctrine)”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서문에서 그는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행하심을 이해한 것을 구하고 보여줌으로써 교회에 잘 공헌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세상이란 극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통찰했다(Vanhoozer, 2014).



읽을 때 연극적 읽기의 ‘수행하기’ 원리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배우가 ‘따라가기’의 원리대로 인물의 목적에 집중하여 상황을 ‘상상하며’ 텍스트를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무대라는 극적 공간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나와 있지 않은 행간의 행동을 찾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배우는 무대에서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면과 인물의 목적에 맞는 행동을 찾아 움직인다.

우리는 일상 행동에서 연극의 행동 분석처럼 면밀히 관찰해서 그 내적 동기를 찾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극의 공간은 일상이 아닌 연극적 약속에 의해 텍스트의 의미가 구현되는 극적 공간이므로 배우가 행동하는 목적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 만일 배우가 역할로서 분명한 목적과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극적 공간에서 어떤 의미 있는 행동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우의 구체적인 행동은 인물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텍스트의 주어진 상황에 맞는 일을 직접 ‘수행하면서(performing)’ 찾아야만 한다.

연극을 마음의 움직임이 행동으로 표현된 예술이라고 할 때, 인물의 행동은 텍스트의 정보대로 움직여보는 소위 ‘흉내 내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스타니슬랍스키와 공동 작업을 했던 크리스티(G. Christie)는 역할로서 행동의 논리를 세우는 일을 강조한다.

역할 속에서 배우의 행동 논리를 구축하는 것은 단지 직감 한 가지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것은 무대적 투쟁의 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 표현 수단에 대한 정확한 계산, 행동과 감정 자체에 대한 꼼꼼한 채택을 요구한다 ... 그리하여 배우는 역할의 행동 논리를 자신의 것으로 슬쩍 바꿔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해야만 하는 것이다(크리스티, 2015: 90-91).

역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배우는 인물의 행동 논리를 분석하고 이를 무대에서 인물의 목적과 내적 상태에 가장 적합하고 납득할 만한 행동으로 체화하여 표현한다. 그러므로 배우는 단지 ‘만약 내가 그 사람이라면’이라는 가정으로 막연히 움직이거나 직관적 판단으로 행동을 찾을 수 없다. 텍스트의 저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토대로 배우가 마음의 움직임에 맞는 행동을 찾는다는 점에서 연극적 읽기의

- 
- 15) 매튜스(Jeanette Mathews)는 그동안 성경의 드라마적 접근이 대부분 공연을 염두하지 않은 텍스트로 성경을 다루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성경 텍스트를 공연적 요소를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텍스트의 드라마적 해석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하박국을 공연하는 텍스트로서 분석한다. 여기서 ‘드라마적’이란 의미는 성경 텍스트의 내러티브성, 플롯, 내레이션, 대화 등에 집중하여 드라마(drama)라는 장르로 성경을 읽는 문학적 접근을 의미한다(Mathews, 2012: 64-66, 172.).

행동화는 ‘텍스트에 근거한 살아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sup>16)</sup>

연극적 읽기에서 행동은 외적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텍스트에 대사나 구체적 행동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내적 행동, 즉 마음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을 떠난 뒤에도 그 곳을 떠나지 않았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하지는 않는다.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잇는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인정하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경 저자는 여호수아의 행동을 간결한 문장으로 언급하지만 특별하게 주목한다. 해석자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지 상상해볼 수 있다. 장면을 수행할 때 여호수아의 역할을 맡은 해석자는 텍스트 속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다양한 마음의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앞서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했으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 기둥이 회막 문에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을 토대로 해석자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게 구축되어갔는지 상상해볼 수 있다. 해석자가 사건의 앞뒤 문맥과 더불어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이성적인 이해를 기초로 인물의 목표를 찾고 이를 위해 직접 몸과 마음으로 자극에 반응하고 움직이며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수행할 때,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했을 마음의 역동을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일반 연극의 원리를 성경 읽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해석학적 긴장이 뒤따른다. 성경은 신적 저자이신 하나님이 의도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 해석은 그 의도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극적 읽기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다. 이러한 연극적 해석

16) 안민수는 <리어왕>을 예로 들어 무대에서의 행동선이 사전에 인물의 분석을 토대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한다. 그는 <리어왕>에서 켄트가 추방되는 장면을 마음의 상태에 기초한 인물 이동의 힘과 속도를 분석하여 구현한다. 안민수에 따르면 “켄트는 다시 충직한 신하로 등장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추방될 때의 그의 이동의 힘은 약한 데서 출발하여 강해져야” 하며, 움직임의 속도는 “느리게 움직이다가 빠르게 퇴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한다(안민수, 1998: 225). 배우의 이러한 움직임은 인물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얻어지며, 희곡에 나와 있지 않은 움직임을 찾아냄으로써 사건을 대하는 인물의 내적 심리와 태도를 현실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인물의 구체적 이동과 양태는 배우의 즉흥 연기를 통해 찾아지겠으나, 연출가는 사전에 텍스트 전체에서 나타나는 행동에 근거한 인물의 목표를 분석하여 그것에 맞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배우와 협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의 긴장은 성경 저자가 갖는 이중성, 즉 성경 저자가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 저자인 성격과도 관련된다. 성경을 해석하고 장면을 수행하는 해석자가 성경이 본래 제공하는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적 저자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올바른 인식을 도우셔야 하기 때문이다. 연극적 해석이 텍스트와의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소통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실천적 삶의 원리로 삼는 데에는 유익이 있으나 연극 매체가 지닌 체험적 특성은 해석자의 주관성을 많이 개입하게 할 수도 있다. 연극적 해석의 이러한 양면적인 성격은 성경 해석의 전통적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우려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전통적 해석에 사용되는 이성적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되어 사용되듯이, 연극적 읽기의 체험적 요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 있게 사용된다면 훌륭한 해석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경직은 기독교 복음과 이를 구체화하는 문화적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기독교의 복음을 구체화해야 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 개입되는 죄의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창조의 아름다움과 죄의 추함 사이의 긴장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곳에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그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사이의 긴장이기도 하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개혁주의 문화철학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장동민 외, 2008: 31).

이경직이 언급한 복음의 종말론적 긴장은 성경의 연극적 읽기에도 나타난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 연극 매체가 성경 속 인간의 죄악과 배반,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위엄 등을 풍부하고 역동적으로 경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 긴장에 대해 우리는 연극적 읽기가 “종말론적 관점에서” 성경적인 방법이 되도록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은 연극적 언어와 원리가 가진 이성적, 경험적 특성에 대한 신학적인 조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신학적 접근을 포함한 텍스트의 이성적 분석과 더불어 경험을 통해 그 분석의 의미가 현실적으로 구현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역할로서의 체험을 다시 신학적 조명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경을 토대로 한 우리의 역할 체험을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결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므로 텍스트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성경적 원리에 기초하여 우리는 ‘수행하기’의 적용이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지,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밴후저는 “다른 배우들이 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다르게 수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같은 역할, 즉 제자의 역할을 준비한다”고 언급한다(Vanhoozer, 2005: 374).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이며, 제자로서의 삶은 성경 속 요한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의 “역할에 자신을 헌신하되 그 역할을 다르게 수행”하는 것이다(Vanhoozer, 2005: 374). 밴후저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각자의 역할로 헌신하고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극의 풍부함에 공헌하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강조한다(Vanhoozer, 2005: 374).

밴후저는 배우의 인물과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병치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종말론적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원리를 설명한다. 필자는 밴후저의 이러한 연극적 통찰에 동의하며, 성경 읽기에서 ‘삶의 문법’을 담은 연극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며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삶의 행동으로 말씀을 ‘증언’함으로써 그들이 이해한 성경의 해석을 드러낸다고 할 때, ‘수행하기’는 연극적 읽기 원리를 통합적으로 구현한다. 해석자가 텍스트에서 인물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지향점인 목표를 ‘따라가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을 구체적인 현실로 ‘상상하는’ 힘이 필요하며 목적에 맞는 몸과 마음의 행동을 찾음으로써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연극적 해석을 통해 성경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역할을 맡은 해석자는 사건의 의미를 파악해서 주어진 장면이 먼저 자신에게 ‘믿어지게끔’ 스스로 설득하여 거짓 없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타니슬랍스키가 말하는 ‘연기를 생활하는’ 연극적 태도는 일상 삶의 정황에서 성경 텍스트가 지향하는 초목표,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으로서의 인식을 계속적으로 의식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대본으로서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제시한다. 배우가 역할로서 연극의 마지막을 알고 자신에게 부여된 목표를 따라 임무를 수행하듯,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연극적 상상과 통찰, 실천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드라마의 종말론적 완성을 기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며 살아갈 때 자신의 삶에 부여된 소명, 구체적 목표를 찾아 끝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Ⅲ. 나가는 말: 삼위일체적 해석의 구현

성경의 진리 규명은 오랫동안 이성과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서는 성경을 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했고, 최근에는 내러티브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함께 인간의 수용과 실천의 측면을 강조하여 성경의 진리가 경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필자는 연극적 읽기의 원리를 통해 성경을 이성과 경험의 측면에서 균형 있게 접근하고자 했다. 연극적 읽기는 뱀후저가 언급했던 “오순절적 다원성(뱀후저, 2012: 674)”을 잘 담아낼 수 있다. 즉 신학적 조명이 전제된 연극적 읽기는 성경에서 가능한 의미들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하되, 의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참된 해석”이 되도록 기여할 수 있다(뱀후저, 2012: 675).

그러나 성경의 계시는 인간의 언어로 된 문학 형식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해석적 긴장을 갖는다. 성경의 신적 저자가 갖는 객관성을 전제하지만 인간 저자가 갖는 저작과 해석의 특성상 인간의 주관성과 자율성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이자 인간의 전적인 저작이라는 점에서 신적 측면과 인간적 측면을 갖는데(Wright and Lamb, 2011: 55) 이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고 계신다는 고백과도 상응한다.

뱀후저는 성경의 이 두 가지 측면이 하나님을 강조하는 정경주의적 해석이나 인간을 강조하는 다원주의적 해석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삼위일체의 소통적 해석을 제안한다.<sup>17)</sup> 그에 따르면 성경이 인간의 저작이라는 점에서 문학적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문자적 읽기가 필요하다. 동시에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점에서는 모든 해석적 시도와 방법이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를 발견하는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성경 자체에서 해석의 규범과 기준을 찾는다고 볼 수 있다.<sup>18)</sup>

필자는 연극적 읽기의 원리를 상상하기, 말하기, 따라가기, 수행하기로 제시함으로써

17) 뱀후저는 정경주의적 해석태도나 다원주의 해석태도 모두 성경의 메시지가 아닌, 메시지를 읽고 있는 해석자 자신에게 초점을 둔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해석 태도들은 성경의 생명력 있는 말씀의 의미를 화석화시키거나 부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뱀후저는 소통적 관점에서 성경 해석 원리의 대안으로 삼위일체를 제안한다.

18) 뱀후저는 “만약 저자의 의도가 텍스트 가운데 구현된다면, 해석의 옳고 그름에 대한 궁극적인 기준은 문학적 행위로 간주되는 텍스트 자체”라고 언급한다(뱀후저, 2012: 488).

성경의 신적 특성과 인간적 특성에 접근하고자 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메타이야기이자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간의 내러티브들을 담고 있다. 성경 해석에서 연극적 읽기는 메타이야기로서 성경이 텍스트를 관통하는 초월적 원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텍스트가 제공하는 성경적 원리를 삶의 문법인 연극적 언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삶의 상황에 적용하고 연습하는 데 의미가 있다.

상상하기의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야기를 우리 사고의 기본 틀로 받아들이는 ‘구속적 상상’과 구체적으로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 각 사건을 “만약~라면의 마법(magic if)”을 통해 이해하는 ‘상황적 상상’으로 나타난다. 말하기의 원리는 성경 전체의 즐거리를 말하는 행위를 통해 복음을 증언함과 동시에 텍스트의 각 사건과 주어진 상황의 구성(plot)적 위치와 신학적 경계(boundary)를 제공한다. 또 텍스트의 각 사건의 인물로서 말함으로써 참여자와 목격자로서 사건을 증언하도록 한다. 따라가기의 원리는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저자 하나님의 초목표를 따라감과 동시에 각 장면에서 인물로서 자신의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장면과 전체 이야기의 의미를 깨닫는 데 기여한다. 수행하기의 원리는 메타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따라 행동함과 동시에 텍스트 속 인물로서 각자의 목표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 해석에서 이 네 가지 연극적 읽기 원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시적 측면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미시적 측면을 담고 있다. 이 원리들은 분리되어 순차적으로 성경 해석 과정에 적용되기보다는 대부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동시에 적용된다. 성경의 첫인상을 정리하기 위해 우리는 상상하지만 저자의 중심 메시지를 따라가기도 한다. 그리고 전체 즐거리를 말하는 과정에서 첫인상으로 상상했던 부분들이 결합되기도 한다. 또 텍스트의 사건에서 인물로서 말하기 위해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자극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역할의 목표에 집중하여 행동한다. 수행하기는 이 모든 연극적 읽기의 원리가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구현되는 원리로서 텍스트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연극적 읽기 원리가 적용되는 양상은 삼위일체의 원리가 성경 해석에서 작용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위격으로 하나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보여지는 경륜적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로서 유기적으로 일하신다. 성경 해석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인간의 수용 과정이라고 할 때, 성부와 성자의 영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밝히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도록 조명하시는 것처럼, ‘수행하기’로 완성되는 연극적 읽기는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텍스트를 상상하고 말하고 성자 하나님이 구현하시는 성경의 초목표를 따라가는 원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 역할이 갖는 의미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내적 동기와 사건의 의미를 조명해주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이처럼 연극적 읽기의 각 원리는 동시에 일어나면서도 상호 연결되고 보완된다는 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시는 역동과 의미를 반영한다.

가다머에 따르면 체험은 삶에 대한 자기 확증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부터 자신에게서 분리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존재론적 성격을 갖는다. 연극을 통한 체험적 해석은 전인격적 요소를 담으며 그 과정에는 삶의 대상과 삶의 주체가 충돌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이 충돌에서 해석자는 성경의 주된 동기와 자신의 동기가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지 혹은 함께 하고 있는지 통찰함으로써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읽고자 하는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 성경은 문학처럼 읽기 위한 텍스트가 아니라 행동하기 위한 텍스트이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원리를 따라 성경 텍스트의 권위를 기억하고 연극적 접근을 통해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경험한다면, 성경의 연극적 읽기는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 삶의 통치 원리로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Barnett, Paul. *Is the New Testament Reliable?: in Search of its Historical Credibility*.  
김일우 역 (1994). **신약성경은 믿을 만한가?: 그 역사적 신빙성을 찾아서**. 서울: IVP.
- [Kim, I. W. (1994). *Is the New Testament Reliable?: in Search of its Historical Credibility*. Seoul: IVP. Trans. Barnett, Paul.]
- Bartholomew, Craig G. and Goheen, Michael W. (2004). *The Drama of Scripture*.  
Baker Publishing Group. 김명희 역 (2011). **성경은 드라마다**. 서울: IVP.
- [Kim, M. H. (2011). *The Bible is Drama*. Seoul: IVP. Trans. Bartholomew, Craig G. and Goheen, Michael W. (2004). *The Drama of Scripture*. Baker Publishing Group.]
- Beale, G. K. (2011).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Baker Publishing Group.  
김귀탁 역 (2013). **신약성경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 [Kim, G. T. (2013).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Seoul: The Revival & Reformation Press. Trans. Beale, G. K. (2011).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Baker Publishing Group.]
- Bourgeois, Jason Paul. (2002). Balthasar's Theodramtic Hermeneutics: Trinitarian and Ecclesial Dimensions of Scriptural Interpretation. *Theology and Sacred Scripture*. IMRI Faculty Publications.
- Christie, G. *Stanislavski's Education of an Actor II*. 박상하 · 윤현숙 역 (2015). **스타니슬랍스키의 배우교육II**. 서울: 동인.
- [Park, S. H. & Yoon, H. S. (2015). *Stanislavski's Education of an Actor II*. Seoul: Dong-in. Trans. Christie, G.]
- Fee, Gordon D. *How to Read the Bible*. 길성남 역 (2017).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서울: 성서유니온.
- [Gil, S. M. (2017). *How to Read the Bible*. Seoul: Scripture Union Korea. Trans. Fee, Gordon D.]
- Gadamer, Hans-Georg. (1960/1990) *Truth and Method 1*. 이길우 외 역. (2000). **진리와 방법1**. Gadamer, Hans-Georg. 서울: 문학동네.
- [Lee, K. W. et al. (2001). *Truth and Method 1*. Seoul: Munhak. trans. Gadamer, Hans-Georg.]
- Girard, Rene. *The Scandal Came through him*. 김진식 역 (2007). **그를 통해 스캔들이 왔다**. 서울: 문학과지성사.
- [Kim, J. S. (2007). *The Scandal Came through him*. Seoul: Moonji. Trans. Girard, Rene.]



- Gombis, Timothy G. (2010). *The Drama of Ephesians*. IVP. 최현만 역. (2013). **이렇게 승리하라**. 평택: 에클레시아북스.
- [Choi, H. M. (2013). *Win like this*, Pyeongtaek: Ecclesia Books. trans. Gombis, Timothy G. (2010). *The Drama of Ephesians*. IVP.]
- Horton, Michael. *Reformational Organizational Theology*. 이용중 역. (2012) **개혁주의 조직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 [Lee, Y. J. (2012). *Reformational Organizational Theology*. Seoul: The Revival & Reformation Press. trans. Horton, Michael.]
- Mathews, Jeantte (2012). *Performing Habakkuk*. Eugene: Pickwick.
- Nash, Ronald H. (1982). *The Word of God and the Mind of Man*. the Zondervan Co. 이경직 역. (2001).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마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Lee, K. J. (2001). *The Word of God and the Mind of Man*. Seoul: CLC. trans. Nash, Ronald H. (1982). the Zondervan Co.]
- Pennington, Jonathan T.(2012) *Reading the Gospels Wisely*. Baker Publishing Group. 류호영 역 (2015). **복음서 읽기**. 서울: CLC.
- [Ryu, H. Y. (2015). *Reading the Gospels* Seoul: CLC. Trans. Pennington, Jonathan T. (2012) *Reading the Gospels Wisely*. Baker Publishing Group.]
- Peterson, Eugene H. (2005). *Christ Plays in Ten Thousnd Places*. Eerdmans Publishing Co. 양혜원 · 이종태 역 (2006). **현실, 하나님의 세계**. 서울: IVP.
- [Yang, H. W. & Lee, J. T. (2015). *Reality, the World of God*. Seoul: IVP. trans. Peterson, Eugene H. (2005). *Christ Plays in Ten Thousnd Places*. Eerdmans Publishing Co.]
- Peterson, Eugene H. (2006). *Eat this Book*. Eerdmans Publishing Co. 양혜원 역 (2014). **이 책을 먹으라**. 서울: IVP.
- [Yang, H. W. (2014). *Eat this Book*. Seoul: IVP. trans. Peterson, Eugene H. (2006). Eerdmans Publishing Co.]
- Plantinga, Alvin (1993). *Warrant and Proper Fuction*.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 Press.
- Smith, James J. A. (2009) *Desiring the Kingdom*. Baker Publishing Group. 박세혁 역 (2016).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Smith, James J. A. 서울: IVF.
- [Park, S. H. (2016). *Desire the Kingdom of God*. Seoul: IVF. Trans. Smith, James J. A. (2009) *Desiring the Kingdom*. Baker Publishing Group.]
- Smith, James J. A. (2009).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Michigan: Baker Academic.

- Stanislavski, Konstantin. *An Actor prepares*. 신겸수 역 (2001a). 배우수업. 서울: 예니.  
 [Shin, G. S. (2001a). *An Actor prepares*. Seoul: Yeni. trans. Stanislavski, Konstantin.]
- Stanislavski, Konstantin. *Building a Character*. 이대영 역. (2001b). 성격구축. 서울: 예니.  
 [Lee, D. Y. (2001b). *Building a Character*. Seoul: Yeni. trans. Stanislavski, Konstantin.]
- Stanislavski, Konstantin. 이진아 역. (2010). **체험의 창조적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배우의 작업**. 서울: 지만지.
- [Lee, J. A. (2010). *The actor's work on himself in the creative process of the experience*. Seoul: Gimangi. trans. Stanislavski, Konstantin.]
- Vanhoozer, Kevin J.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Zondervan Publishing House. 김재영 역 (2012).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서울: IVP.
- [Kim, J. Y. (2012).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Seoul: IVP. Trans. Vanhoozer, Kevin J. (1998). Zondervan Publishing House.]
- Vanhoozer, Kevin J. (2005).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 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Vanhoozer, Kevin J. (2014). *Faith Speaking Understanding: Performing the Drama of Doctrin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Wiersbe, Warren W. (1994). *Preaching and Teaching with imagination*. SP Publications. 이장우 역. (2012). **상상이 담긴 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 [Lee, J. W. (2012). *Preaching with imagination*. Seoul: Jordan Press. trans. Wiersbe, Warren W. (1994). *Preaching and Teaching with imagination*. SP Publications.]
- Wright, Christopher J. H. and Lamb, Jonathan. (2009). *Understanding and Using the Bible*. SPCK. 최성근 역. (201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서울: 그루터기하우스.
- [Choi, S. G. (2011). *Stroll through the Bible*. Seoul: Gruturgi House. trans. Wright, Christopher J. H. and Lamb, Jonathan. (2009). *Understanding and Using the Bible*. SPCK.]
- Wright, N. T. *How God became King* 최현만 역. (2003). **하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나**. Wright, N. T. 평택: 에클레시아북스.
- [Choi, H. M. (2003). *How God became King*. Pyeongtaek: Ecclesia Books. trans. Wright, N. T.]
- 김병훈 (2011). 내러티브 신학과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 **헤르메니아 투데이**, 51, 73-99.
- [Kim, B. H. (2011). Narrative Theology and the Historical Reality of the Bible. *Hermenia Today*, 51, 73-99.]
- 김준삼 (2012). 이미지, 상상 그리고 반응: 배우의 상상력과 연기. **한국연극학**, 46,

233-282.

[Kim, J. S. (2012). Image, Imagination and Response: The Imagination and Performance of an Actor. *The Journal of Korean Theatre*, 46, 233-282.]

안민수 (1998). **연극연출**. 서울: 집문당.

[Ahn, M. S. (1998). *Theatre Direction*. Seoul: Jipmoon.]

안민수 (2015). **배우수련**. 파주: 김영사.

[Ahn, M. S. (2015). *An Actor Training*. Seoul: Gimmyoung.]

윤성우 (2004). 미메시스, 재현 그리고 해석. **해석학연구**, 14, 207-234.

[Yoon, S. W. (2004). Mimesis, reproduction and interpretation. *The Study of Analytical theory*, 14, 207-234.]

이경직 (2016).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에 나타난 삼위일체론. **성경과 신학**, 78, 153-183.

[Lee, K. J. (2016). Trinitarianism in Reformed Dogmatics of Herman Bavinck. *The Bible and Theology*, 78, 153-183.]

전국재 (1999). **연극따라 성경 속으로**.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Jeon, G. J. (1999). *Into the Bible through Play*. Seoul: Yeyoung Communication.]

장동민 외 (2008). **개혁주의 문화철학과 문화콘텐츠**. 서울: 북코리아.

[Jang, D. M. et al. (2008). *Reformational Cultural Philosophy and Cultural Content*. Seoul: Book Korea.]

## 논문초록

# 삼위일체 해석원리를 구현하는 성경의 연극적 읽기 원리 : 밴후저의 삼위일체 소통원리와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방법론을 중심으로

서민정 (백석대학교)

이 논문은 성경의 연극적 읽기가 이성과 경험의 균형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성경 텍스트에 접근함으로써 삼위일체 원리를 구현하는 해석적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저자 중심으로 읽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연극적 읽기가 성경의 저자가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수 없다. 즉흥연기의 방법은 성경을 저자의 의도보다는 독자의 관심과 성향에 따라 해석하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독자주도의 해석을 피하고 저자이신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필자는 성경을 연극적으로 읽기 위해 스타니슬랍스키 연기방법론의 핵심 개념들을 토대로 네 가지 읽기 원리- 상상하기, 말하기, 따라가기, 수행하기-를 제시한다. ‘상상하기’는 텍스트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고 과정으로, 성경의 사건을 문자적 이해를 넘어 상황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말하기’는 줄거리를 증언하는 언어 행위를 통해 전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사건을 파악함과 동시에 인물로서 사건에 참여하는 데 적용되는 원리이다. ‘따라가기’는 텍스트를 관통하는 초목표를 따라가며 저자의 의도에 따라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에 적용된다. 성자 하나님은 성경의 전체 초목표를 텍스트에서 실현하시며 인물들의 목적은 전체 초목표 안에서 찾아진다. ‘수행하기’는 인물의 체현 과정에서 우리가 텍스트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원리이다. 인물의 체현은 각 장면과 인물의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성경 해석에서 이 네 가지 원리는 분리되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기보다는 대부분 유기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만 결과적으로 수행하기의 원리를 통해 연극적 읽기는 완성된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성부 하나님의 뜻을 상상하고 전체 줄거리를 말하고 성자 하나님의 목적과

행함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맥적 의미를 깨달으며 텍스트에 반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를 기초로 한 연극적 읽기는 역할 체험을 통한 전인격적 요소를 지니며 그 과정에는 얹의 대상과 얹의 주체가 충돌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이 충돌에서 해석자는 성경의 주된 동기와 자신의 동기가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지 혹은 함께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통찰함으로써 자기중심적 읽기의 유혹을 극복하고 얹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주제어 : 성경, 연극적 읽기, 해석, 내러티브, 스타니슬랍스키, 뱀후저**



## 기독교 청년의 직업소명에 관한 고찰: 교회의 역할과 과제

### A study on Vocational Calling of Christian Young Adult: Roles and Tasks on Churches

이은미 (Eun Mi Lee)\*

#### Abstract

We make daily living and get opportunity to reveal our identity, and serve our neighbors and society through work. Work (vocation) has an important and lasting impact on our lives as a whole. In modern society, however, work has been unable to find meaning as a calling while emphasizing the means of livelihood and social status. Especially Christian young adult who have yet to make significant efforts and attempts to explore their career paths and career choices, they have not been taught about vocational calling from the Church, even though it is very important. In this study, it examined how the Bible speaks about vocational calling, why it is important and necessary for Christian young adult, and how to find a vocation(calling). It also explored the role of the Church in helping Christian young adult to choose a career according to their vocational calling and to live a life responsive to God's calling by recognizing and practicing the work as God's calling.

Even Christians have a view that work is a cursing or punishment that is given to human beings as a result of sin, but in the Bible, man is prospering and enjoying through work, and eventually describes work as a gift to man. The concept of vocation rooted in Martin Luther's theology, has a religious meaning that applies not only to some clergy but also to the life of a secular society. Through Luther's universal priesthood, all professions are precious, spiritual, and equally honorable to God. Breaking the ancient tradition of the Middle Ages, Luther said that unless he was guilty of sin by himself, all work would follow God's calling.

In early adulthood, there is much anxiety and confusion in searching for career and profession. but as a Christian young adult, they have to explore what kind of meaning and plan do God have in the process of leading them into the world and how they can glorify God and practice love to neighbors. For Christian young adult, the vocation has a special

---

\* 서울신학대학교(Seoul Theological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경기도 부천시 호현로 489번길 52, emlee5@stu.ac.kr

2019년 05월 30일 접수, 06월 09일 최종수정, 06월 10일 게재확정

meaning. First, the values and perspectives of the professional world are changed from the material age to the relationship age. Second, work based on vocation help to make meaningful and sustainable work. Third, the vocation of the Christian young people should be matured by spirituality.

In this way, the vocational calling not only enables Christian young adult to live a life of obedience to God's call, but also has a very important Christian value that enables the meaning and purpose of work and the command of love of neighbor. Therefore, the Church should give Bible-based teachings about the importance and value of vocation to Christian youth, provide specialized career and vocational exploration training in the church, and develop career-based mentoring or role modeling programs based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from inside and outside churches.

**Key Words : Christian Young Adult, Career Development, Vocational Calling, Roles and Tasks of Contemporary Churches**

이 논문은 2019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1. 서론

종교개혁자 쾰빙글리(Ulrich Zwingli)는 “이 우주 가운데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만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이복수, 2004: 12).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주셨고, 하나님 스스로도 일하셨으며, 현재도 일하고 계시다. 직업을 통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얻으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일을 통해 사회와 이웃에 봉사할 기회를 얻는다. 이와 같이 일(직업)은 인간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또한 우리의 삶 전반에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 생애에 걸쳐 인간의 삶의 중요한 영역인 직업생활이 현대 직장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대 직장인들은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대해 70%이상이 불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직하고 싶은 이유 1위가 연봉이나 처우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CBS노컷뉴스, 2017. 06. 05; 투데이코리아, 2017. 07. 04).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이직경험이 있다는 결과도 있다(메인뉴스, 2017. 03. 06). 또한 직업을 선택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30%), 그 다음으로는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응답이 23.1%로 나타났다(신지민 · 이



은경·양난미, 2015: 174). 이러한 경향은 여타의 이유보다 직업선택에 있어 소득이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10명 중 3명 미만이 만족하고, 직업선택의 기준도 소득이나 안정성에 간혀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직장에 대한 불만족 등의 사유로 이직이 흔하게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직업(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을 찾는 것은 직업선택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가?’, ‘아직 직업세계에 진출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특히 기독교청년들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이 던져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물음이 바로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직업소명’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아직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선택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고민, 시도를 해야 하는 초기 성인기 진입자인 청년들이 직업소명을 어떻게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관심대상인 기독교청년들은 과연 직업소명의 개념을 잘 알고, 이를 기반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지, 교회는 그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독교청년들이 소명에 기반한 직업을 찾고, 연마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문헌을 중심으로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직업소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일(직업)에 대한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루터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직업소명이 현대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직업소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직업소명이 그동안 기독교인들과 교회에서 얼마나 추상적이고 잊혀진 개념이었는지에 대해 환기시키고자 한다.

이어서 기독교청년에게 있어 직업탐색이나 선택이 소명에 기반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영성에 기반한 직업선택과 직업생활이 삶의 만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탐색하고자 한다. 기독교청년에게 직업소명이 특히 왜 더 중요한지에 대해 성경과 진로전문 기독교학자들의 문헌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교회가 기독교청년들의 직업소명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지만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청년들 중에는 30%에 이른다는 통계를 볼 때(학원복음화협의회, 2017), 교회가 청년들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안내와 지도를 해 주지 못하는 이유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직업소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가르침을 주지 못한 이유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교회의 역할과 과제가 드러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직업소명

### 1. 직업소명이란 무엇인가?

직업(職業)의 사전적 의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다.<sup>1)</sup> 직분, 직위의 직(職)과 생계, 생업을 표현하는 업(業)의 합성어이다. 서양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직업을 정의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뜻의 job, 생업의 의미와 함께 사회적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로서의 occupation, 전 생애에 걸친 job 또는 여러 job의 묶음의 의미로 진로의 의미를 가진 career 등이 있다. 직업을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가 더 있는데 그것이 vocation이고, 이 단어는 ‘자기에게 잘 맞는다고 느낄 뿐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게 되는 일’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직업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들과 차별성을 가진다.<sup>2)</sup>

소명은 영어 표현으로 ‘calling’, ‘vocation’으로 표현되는데 본래 라틴어 ‘보카레(vocare)’어원을 두고 있다(이복수, 2004: 16). 그 의미는 ‘부르다’인데,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부르심은 단순히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과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9년 4월 15일 검색. <http://stdict.korean.go.kr/main/main.do>

2) 캠브리지 딕셔너리, 2019년 4월 15일 검색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

정과 결과로 하나님의 선교를 확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소명 연구자인 딕과 더피(Dik & Duffy, 2009: 427)는 소명을 조금 일반적 언어로 “일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가치이자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충만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헌신을 하도록 하는 목적의식”이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소명은 자기의 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기시킴으로써, 자발적으로 자기의 일을 하게 하도록 동기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직업소명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직업 소명을 구성하는 요인을 개발하여 이를 척도화시켜 직업소명을 측정하기도 한다. 특히 딕과 더피(Dik & Duffy, 2009: 433) 등은 직업소명에 대해 종교적, 비종교적 관점을 모두 포괄하여 소명을 정의한 후 이 개념은 경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상담에 적용도 가능한 정의라고 하였다. 도브로우(Dobrow, 2006)는 직업소명을 열정, 정체성, 의식의 몰두, 의미부여, 특정영역의 자존감으로 구성하였으며, 딕(Dik et al., 2012: 242-263)들은 소명을 존재와 추구 영역으로 구분한 뒤 각 영역에서의 초월적 부름, 목적이 있는 일, 친 사회성으로 소명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국내의 경우 권선명과 김명소(2014)는 직업소명을 직업소명 의식과 직업소명 실천으로 구분한 후, 직업소명 의식에는 기여와 헌신동기, 천직의식, 일 가치감, 일을 통한 목적 지향을 구성요소로 정하였고, 직업소명 실천은 책임감, 이타행동, 열정과 몰입, 충성심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정리하면 직업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일(직업)에서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추구하며, 타인의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가치를 지향하고, 일에 대한 열정을 보이며, 일에 몰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성경에서 말하는 일(직업)에 대한 가르침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일(직업)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일에 관한 성경구절은 창세기3장17절을 떠올리게 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구절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노동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나 형벌이라는 관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이벨스(Hybel, B, 민문영 역, 1996)는 노동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 사역을 하셨으며,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매우 만족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일의 근원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부터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을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과 같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귀찮은 것이나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복수, 2004: 11)

일에 대한 성경의 다른 가르침들도 인간이 창조된 본래 소명이자 존재로서의 역할이 일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고,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닌 근본적으로 일하는 속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고, 전도서 2장 24절에서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전도서 3장 13절에서도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5장 18절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고 하셨다(임현만, 2009: 42). 생육, 번성, 정복, 수고 등의 단어는 모두 노동(일)을 의미하고, 이 구절들은 일의 수고로움을 통해 번성하고, 낙을 누리며, 결국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묘사한다.

신약성서에서의 바울도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며 방대한 선교사역을 감당했다. 선교사역 만큼 자기의 생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골 3:23)’고 가르쳤다. 이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주어진 일(직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이복수, 2004: 13). 안봉호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노동이야말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서의 영적예배’라고 하였다(이복수, 2004: 13). 예배를 통해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노동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섬기며 예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일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계획 속에 포함된 선물이자 복된 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이자 부르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구원에 관련된 일차적 부르심에 응답하고, 소명과 직업(일)에 관련한 이차적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이 이차적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소명으로 인식하고, 이 소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루어 질 것이다.

### 3. 루터의 직업소명과 현대적 적용

직업소명은 루터(Martin Luther)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세 카톨릭 시대에는 수도원에서 세속과 분리된 생활을 하는 일에 대해서만 부르심, 소명의 관점으로 보았다. 따라서 부르심은 오로지 선택받은 일부 성직자들에게 해당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이 종교개혁과 함께 깨지기 시작했다. 이제 세속사회에서의 직업생활에도 신앙적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한 것이다. 루터는 “당신이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당신이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일치하는 이곳 땅 위에서의 소명(calling)이라 여기며 행하는 것들을 마치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간주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문시영, 1999: 78-79). 소명의 개념을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직업 세계로 연결시켰다는 점은 직업윤리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문시영, 1999: 79).

루터는 만인 제사장론을 통해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영적인 것이며 동등하게 존귀하다고 하였다.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지기에 ‘상인이나 실업가의 이윤 추구 행위를 포함한 모든 직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이복수, 2004: 22). 루터 뿐 아니라 칼빈(Jean Calvin)도 사람이 하는 일(직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규정하면서, 달란트를 매일의 노동과 소명(직업)에 연결시켰다. 이와 같이 루터는 직업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계승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으며, 칼빈도 노동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고대와 중세,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육체적 노동을 경시하고, 정신적 노동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분법적 사고는 인간의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다. 성직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일은 소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이며, 성직이 아닌 일은 세속적인 일에 불과하다는 이분화 된 사고가 지배적이었던 시기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임현만, 2009: 23).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의 일과 직업은 평가절하하고 성직이 아닌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낮은 등급으로 서열화 했던 중세의 오랜 전통을 깨고, 루터는 그 자체로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문시영, 1999; 우병훈, 2018).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쓸데없이 지나친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일에 몰두 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병훈, 2018).

따라서 루터는 모든 사람은 소명을 받은 것이고, 모든 종류의 일이 소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문시영, 1999; 우병훈, 2018).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적 소명(vocatio spiritualis)이 있고, 일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외적 소명(vocatio extrema)이 있기 때문이다(우병훈, 2018: 79). 루터는 특정 직업만 소명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일상적인 일, 그리스도인이 직업으로 종사하는 일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기초할 때 그것 자체가 소명이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우병훈, 2018: 79).

이와 같이 소명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출발했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중세시대의 개념을 탈피하여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소명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 소명은 일부 특별한 종교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일만 부러워하는 행동은 각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 각각에게 맞는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루터의 가르침을 깊게 새겨야 한다.

루터나 칼빈의 직업소명론이나 직업윤리는 오늘날의 현대사회에 더 의미 있는 가르침과 적용점을 던져주고 있다. 직업의 가치나 윤리, 소명의 본질에 대한 자각과 인식 없이 물질만능주의와 경쟁주의, 성과주의와, 사회적 권력과 지위에 집중할 때, 일의 본

질적이고 중요한 가치는 훼손될 뿐이다. 직업이 돈벌이 수단이나 자기성취나 자량의 도구가 되어가는 한국사회의 풍조 속에서 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루터의 가르침을 되새긴다면, 소명에 기반 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직업인들은 루터가 강조한 소명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지 주목하지 말고 다만 자신의 소명에 열렬하게 헌신할 때, 그것은 정말 위대한 지혜이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드물다. 자신의 분복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 단순한 믿음으로 행하고, 자신의 소명에 부지런히 충실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란 없는데도,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부르심에 진저리를 낸다.”(우병훈, 2018: 107)

### III. 기독교청년과 직업소명

#### 1. 직업탐색과 선택, 그리고 기독교청년

아넷(Arnett)은 청년기를 ‘Emerging Adulthood’<sup>3)</sup>라고 명명하면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시간으로 구분한다(Arnett, 2004: 8). 이 시기는 ‘정체성 탐색의 시기’라고 할 만큼 자기 자신과 외부세계, 타인과 사회에 대한 탐색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하는 발달과업이 있다. 대학에 진학하던, 직업 세계에 진입하던, 진로를 위한 탐색의 시간을 갖던 이 시기의 청년들은 대부분 직업에 대한 탐색을 시작한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발달과업 중 하나가 자기정체성에 기반 한 진로선택과 이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이다.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성장과정에서의 개인적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 주변인에 대한 관찰결과나 자기의 꿈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어서 많은 청년들이 진로 목표나 방향을 잡기 어려워하고, 혼란과 방황, 갈등과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다.

직업탐색의 과업은 매우 광범위하고도 쉽지 않은 과업이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나

3) Emerging Adulthood를 우리말로는 ‘신생성인기’, ‘성인발현기’, ‘성인모색기’로 쓰고 있다

진로를 탐색하는 청년기 성인들은 어떤 직업(진로)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이 나중에 선택하게 될 직업(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고민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고민하기 보다는 자기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특히 기독교대학생이나 청년이라면 자기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자기의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막연하지만 영적인 차원의 소망을 품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을 통해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Dik, 2015).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청년들과 다르게 접근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직업을 소명(vocation), 부르심(calling)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이 나를 직업세계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과연 그분의 뜻은 무엇이며, 나는 그 일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소명,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명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게 되거나, 소명을 명확하게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평생직장의 개념보다는 환경변화와 개인의 욕구에 따라 이직이 자유롭고 혼란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친 물질주의와 세속적인 성공 기준에 의해 소명에 따른 직업생활과는 거리가 먼 환경에 자의적, 타의적으로 놓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직업소명을 우선시 하여 직업을 찾고, 이를 직업세계에 적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직업소명을 어떻게 찾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려주고 안내해주는 사람이나 기관을 찾기 어렵다. 기독교대학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업을 찾는 청년들에게 소명의 중요성이나, 소명을 찾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지 못한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조차, 교회의 지도자나 사역자들조차 직업(일)은 세속이고, 신앙생활은 비세속(영적세계)의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직업선택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과 함께 소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 과연 직업에 대한 어떠한 신앙적 지도가 가능하겠는가? 지금까지의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구분은 오히려 신앙을 잃지 않으며 직업생활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더욱 혼란스럽고 어렵게 만들 뿐이다.



주일날 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표기도는 주중에 직장이나 사회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내용의 기도이다. 직장생활은 죄 짓는 곳이고, 신앙적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 곳이며, 단순히 세속의 삶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그것은 직업을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이복수, 2004: 8). 이복수는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구분은 직장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기쁨과 감사를 찾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고,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 짓는 경계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이복수, 2004: 22).

루터가 직업이 단순히 세속의 일이 아니고, 직업 세계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을 대할 때 영성에 기반 한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직업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매우 큰 변화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에 기반 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어떤 일(직업)을 하던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라는 믿음에 거하며, 일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야 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기독교청년의 직업소명이 영성과 삶의 만족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기독교청년과 직업소명, 영성과 삶의 만족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가? 성직으로 부르신 특별한 사역에 대한 부르심만이 아닌, 자신의 생계의 터전이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으며 살아가게 되는 그 일터, 직장(직업)에 대한 부르심과 확신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7장 17절, 20절의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자기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자 기쁨이다. 직업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이고도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20여 년 간

자신의 일에 대해 의미를 느끼고, 목적의식을 갖도록 동기화하는 요인으로 직업소명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관심을 받아오고 있는 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이미 경력개발 분야 연구나 직업 관련 연구에서 이전에는 많은 수를 차지하지 않았던 ‘소명’이라는 단어가 많은 관심을 받으며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제 직업은 소명을 포함하는 영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많은 종교적, 비종교적 분야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Conger, 1994; Orsborn, 2000; Palmer, 2000, Fox 2003: 167에서 재인용). 본래 직업이 ‘부르심’이라는 종교적 기원을 두고 나타난 것이므로 영성과 직업은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련성에 따라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경력개발 및 진로지도에 관한 문헌에서 영성의 영향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다(Fox, 2003).

먼저 직업소명과 삶의 만족과의 관련성 연구에서는 직업소명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다(양난미 · 이은경, 2012; 김지선, 2015; 신지민 · 이은경 · 양난미, 2015). 또한 인생의 의미, 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붙들고 사는 태도가 삶의 만족을 높인다고도 나타난 바 있다(Duffy & Dik, 2013: 434). 더불어 직업소명이 직업헌신이나 직업정체성과 같은 매개변인을 통해 직업 스트레스를 낮추기도 하고(Hirschi, 2011), 직업수행능력을 높이며, 직무 스트레스도 적게 보이고, 근무기간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Claes & Quintanilla, 1994, 신지민 외, 2015: 173에서 재인용). 트레드골드(Treadgold, 1999)는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스트레스와 우울을 적게 지각하고 적응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고, 더피와 세들라켓(Duffy & Sedlacek, 2007) 역시 대학생의 진로소명이 종교성이나 삶의 만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고 밝혀 대학생집단에서도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핀스트라와 브라우어(Feenstra & Brouwer, 2008)도 소명이 높은 대학생들이 자기정체성 확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소명을 인식한 대학 신입생은 결정력이나 안정성, 자기명료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신입생들은 우유부단하고 교육 정보가 부족하다는 연구도 드러난 바 있다(Duffy & Sedlacek, 2007). 쉐러(Siler, 2010)도 신앙에 기반 한 소명을 가진 젊은 청년들은 건강한 자아의 발달과 인격적 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일과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이 높고, 일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는다. 또한 열정적인 태도로 일에 임하며 일을 통해 자신들이 세상과 이웃들에게 기여하고 있다고 믿는다(Wrzesniewski,

Dekas, & Rosso, 2009: 324).

소명을 품은 사람들은 자기 직업(경력)에 있어 더 성숙한 태도로 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에 대한 몰입과 헌신이 높다. 직업소명이 높은 사람은 친사회적, 타인 지향적 가치가 높은 사람이다. 이로 인해 승진이나 금전, 사회적 지위 등의 외적 보상보다는 성취나 충만감, 열의나 기여, 헌신 등 내적 만족에 더 큰 의미와 만족을 둔다. 물론 직업생활에 있어 외적 보상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요인들은 직업에서의 의미와 만족을 지속시키기 어렵다. 자기 일에 대한 목적의식과 동기, 의미를 부여하는 내재적 가치가 직업생활을 의미 있고, 지속가능하게 만든다.

직업생활에서의 영성은 다차원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데, 개인적 차원의 영성이 높은 사람은 일을 즐기고, 일에서 에너지와 삶의 의미와 목적, 동기화가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람들은 직무만족도와 직무몰입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Milliman, Czaplewski & Ferguson, 2003: 436-440).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직업인들이 직업소명에 기반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세계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내적소명에 대한 확신에 거할 때 의미 있는 직업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직업소명은 이제 직업생활이나 경력관리 등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소명에 대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교회안의 기독교청년들이 직업소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키워나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제 왜 직업소명이 기독교청년들에게 특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3. 기독교청년에게 직업소명은 왜 중요한가?

#### (1) 직업세계의 가치관과 관점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직업세계는 매우 경쟁적이고 냉혹하며, 철저히 성과와 생산성, 이익과 개인 이기주의 중심의 메카니즘에 의해 작동되어 왔다. 그래서 혹자들은 말한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직업세계에서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이다. 이런 세계에서 믿음과 영성으로, 소명에 따른 직업관을 가지고 살아나 가면 성공하지 못하고 뒤쳐질 것이며,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한다.

이복수(2004: 8)는 크리스천의 직장생활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신앙생활과 직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함으로 인한 어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사회에서 신자로서 느끼는 직장생활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이분법적 구분에 초점이 있어왔고, 세속세계에서도 신앙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기준을 논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은 아니다. 다만 기독교청년에게 왜 직업소명이 중요한지를 말하고자 함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직업세계 가치관에 큰 흐름적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기독교청년의 영성에 기반한 직업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결코 틀리지도, 불리하지도 않음을 설명해준다. 하먼(Harman, 1992: 11-24)은 21세기 비즈니스 세계는 이제 ‘물질시대(a material age)’에서 ‘관계시대(a relationship age)’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제까지의 물질시대가 분리, 경쟁, 자기이익을 강조하던 시대라면 관계시대는 연결과 협력을 강조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즉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성과 관계, 협력, 유대, 지속성, 다양성, 창의력, 헌신 등의 가치가 각광을 받고 유효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Harman, 1992; Ashmos & Duchon, 2002: 134-145).

이러한 주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대두되었다. 직장에서의 영성이 직무몰입이나 헌신, 직장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에서는 영성의 하위 구성개념으로 개인적, 대인적, 조직적 차원의 영성을 분류한다(Milliman et al., 2003: 428). 이러한 세 차원의 영성 구성개념들은 모두 의미, 목적, 유대, 지지, 연결, 소속, 존중 등 하먼(Harman)이 말한 ‘관계시대’와 관련된 개념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청년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 유대, 의미, 존중, 믿음 등의 성경적 가르침에 기반한 태도로 직업활동에 임한다면 개인과 조직,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자들은 일(직업)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경쟁에서 이기고, 많은 물질적 보상을 받으며,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이전에 말하던 성공의 개념이라면, 이제는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에서의 성취와, 일과 가정의 균형, 사회와 동료, 이웃

에게 기여한다는 것을 성공의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내리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한다(Harman, 1992: 11-24).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일으키지만, 크리스천에게 있어 이러한 태도가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 즉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소명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Veith, 2018: 25-35). 비스(Veith)는 빙그렌(Wingren)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소명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높임을 받으려는 태도, 동료를 섬기기보다 자기의 권력을 더 갖고자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직업을 도구화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는 소명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여정에 방해꾼이자 적이 되는 것이다.”(Veith, 2018: 33).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자 축복으로 주신 일(직업)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제 기독교청년은 기존의 직업세계의 가치관이 영성에 기반 한 소명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있음을 인지할 때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 대한 축복된 변화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소명에 대한 정립과 삶에서의 실천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2) 소명에 기반 한 직업활동이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복수(2004: 26)는 첫째, 본인이나 타인,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면 피해야 한다고 하였고, 둘째, 자신, 이웃, 사회 전체의 선과 유익을 위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직업의 동기 자체가 해악의 원인을 가진 것은 거부해야 하지만,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양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하기보다는 바른 모습을 되찾도록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니엘, 에스더, 요셉 등의 사례를 통해 그들도 자기의 일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기 자리와 일에 대한 소명과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과 민족에게 큰 역할을 해냈음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 시간, 능력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요청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소홀하거나,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위하여 일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가치롭지 못한 일이 된다(안경승, 2009: 23).

직업에서 소명을 운운하고, 영성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젊은 청년들에게 어쩌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당장 취업할 곳이 없고, 취업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영성이나 소명 같은 추상적이고도 이상적인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겠냐며 반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영성이나 소명은 결코 추상적이지만도 이상적이기만 한 개념도 아니다. 직업소명은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직업, 일의 첫 출발점에 서있는 청년들이 돈이나 외적 보상을 쫓아 이리저리 직장을 옮기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실패하면 다시 또 도전하지만 다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직업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에서 소명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충만감을 느끼고, 직업이나 일 그 자체로서 의미를 느낀다. 따라서 직업생활에서 경력이나 경제적 보상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일한다. 따라서 소명은 직업의 종류나 내용이 중요하다기 보다, 개인이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개인의 관점이 중요하다.

기독교인들마저도 직업에 등급과 가치를 매겨 타인과 자신을 판단하는 풍조는 직업을 소명의 차원으로 보지 않고, 생계수단이나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만 보는 인식과 태도에서 기인한다(임현만, 2009: 40). 일이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이자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일로 인해 받는 지나친 고통이나 스트레스, 욕심보다는 기쁨이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영광된 사역에의 ‘참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을 대하는 자세이자 태도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청년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나 인정욕구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소명과 상관없는 일자리 옮기기를 반복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일에 몸 담기가 어려워질 뿐이다.

### (3) 기독교청년의 소명은 영성과 함께 성숙되어야 한다

최근 직장 내 근로자들의 영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근로자들의 영성이 직장에서의 성과나 직무결과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영성이라는 단어가 매우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미 많은 관심 있는 학자들에 의해 영성의 개념과 구성요소들이 구체화되고, 측량될 수 있는 형태로 연구되었다(Ashmos & Duchon, 2000; Gibbons, 2000; Milliman et al, 2003). 그 중 밀리만 등(Milliman et al, 2003: 436-440)은 영성의 구성요소를 개인적, 대인적, 조직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일을 통해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이 동기화’되는 개인적 차원의 영성이 높을수록, 조직이나 직무몰입도가 높고, 일에 대한 만족이 커진다고 하였다. 직무나 조직 만족은 결국 직장이나 자기 일에 대한 만족도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자기 일에 대한 만족은 결국 개인의 직업소명을 이루는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일을 통해 삶의 전 영역에서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공공 및 사적 영역 CEO에 대한 연구에서 일에서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영성이었다. 영성은 종교적, 비종교적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적어도 기독교청년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자신의 영적세계를 가다듬고 강건하게 지켜나가면서 직업생활에 임해야 한다(Ashar & Lane-Maher, 2004).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은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유대나 협력을 중시하고, 조직의 미션과 가치에 동의할 때 헌신적으로 일하는 특성을 보인다(Milliman et al, 2003: 436-440). 직업소명이 영성을 깊게 하고, 깊은 영성이 직업소명을 더욱 확실하게 만든다.

부르심, 소명을 따른다고 모두가 목회자,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다. 특정한 직업에만 소명이나 영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소명은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염두에 두고, 그분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소명에 따른 삶이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영적인 태도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삶,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유익을 구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이지 못하며 소명을 거역하는 삶이다(Veith, 2018: 33).

기독교청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나 직분이 하나님에 의해 자신에게 맡겨졌다

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자기 자신의 가치 있음이나 가치 없음에 주목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우병훈, 2018). 직업의 세상적 가치나 기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 소명을 기쁨으로 받고 그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임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러한 확신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된다.

우리는 루터의 아래와 같은 소명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역할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청년들이 인생의 첫 직업을 향해 나아갈 때 루터의 이 가르침은 큰 울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떤 행동에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유념할 것을 요구한다. ... 하나님은 우리들 각 개인의 변덕스러움과 야심찬 욕망을 예지하고 각자의 삶이 경솔함과 어리석음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자에게 삶의 특정한 방식을 지정했다. ... 그러한 각자의 삶의 방식을 **召命(calling)**이라고 칭하였다. 즉 각 개인에게는 일종의 초소와도 같은 의미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문시영, 1999: 98).

이러한 루터의 가르침이 깊은 울림으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에 체화되기 위해서는 영성으로의 훈련이 필요하고, 직업소명에 대한 가르침과 적용이 필요하다. 이 일에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 IV. 기독교청년의 직업소명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과제

지금까지 기독교청년들에게 있어 직업소명이 무엇이고, 성경에서는 소명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종교개혁가 특히 루터가 정립한 직업소명론의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왜 직업소명이 특히 기독교청년들에게 있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성을 전제로 교회는 기독교청년들의 직업소명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역할을 위한 실제적인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1. 직업소명의 중요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우리는 자기 진로에 대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과의 만남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이어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하신 일들을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능력을 주시며, 가진 재능을 발견하고 연마하게 하신다. 교회는 이러한 점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한다. 세상의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라는 교육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성경적 가르침과 세상은 다르니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막연하면서도 이중적인 가르침만 주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엔 어렵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직업소명을 찾고 이를 직업을 통해 이뤄나갈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직업소명을 찾아나가는 첫 단계이고, 이는 바로 교회가 제공해야 할 가르침이다.

루터나 칼빈 모두 성직자나 일반직업 노동자나 모두 하나님 보시기엔 같다고 강조하였다. 부르심, 소명의 본질은 같고, 그 하는 일이나 영역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명을 가지고 잘 해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기본적인 믿음의 토대는 같다. 그러므로 교회는 청년들을 위한 진로 상담이나 지도에 있어, 그 사람의 종교적/영적 믿음(신념)을 점검하고, 이것과 연결시켜 통합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직업소명은 결국 영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일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다(Fox, 2003: 168).

교회는 청년들에게 직업소명을 발견하기 위해 자기의 재능을 잘 돌아보고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이은미, 2018: 206-209).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자의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으로 서로 다르게 역할을 하며 교회와 이웃과 사회를 섬기게 하셨다. 따라서 각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잘 발견하고, 이를 통해 소명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소명을 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Dik, 2015). 각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잘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을 적용한 직업을 찾게 도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청년들에게 매우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교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분야에 달란트가 뛰어난 청년이 있고, 교육이나 프로그램 진행 등의 분야

에서 재능이 있는 청년도 있으며, 공학이나 이학에의 재능이 있는 청년도 있다. 이러한 재능이 발견되는 것을 그냥 소홀하게 두지 말고, 그러한 재능이 소명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이고도 현실적인 차원에서 격려하고 기회를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명에 대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중간 통로인 미디에이터(mediator)를 통해 알려주신다(Siler, 2010; Dik, 2015). 사람이나 환경, 기도를 통한 깨달음이 이러한 중간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소명은 단순한 감정이나 마음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야 한다. 소명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임을 지도하고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소명은 ‘어떤 완성된 신앙행위가 아니라,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는 과정’임을 기독교청년들이 잘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이효재, 2018: 179-180).

교회에서 청년들이 소명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당신의 큰 즐거움과 세상의 깊은 필요가 만나는 자리다’라는 브렌플렉의 말처럼, 자신의 필요와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일이 곧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는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Brennfleck & Brennfleck, 강성규 역, 2006). 위트록(Whitlock, 1961: 14, Fox, 2003: 170에서 재인용)은 ‘교회의 사명은 복음(gospel)을 사람의 필요나 욕구(need)와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직업)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의 하나이기에 이 영역에서 영성이 발휘되지 못하면 의미와 동기를 잃기 쉽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에 기반한 사람의 필요나 욕구를 연결하는데 있어 성경적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직업소명과 관련된 전문교육의 시행

그동안 교회는 크리스천의 직업생활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에 있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임영호, 2003). 교회가 기독교청년들이 진로 탐색과 직업 찾기에 대해 전문적 도움을 제공해야 할 중요성과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복음에 관한 것, 영적 성장에 관한 것만이 교회가 가르쳐야 할 영역이고 책임이라고 생

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복음을 기독교인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고 그 과정에서 갈등과 문제를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진로탐색과 직업 찾기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제공해야 할 책무를 교회의 책임으로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직업소명이 영성에 기반 한 것이고, 영적 성장과 함께 직업소명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교회의 역할이 필요함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거나 직업선택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 청년들에게 막연하게 ‘기도해보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는 식으로 안내해서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까지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청년이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교회도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직업선택의 과정은 매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하며,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욕구나 흥미 뿐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대한 인지와 사고, 가치관을 총 동원하여 판단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진로심리학자인 홀랜드(Holland, 1973: 6)는 개인의 성격과 일의 환경이 일치하는 직업일수록 직업에서 안정과 성취, 자아실현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회에서 기독교청년들의 직업소명에 따른 진로상담이나 직업선택을 돕는데 있어, 이러한 핵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진로나 직업탐색을 위한 전문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나 청년 사역자들이 직업소명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직업소명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영적인 개념만이 아닌 구성요소를 가진 구체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진로지도가 가능해진다. 전문인력 풀이 많지는 않겠지만 진로탐색에 대한 전문성과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진로적성이나 진로결정, 진로정체성과 관련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직업소명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자아정체성과 직업정체성, 삶의 의미나 목적, 가치관, 일 가치의 우선순위, 열정과 충성 등에 대해 교육하고, 이를 자신의 관심사나 적성, 흥미나 재능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교회의 진로개발 관련한 교회 내 프로그램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교회 내에서 진로안내나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해 실행되어 왔을 뿐 아니라,

1970년대에는 청소년을 넘어서 성인들의 경력개발(이직 포함)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1977년에는 한 교회에서 이직지원그룹이라는 Job Transition Support Group을 만들고, 이러한 사역이 교회의 주된 목회사역임을 확인시켰다(Fox, 2003: 171-175).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로나 직업 관련 강의나 글쓰기, 소그룹 토론을 통해 기독교청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는 영적 성장을 이루면서 직업적으로나 개인적 삶의 목적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3. 교회 내, 외부의 인적자원 개발과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기독교청년들만이 직업소명 교육의 대상은 아니다. 이미 직업세계에 오래 몸담고 있는 중장년 크리스천들도 이 교육의 대상자이자 도움의 제공자가 될 수 있다. 중장년 크리스천들도 자기가 종사해 온 직업세계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직업소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훈련 받지 못해 온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다행히도 교회에는 매우 풍부한 인적자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적자원들은 다양한 직업과 직군에 종사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소명을 수행해오고 있는 신앙과 사회생활의 선배들이다. 물론 이들도 체계적으로 교회로부터 직업소명에 대해 배우거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전무하거나 부족할 수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으려하는 기독교청년들의 진로고민과 부담에 대해 공감해 줄 수 있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이다. 그러하기에 중장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청년들을 돕는자로서 멘토가 되어주거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자기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회 외부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좋은 전문인력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이나 어떤 영역에서도 멘토링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교회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직업과 진로지도 및 소명찾기를 도와줄 수 있는 멘토링이 필요하다.

그런데 멘토링을 지나치게 가족 외부에서 찾는 우리 한국사회의 독특한 문화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롤모델이 되어주지 못하고 멘토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부모의 자녀 진로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부모 중심적 사고에 의한 자녀와의 갈등과 소통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회 내 부모세대를 대상으로 직업소명의 중요성과 그것을 찾기 위한 과정, 부모의 역할과 자녀 양육

방법을 교육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나 청년 등 아직 직업세계에 진출하지 않은 교회 내 젊은층들을 위해 이들의 부모들이 멘토가 되어주려면 부모들 자신이 먼저 영성에 기반 한 직업소명을 갖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 내 많은 부모세대들은 어쩌면 신앙과 분리된 세상적인 성공 기준에 몰입해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나가기 위한 신앙적 가르침보다는 무조건 신앙이나 교리에 경도된 자녀 교육을 해 왔을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직업생활이 신앙생활과 일치되지 못하는 이중적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직업심리학(vocational psychology)에서는 지지집단의 격려와 지지에 더불어 롤모델로부터 배우는 내용이 직업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Constantine et al., 2006; Dik 2015). 교회는 이제 사역의 범위와 내용이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교회 내, 외부의 전문가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기독교청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교회가 더 이상 현실을 살아내기 어려운 종교성만을 강조하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란다.

## V. 결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혼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사회의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살아나가기 쉽지는 않다.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와 의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Veith, 2018: 26). 한국사회는 이러한 풍조가 더 심각하다. 기독교가 영향력을 점점 더 잃어가고,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탈교회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회의적이고도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교회는 청년들을 위해 직업소명을 가르쳐야 한다는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도 극단적인 세속화 된 사회에서 신앙에 기반한 삶을 살아내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공동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도 긴급하다. 기독교청년들의 믿음이 교회 안에 국

한되거나 영적인 세계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확신으로 가정과 직장, 경제와 사회 속에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우병훈, 2018). 이것이 바로 소명을 주신 이를 높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가치 있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재능에 대한 책임이 각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므로 청지기로서 그 재능을 잘 살리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청년들은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지 않거나, 찾아볼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

루터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반드시 소명이 있다. 그것에 머무는 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고 했다(우병훈, 2018: 106). 바울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디모테전서 6:7)” 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이 무엇을 소유해서 그로 인해 존엄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재능)으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다(이복수, 2004: 15).

아샤르와 레인-마헤르(Ashar & Lane-Maher, 2004)는 비즈니스 세계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며 이전의 경쟁적이고 물질 만증주의, 개인주의, 효율성만 강조하고, 자연을 이용하고 착취하는데에 집중했던 가치가 이제는 영성과 관계, 협력과 유대, 지속가능성과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이 일어나고 양심을 중시하는 가치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성공의 기준,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에 기독교청년들이 영성을 바탕으로 한 직업소명으로 무장하고 직업 세계에서 활약한다면,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음세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청년들이 직업을 탐색하고 진로를 찾는데 있어 직업소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소명을 찾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직업소명이 성경의 가르침에 얼마나 부합되는 것인지, 루터의 직업소명이 현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탐구하였다. 갈 길을 잃은 양떼처럼 교회나 기독교신앙에서 접

점 더 멀어져가는 현대 청년들, 기독교청년들의 직업탐색과 진로찾기에 과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역할과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혹자는 직업소명의 중요성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세속사회의 기준에 많은 영역을 잠식당하고 있고, 특히 직업에 대한 기준과 가치는 더욱 그러하다는 현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직업소명을 잊어가고 있으며, 직업소명이 교회의 주요 가르침에서 멀어져 가고 있음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문헌중심의 이론연구의 한계로 기독교청년들이 진로선택과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직업소명을 잘 접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나 환경적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담고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기독교청년들이 직업소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찾아가는 과정에 어떠한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고, 이를 위해 교회는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내야 하는지에 대해 확장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강성규 역 (2006).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소명찾기**. Brennfleck, K. & Brennfleck, K, M. (2004). *Live Your Calling*. 서울: IVP.
- [Kang, S. K. (2006). Stages of Faith. Seoul: IVP. Trans. Brennfleck, K. & Brennfleck, K, M. (2004). *Live Your Calling*. Seoul: IVP.]
- 권선영 · 김명소 (2014). 직업소명의 구성개념과 소명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 연구**, 21(6), 393호-420.
- [Kwon, S. Y and Kim, M. S. (2014). A Qualitative Study for Exploring the Construct of Vocational Calling and the Effect of Factors on Living a Call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6), 393-420.]
- 김지선 (2015).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소명실행과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 [Kim, J. S. (2015). *The effect of perceiving a calling on well-being : the mediating effects of living a calling and basic psychological ne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Korea.]
- 문시영 (1999). **직업소명과 책임윤리**. 서울: 한들.
- [Moon, S. Y. (1999). *Vocational Calling and Responsibility Ethics*. Seoul: Handeul.]
- 신지민 · 이은경 · 양난미 (2015).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1(1), 169-194.
- [Shin, J. M, Lee, E, K and Yang, N, M. (2014). The Effects of Career Calling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Life-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51(1), 169-194.]
- 안경승 (2009). 일의 의미와 진로결정. **복음과 상담**, 13, 9-33.
- [Ahn, K. S. (2009). The Meaning of Work and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13, 9-33.]
- 양난미 · 이은경 (2012).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4(1): 51-68.
- [Yang, N, M. and Lee, E, K. (2012). Mediatlional Effects of Career Identi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Career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4(1), 51-68.]
- 우병훈 (2018). 루터의 소명론 및 직업윤리와 그 현대적 의의. **한국개혁신학**, 57, 72-132.
- [Woo, B. H. (2018). The Vocational Ethics of Martin Luther and Its Implication



- for Modern Society. *Korea Reformed Theology*, 57, 72-132.]
- 이복수 (2004). 크리스천과 일, 그리고 직업. *교신선교*, 4, 7-36.
- [Lee, B. S. (2004). Christian, Work and Vocation. *Kosin Journal of Missionology*, 4, 7-36.]
- 이은미 (2018). 기독교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탐색에 신앙이 미치는 영향과 의미: 포토보이스의 적용. *신앙과 학문*, 23(3), 163-216.
- [Lee, E. M. (2018). A Photo-Voice Study on Effect and Meaning of Christian Faith on Self-Identity and Career Exploration of University Christian Students. *Faith & Scholarship*, 23(3), 163-216.]
- 이효재 (2018). *일터신앙*. 서울: 토비아.
- [Lee, H. J. (2018). *Working in Faith*. Seoul: Tobia.]
- 임영호 (2003).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의 장으로서의 직업생활에 대한 고찰. *교신선교*, 5, 171-198.
- [Lim, Y. H. (2003). A Study on Occupational Life as Field of Brotherly Love and Neighborly Love. *Kosin Journal of Missionology*, 5, 171-198.]
- 임현만 (2009). 일차적 소명의 관점으로 보는 이차적 소명으로서의 직업과 기독교 상담. *복음과 상담*, 13, 37-69.
- [Lim, H. M. (2009). The First Vocation's Perspective on the Second Vocation's Perspective towards Job and Christia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13, 37-69.]
- 학원복음화협의회 (2017). *한국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 지앤컴리서치, 목회사회학연구소.
- [Campus Evangelization Network (2017). *A Study on Perception and life of Korean College Students 2017*. Ji & Com Research & Pastoral Sociology Institute Korea.]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US: Oxford University Press.
- Ashar, H & Lane-Maher, M. (2004). Success and Spirituality in the New Business Paradigm. *Journal of Management Inquiry*, 13(3), 249-260.
- Ashmos, D. P & Duchon, D. (2000). Spirituality at work: a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s. *Journal of Management Inquiry*, 9 (2000, 2), 134-145.
- Constantine, M. G., Miville, M. L., Warren, A. K., Gainor, K. A., & Lewis-Coles, M. E. L. (2006). Religion, Spirituality, and Career Development in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A Qualitative Inqui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4(3),

227-241.

- Dik, B. J. (2015). Finding your calling: tips from psychology and spiritual theology to help you find your vocation. *Biola University Center for Christian Thought*. <https://cct.biola.edu/finding-your-calling-5-tips-psychology-and-spiritual-theology-help-you-find-your-vocation/>
- Dik, B. J. & Duffy, R. D. (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ing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3), 424-450.
- Dik, B. J., Eldridge, B. M. Steger, M. F. & Duffy, R. D.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 and brief calling scale(BC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3), 242-263.
- Dobrow, S. (2006). *Having a calling: A Longitudinal study of young musicians*.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Duffy, R. D. & Dik, B. J. (2013). Research on calling: What have we learned and where are we go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3(3), 428-436.
- Duffy, R. D. & Sedlacek, W. E. (2007). The presence and search for a calling: connection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 590-601.
- Feenstra, J. S. & Brouwer. (2008). A. M. Christian Vocation: Defining relations with identity status, college adjustment, and spiritualit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6, 83-93.
- Fox, L. A. (2003). The Role of the Church in Career Guidance and Develop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1960-Early 2000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9(3), 167-182.
- Harman, W. W. (1992). 21st century business: A background for dialogue. In J. Renesch(Ed.), *New tradition in business: Spirit and leadership in the 21st century*. SanFrancisco: Berrett-Koehler, 11-24.
- Hirschi, A. (2011). Callings in career: A typological approach to essential and optional compon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1), 60-73.
- Holland, J. (1973).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careers*. Prentice-Hall.
- Hybels, B. (1992). *Christian in Marketplace*. 민문영 역 (1999). *당신의 직업,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Min, M, Y. trans (1999). Seoul: Joy Press.
- Milliman, J., Czaplewski, A, J., & Ferguson, J. (2003). Workplace spirituality and employee work attitudes. *Journal of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16(4), 426-447.

- Siler, G. L. (2010). *The Relationship of the Perception of Divine Calling with Identity Development and Purpose in Christian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 Treadgold, R. (1999). Transcendent vocations: Their relationship to stress, depression, and clarity of self-concept. *Th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9(1), 81-105.
- Veith, G. E. (2018). Christian Secularism: Vocation in the Post-modern World. *Lutheran Theological Journal*, 51(1). 25-35.
- Wrzesniewski, A. (1999). *Jobs, careers, and callings: Work orientation and job transitions*.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University.
- Wrzesniewski, A., Dekas, K. & Rosso, B. (2009). 'Calling' in S. Lopez(ed.) *Encyclopaedia of Positive Psychology*, Malden: Blackwell Publishing Ltd. : 324

## 인터넷 자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ict.korean.go.kr/main/main.do>.(검색일 2019. 04.15)  
[Retrived from. <http://stdict.korean.go.kr/main/main.do>. (2019.04.15.).]
- 메인뉴스,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직 경험 있다’...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길은?”, 안혜선 기자, 2017. 03.06.  
[Main News, “8 out of 10 workers have experienced job turnover.. What is the best way for successful turnover?, Retrived from. <http://www.mainnews.kr/news/article View. html? idxno=33534>. (2017.03.06.).]
- CBS노컷뉴스, “직장인 이직 사유 1위, 연봉 및 처우 불만족”, 이전호 기자, 2017.06.05.  
[CBSnocutNews, “Salary and Welfare is the main reason for job turnover”, Retrived from. <https://www.nocutnews.co.kr/news/4794642> (2017.06.05.).]
- 투데이코리아, “직장인 회사만족도, 현재 일하는 회사에 10명 중 3명만 만족”, 문경아 기자, 2017.07.04.  
[Today Korea, “Job satisfaction, only 3 out of 10 are happy in their present job”, Retrived from.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46345> (2017.07.04.).]
- 캠브리지 디క్ష너리, 2019년 4월 15일 검색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  
[Cambridge Dictionary, Retrived from.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2019.04.15.)]

## 논문초록

# 기독교청년의 직업소명에 관한 고찰: 교회의 역할과 과제

이은미 (서울신학대학교)

우리는 일(직업)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얻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이웃과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일은 생계나 사회적 지위의 수단적 측면이 강조된 채, 소명(부르심)으로서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직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선택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도를 해야 하는 초기 성인기 기독교청년들에게 직업소명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로부터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소명에 대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기독교청년들에게 왜 직업소명이 중요하고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직업소명을 찾을 수 있는지에 고찰하였다. 또한 기독교청년들이 직업소명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기독교인조차도 노동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나 형벌이라는 관점을 가지지만 성경에서는 일을 통해 인간이 번성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고 결국 일은 사람에게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묘사한다. 루터(Martin Luther)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직업소명의 개념은 일부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 아닌 세속사회의 직업생활에도 적용되는 신앙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루터는 만인 제사장론을 통해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영적인 것이며 동등하게 존귀하다고 하였다. 중세의 오랜 전통을 깨고, 루터는 그 자체로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청년기에는 진로와 직업에 대해 많은 고민과 탐색을 하게 되지만, 기독교청년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직업세계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며, 나는 그 일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명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청년들에게 직업소명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 직업세계의 가치관과 관점이 물질시대에서 관계시대로 새롭게 변화함으로 인해 경쟁이나 성과, 이기주의나 물질만능의 가치보다는 영성에 기반한 유대와 협력, 관계와 헌신이 중요한 세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명에 기반 한 직업활동

이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직업소명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또한 인생의 의미, 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붙들고 사는 태도가 삶의 만족을 높인다고 나타난 바 있다. 더불어 직업소명은 직업 스트레스를 낮추기도 하고, 직업수행능력을 높이며, 근무기간도 유지시키는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독교청년의 소명은 영성과 함께 성숙되어야 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영성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지난 20년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영성이 높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적응이나 성과,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기여가 높은 사람들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직업소명은 기독교청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일에서의 의미와 목적, 이웃사랑의 명령을 실현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기독교청년들에게 직업소명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 성경에 기반 한 가르침을 주어야 하고, 교회 내에서 기독교청년들을 위한 전문화 된 진로 및 직업탐색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교회 내·외부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한 직업관련 멘토링이나 롤모델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기독교청년, 진로(직업)개발, 직업소명, 교회의 역할과 과제**



##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The Investigation of Influential Variables on Institutional Commitment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백상현 (Sang Hyon Baek)\*

#### Abstract

This study has a purpose to research how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background, religious background, and campus climate of students, who are attending a Christian university, could influence institutional commitment. In order to identify the research problems, this study surveyed 416 university students, who are attending Christian universities, which are four Christian universities with four-year-course, and final 385 surveys were utilized for analysis.

First, this study found that, in the individual background, the institutional commitment is significantly higher when students live in a dormitory rather than they do not live in a dormitory, and when they have preference of their university at the time of admission. Also, in the religious background, this study found that students have significantly higher institutional commitment when they are attending a church and their parents are Christian rather than students who are not attending a church and their parents are not Christian and when they are Christian rather than students who are atheist. Second, this study found that influential factors of the institutional commitment are gender, admission preference, current religion, and recognition of campus climate. Specifically, this study found that they have the higher institutional commitment when they are male students rather than female students, they have higher preference at the time of admission, and they are Christian rather than they are not Christian. Also, this study found that sub-variables of the campus climate such as academic climate, relational climate, and religious climate ar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Third, this study found that the gender, the admission preference, and the campus climate are common influential variables regardless of current religions of students. Related to the religious background, this study found that Christian students who are attending a church show high institutional commitment and the religious background of students who are not Christian does not influence the institutional commitment significant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d results on the correlation among

---

\* 고려대학교(Korea University) 교육학 박사과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jaws38@naver.com  
2019년 05월 28일 접수, 06월 10일 최종수정, 06월 11일 게재확정

the individual and the religious back ground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of the campus climate, and the institutional commitment.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given.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given.

**Key Words** : christian university, individual background, religious background, campus climate, institutional commitment

본 논문은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를 요약, 수정한 것임.

## I. 서론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충원 문제는 대학의 유지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충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8년 교육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학년도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 학생 수는 211,738명(6.8%)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원인을 찾고, 그들이 대학 내 소속감, 만족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2011년부터 매년 ‘학부교육 실태조사(K-NSSE)’를 통해 학생들의 소속대학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별로 자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소속대학에 대한 애착과 몰입 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학생이 대학 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업 및 그 외 대학 활동에 전념하게 되면 대학에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대학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대한 해외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이 대학에 정서적 애착을 가지고 소속감을 느낀다면 소속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stin, 1993; Bean, 1980, 1982; Pascarella & Terenzini, 2005; Strauss & Volkwein, 2004). 대학 몰입의 이론을 가장 먼저 현장에 적용한 Tinto(1987)는 대학생이 대학 생활 동안 겪는 학문적, 사회적 경험을 통해 만족감을 느낀다면 대학체제와의 통합을 경험하고 이는 소속 대학에 대한 몰입 정도에 영



향을 미쳐 학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학생의 개인 배경 특성과 대학 생활 경험, 대학 환경 요인 등이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졌다(권도희, 2013; 전하람, 2017; 최정윤·신혜숙 2016; 홍지인·배상훈, 2015; 한송이, 2016; 한미희, 2016). 그러나 연구대상이 전체 4년제 대학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한 목적과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일반대학과는 다른 기독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교육이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독교대학 재학생들의 대학 몰입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교육이념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며, 캠퍼스 내 곳곳에 기독교적 문화가 스며들어 있으며(이상운, 2004),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학생이 함께 이러한 문화를 접하며 생활하는 것이 특징이다. 평소 교회 문화를 접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낮은 환경에 새롭게 적응을 해나가야만 하며, 이러한 부분들은 일부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 김영중·이현철(2016)은 선행연구를 통해 기독교 대학 내 학생들이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기독교 문화를 한번도 접해보지 않은 학생의 경우 캠퍼스 문화에 상당한 이질감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들이 대학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소속 대학의 분위기 및 풍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들이 대학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Astin, 1993; Pascarella & Terenzini, 2005; Strange & Banning 2001), 기독교대학이 가질 수 있는 개별적 요인을 고려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대학 몰입에 관한 연구는 해외선행연구에서는 다루어져왔지만(Morris & Smith & Cejda, 2003; Morris & Beck & Smith, 2004; Cash & Bissel, 1985; Diggs, 1986), 국내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대학의 학생들의 종교적 배경과 특수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대학 몰입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학생의 개인배경특성, 종교적 배경 그리고 대학 고유의 환경적 풍토를 고려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기독교대학은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공존해 있으며,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모든 학문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교육목적을 두는 기독교 종합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단, 연구의 목적이 대학 간의 환경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학 환경을 연구대상인 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풍토, 분위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대학 몰입

‘대학 몰입’은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제시되기 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주요 개념으로 대학만족도(college satisfaction), 대학 내 소속감(sense of belonging), 대학의 전반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 소속대학에 대한 충성도(loyalty to the institution), 대학의 매력 정도(attraction to college), 대학 생활 적응(adjustment) 등을 포함한다(Beane, 1990; Nora & Cabrera, 1993; Tinto, 1993; 홍지인, 배상훈, 2015 재인용).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대학 몰입의 개념은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생들이 소속대학에 학업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간변인으로서의 간주되어 왔다. 이는 즉, 학생이 대학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대학에 대한 몰입을 하게 하면 이는 학업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대학 몰입과 유사한 개념으로써 ‘학생 참여(student engagement)’의 개념을 들 수 있다. Astin(1993)에 따르면, ‘참여’란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학교 내 학습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대학 내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포함한다. 이러한 내용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대학활동 등을 이끌어내는 점에서 ‘몰입’의 개념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는 학생의 행동적 측면에 강조점을 둔 개념이고, ‘몰입’은 대학환경에 집중하는 심리적인 동기 측면을 개념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권도희, 2013). 즉, 학생의 소속대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참여’는 행동적 측면에, ‘몰입’은 심리적 측면에 강조점을 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 몰입의 개념에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지만 공통적으로 대학생이 대학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정서적인 애착을 형성하며 대학에 몰두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대학 몰입은 학생이 학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매개 변인임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Beane, 1980; Strauss & Volkwein, 2004; Tinto, 1987, 1993), 대학생의 태도와 환경을 변화시켜 학습 참여 및 학업적 성취 등의 교육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Astin, 1993; Beane, 1990; Nora & Cabrera, 1993; Pascarella & Terenzini, 2005). 즉, 학업 중단을 예측하는 변인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교육적 성과에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학생 개인의 특성과 대학 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개인 요인에는 성별, 학년, 가계소득 수준, 전공계열, 입학 전 성적, 입학선호도, 거주형태, 연령이 있었으며(Love, 2013; Pascarella & Chapman, 1983; Strauss & Volkwein, 2004; 권도희, 2013; 배상훈·한송이, 2015; 홍지인·배상훈, 2015; 한송이, 2016), 대학 환경 요인에는 대학 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정도, 비교과 활동 참여 정도, 대학설립유형, 소재지, 규모 등이 있었다(Strauss & Volkwein, 2004; Tinto, 1993; 권도희, 2013; 유현숙·고장완·임후남, 2011; 최보금·조성희, 2014; 홍지인·배상훈, 2015; 한송이, 2016). 특히 기독교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대학 내 구성원들과의 신앙적 교류정도, 사역활동 참여 정도 등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Walter, 2000; Morris, 2002).

## 2. 기독교대학의 대학 몰입

기독교대학 재학생들의 대학 몰입 연구는 주로 해외에서 CCCU(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에 속한 기독교대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Tinto(1987)의 ‘대학생 통합 모형’에 근거하여 기독교대학 및 재학생들의 특성을 가미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개인 변인에 부모님의 종교, 체플 및 예배 참석 횟수, 교회활동 참여 정도 등의 종교적 배경 요인을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의 종교적 배경이 해당 대학의 종교계열과 일치할수록, 예배 및 교회활동 참석횟수가 높을수록 학생은 더 대학조직에 헌신,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들이 그들이 속한 캠퍼스 환경의 특성, 문화, 풍토 등을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 내 경험 요인 중 학업적, 관계적 부분에 신앙적 부분을 첨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Schreiner(2000)는 The Student Satisfaction Inventory(SSI)<sup>1)</sup>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미국의 78개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대학만족도와 학업지속율을 조사하였다. 특히 기존의 측정항목에서 기독교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신앙적 만족도 변수를 추가하여 학생들의 개인 신앙과 소속대학 내에서 경험하는 신앙적 통합 정도(religious integration)를 조사하였다. 측정문항은 ① 현재 대학은 영적 성

1) SSI는 학생이 다양한 대학 경험 등을 통해 형성된 학업적, 사회적, 신앙적인 통합 정도가 학업유지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장에 기여하고 있음 ② 학업 및 대학 내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 ③ 교직원들은 개인 신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편임 ④ 현재 대학은 사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 편임 ⑤ 남학생, 여학생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는다. ⑥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감안할 때, 이 대학은 나에게 적합한 곳임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이 소속된 대학환경을 개인의 영성, 신앙 발전과 적합한 곳으로 느낄수록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들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진행된 다수의 연구 등에서 학생의 대학 내 학업활동, 대학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정도와 더불어 신앙적 교류 및 통합 정도가 높을수록 소속 대학에 대한 몰입정도와 학업유지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rris & Smith & Cejda, 2003; Morris & Beck & Smith, 2004; Stella, 2010, Stephen & Gregory, 2009; Walter, 200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기독교대학 재학생들이 소속 대학에 대한 몰입 수준을 형성함에 있어 종교적, 신앙적 요소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 문화에 전반적인 기독교적 요소들이 내재해 있는 기독교대학의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개인배경특성과 종교적 배경, 대학환경의 풍토에 대한 인식이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의 가설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대학 몰입은 학생의 개인배경특성과 종교적 배경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개인배경특성, 종교적 배경, 대학환경풍토 인식은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독교인 학생과 비기독교인 학생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소재한 4년제 기독교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대상 대학으로 기독교대학만을 차별성을 가지기 위한 재학생 1만 명 이하 소규모, 현재 기독교 관련 과목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교 중 수도권 소재 3개, 지방 소재 1개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1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제 조사는 2016년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31부를 제외하여 총 385부를 분석하였다.

## 3. 연구변인 및 측정도구

### (1) 종속변인

대학 몰입의 측정을 위해 Nora & Cabrera(1993)가 개발한 측정도구 중 우리나라 대학 맥락에 맞게 수정 및 개발된 진단도구를 활용하였다(한송이, 2016 재인용). 측정 문항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은 대학의 교육철학 및 가치에 대한 인지, 대학 선택에 대한 확신, 대학의 질과 명성에 대한 만족, 소속감, 실용적 가치, 충성도, 동문회 참여 여부, 부모님의 인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Table 1 Composition of the questionnaire for Institutional Commitment

Variable	Number of question	Description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Institutional Commitment	8	Affinity of value	.457	.887
		Certainty of choice	.709	
		Satisfaction of institutional prestige	.674	
		Satisfaction of institutional quality	.506	
		Sense of belonging	.651	
		Practical value	.646	
		Intention of participating alumni association	.588	
		parents expectation of institution	.640	

## (2) 독립변인

### ① 개인배경특성

개인배경특성은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지니고 있는 내재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남자, 여자), 학년(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공계열(인문계열, 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 기숙사 거주 여부, 대학 입학 선호도<sup>2)</sup>를 적용하였다. 전공계열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KEDI)<sup>3)</sup>기준 7대 계열 중 기독교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은 이공계열로 합쳐 표기하고, 신학계열 전공을 별도로 선정하였다. 성별, 학년, 전공계열, 기숙사 거주 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입학선호도는 서열척도로 척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으로 산출하였다.

### ② 종교적 배경

종교적 배경은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접했던 기독교적 배경의 영향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종교(기독교, 비기독교), 기독교적 배경(기독교학교 출신 여부, 부모님의 종교가 기독교인지 여부, 현재 교회 출석 여부, 과거 교회 다닌 경험), 교회생활정도(교회 출석 회수, 교회 다닌 기간, 봉사 여부)의 8가지 항목을 정하여 적용하였다. 모든 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 ③ 대학환경풍토

대학환경풍토는 기독교대학의 학생들이 재학 중 소속 대학에 대해 인지하고 느끼는 풍토, 분위기, 문화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환경풍토 변수를 학업적 풍토, 관계적 풍토, 신앙적 풍토로 분류하였다. 학업적 풍토는 캠퍼스 내에서 수업 관련(과제물, 프로젝트) 준비 및 학업에 투자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관계적 풍토는 수업 외 교수 및 동료들과의 수업 외 활동 및 교류 등에 투자하는 수준 및 풍토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신앙적 풍토는 캠퍼스 내외에서 종교 활동 등에 참여하고 신앙 관련 문제로 구성원과 교류할 수 있는 지원적 분위기와 활동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학업적 풍토’, ‘관계적 풍토’ 변수는 『2016 학부교육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2) 입학 이전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몇 번째로 선호했는가?’에 대한 응답을 의미한다.

3) 공학계열, 교육계열, 보건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과학계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풍토’ 변수를 통해 학생들 개인이 수업 및 학업에 참여하는 정도 및 인지하는 학업적 분위기를 측정하고자 하였기에 해당하는 문항을 발췌 및 수정하여 사용했다. 또한 ‘관계적 풍토’ 변수를 통해 대학 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그룹과 토론 경험, 교수-학생 상호작용, 지원적 대학환경 중 해당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했다. ‘신앙적 풍토’ 변수는 SSI(Student Satisfaction Inventory)조사 문항 중 신앙적만족도 측정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했다.

Table 2 The questionnaire of campus climate and Factor loadings Associated with Each Statement

Variables	Description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Academic Climate	I generally discuss about my academic work with faculty	.675	.721
	I tend to have discussion with faculty about academic problems	.643	
	I generally discuss about my academic work with colleagues	.507	
	Academic support services adequately meet the needs of students	.634	
	There's a good variety of courses provided on this campus	.571	
	There're lots of homeworks and projects in the courses	.447	
Social Climate	I tend to have communicate with faculty about personal problems	.711	.810
	Faculty care about me as and individual	.688	
	I tend to participate in student activity with colleagues	.821	
	It is enjoyable experience to communicate with colleagues	.683	
	I tend to have communicate with students from all different backgrounds	.597	
	There are a good variety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this campus	.596	
Religious Climate	I am able to have discussion about my faith with colleagues	.797	.824
	Students from all different religious backgrounds feel welcome on this campus	.796	
	There're lots of chance for participate religious works in campus	.572	
	Faculty and staffs are helpful in processing issues related to my faith	.615	
	This campus provides adequate opportunities for involvement in ministry	.807	
	I have lots of opportunity of participating worships, prayer meeting in campus	.794	

####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사용하였다. 둘째, 학생의 개인배경특성, 종교적 배경에 따라 인식하고 있는 대학 몰입에 대한 차이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t-검정, 일원변량분석 및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 몰입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4.0을 활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 (1) 연구대상의 구성

연구대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176명(45.7%), 여성이 209명(54.3%)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 141명(36.6%), 2학년 115명(29.9%), 3학년 70명(18.2%), 4학년 59명(15.3%)으로 나타났으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61명(15.8%), 거주하지 않는 학생이 324명(84.2%)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은 인문계열이 173명(44.9%), 신학계열이 21명(5.5%), 사회과학계열이 101명(26.2%), 이공계열이 44명(11.2%), 예체능계열이 47명(12.2%)으로 조사되었고, 입학선호도는 1순위 67명(17.4%), 2순위가 102명(26.5%), 3순위 118명(30.6%), 4순위가 98명(25.5%)으로 조사 되었다.



Table 3 Socio-demographic background of respondents

	Variable	Number	Ratio(%)
Sex	Male	176	45.7%
	Female	209	54.3%
Class level	Freshman	141	36.6%
	Sophomore	115	29.9%
	Junior	70	18.2%
	Senior	59	15.3%
Major	Liberal Arts	173	44.9%
	Theology	21	5.5%
	Social Science	101	26.2%
	Science and Engineering	43	11.2%
	Fine Arts	47	12.2%
Residence	Live on campus	61	15.8%
	Live off campus	324	84.2%
Initial Commitment	Institution was 1st choice	67	17.4%
	Institution was 2nd choice	102	26.5%
	Institution was 3rd choice	118	30.6%
	Institution was 4th choice	98	25.5%
Total		385	100%

## (2) 기술통계

본 연구의 측정변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연구의 종속 변인인 대학 몰입을 구성하는 8개의 문항의 평균은 2.99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배경 중 기독교 학교 출신여부는 0.15로, 기독교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의 비중이 더 높았다. 부모님의 종교는 0.39로 부모님의 종교가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회 출석 여부는 0.72로 기독교인 학생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과거 교회다닌 경험 여부는 0.12로 낮게 나타났다. 기독교인 학생들의 교회출석횟수(한달)는 0.60, 교회다닌 기간은 0.71로 높게 나타났다. 교회 봉사여부는 0.36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재학 중인 대학환경의 학업적 풍토에 대한 인식은 평균 3.11로 5점 리커트 척도에서 보통이다(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이 인식하는 관계적, 신앙적 풍토의 평균값은 2.74, 2.94로 학업적 풍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Variables	Average	SD	Min	Max
Institutional Commitment	2.99	0.70	1.25	5.00
Sex	0.46	0.50	0.00	1.00
Class level	2.12	1.07	1.00	4.00
Major(Theology)	0.05	0.28	0.00	1.00
Major(Social Science)	0.26	0.44	0.00	1.00
Major(Science and Engineering)	0.11	0.32	0.00	1.00
Major(Fine Arts)	0.12	0.33	0.00	1.00
Residence	0.16	0.37	0.00	1.00
Initial Commitment	2.36	1.04	1.00	4.00
Graduate from christian school	0.15	0.36	0.00	1.00
Parent's religion	0.39	0.49	0.00	1.00
Attending church	0.72	0.46	0.00	1.00
Attended church in past	0.12	0.47	0.00	1.00
Attending church(per month)	0.60	0.49	0.00	1.00
Period of attending church	0.71	0.45	0.00	1.00
Attending volunteering services in church	0.36	0.48	0.00	1.00
Academic climate	3.11	0.58	1.33	5.00
Social climate	2.74	0.68	1.00	5.00
Religious climate	2.94	0.71	1.00	4.83

## 2. 측정변수 간 상관분석

변수들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피어스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개인배경특성과 대학 몰입 간의 관계에서 전공계열 중 신학계열, 기숙사거주, 입학선호도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배경과 대학

몰입 간의 관계에서는 교회출석여부, 부모의 종교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환경풍토와 대학 몰입 간의 관계에서는 학업적 풍토, 관계적 풍토, 신앙적 풍토가 모두 대학 몰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Institutional Commitment	-																		
2. Sex	.08	-																	
3. Class level	.01	.05	-																
4. Major(Theology)	.12*	-.01	.17**	1															
5. Major(Social Science)	.05	.05	.00	-.14**	1														
6. Major(Science and Engineering)	.09	.07	-.10*	-.09	-.21**	1													
7. Major(Fine Arts)	-.01	-.10*	-.01	-.09	-.22**	-.13**	1												
8. Residence	.19**	.07	.07	.15**	-.11*	.23**	.10	1											
9. Initial Commitment	.37**	.11*	.04	.03	.11*	.01	-.10	.14**	1										
10. Graduate from christian school	.04	-.07	-.12*	-.04	-.04	.03	.02	-.07	.06	1									
11. Attending church	.23**	-.05	.00	.30**	-.05	-.05	.04	.05	.05	.22**	1								
12. Attended church in past	.06	-.18*	.02	.15**	-.02	.00	.08	.02	-.02	.19**	.41**	1							
13. parent's religion	.15**	-.03	.10	.28**	-.03	-.12*	.042	.03	.07	.15**	.64**	.50**	1						
14. Period of attending church	-.03	-.17	.05	-.01	-.05	-.21*	.18	-.10	-.05	.159	.27**	.44**	.40**	1					
15. Attending church(per month)	.09	-.14	.06	-.11	.00	-.05	.04	.10	-.03	.05	.51**	.24*	.16	.39**	1				
16. Attending volunteering services in church	.03	-.12	.11	.26**	-.06	.01	-.03	.14	.00	.05	.47**	.18	.17	.08	.19*	1			
17. Academic climate	.51**	-.09	-.06	.03	-.03	.10	.08	.11*	.16***	.00	.11*	-.04	.02	.12	.05	-.03	1		
18. Social climate	.46**	.01	.02	.01	-.03	.06	.06	.13**	.11**	.06	.12*	-.02	-.09	-.02	-.02	-.08	.48**	1	
19. Religious climate	.55**	-.01	.03	.12*	-.01	.01	-.023	.08	.19**	.11***	.32**	.07	.14	.10	.22**	.11	.37**	.39**	1

\*\*\* $p < .001$ , \*\* $p < .01$ , \* $p < .05$

### 3. 개인배경특성, 종교적 배경에 따른 대학 몰입의 차이 분석

#### (1) 개인배경특성에 따른 대학 몰입의 차이 분석

분석결과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3.69$ ,  $p < .001$ ), 성별에 따른 대학 몰입

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입학선호도가 높을수록 대학 몰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1순위, 2순위>3순위>4순위 의 순서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F=20.93$ ,  $p<.001$ ). 한편, 전공계열에 따른 대학 몰입에 대한 차이는 유의수준  $p<.05$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Scheffe 사후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6 Differences in Institutional Commitment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Average	SD	t/F	Scheffe
Sex	Male	176	3.06	0.72	1.61	
	Female	209	2.95	0.67		
Residence	Live on campus	61	3.30	0.63	3.69***	
	Live off campus	324	2.94	0.69		
Class level	Freshman	141	3.00	0.68	0.07	
	Sophomore	115	2.98	0.65		
	Junior	70	2.99	0.72		
	Senior	59	3.03	0.81		
Major	Liberal Arts	173	2.89	0.71	3.22*	
	Theology	21	3.33	0.72		
	Social Science	101	3.05	0.65		
	Science and Engineering	43	3.18	0.67		
	Fine Arts	47	2.97	0.71		
Initial Commitment	Institution was 1 <sup>st</sup> choice	67	3.38	0.71	20.93***	a, b>c>d
	Institution was 2 <sup>nd</sup> choice	102	3.15	0.59		
	Institution was 3 <sup>rd</sup> choice	118	2.96	0.61		
	Institution was 4 <sup>th</sup> choice	98	2.62	0.71		

\*\*\*  $p<.001$ , \*  $p<.05$

## (2) 종교적 배경에 따른 대학 몰입의 차이 분석

분석결과 현재 종교가 기독교인 학생들이 비기독교인 학생에 비해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44$ ,  $p<.001$ ). 또한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현재 기독교인일수록 학생의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2.89$ ,  $p<.01$ ),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이 출석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4.58, p<.001$ ). 교회생활 정도를 분석결과, 현재 한 달에 교회를 3회 이상 출석하는 학생들의 대학 몰입이 3회 미만 출석하는 학생들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17, p<.05$ ). 나머지 교회 다닌 기간, 봉사 여부는 대학 몰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7 Differences in Institutional Commitment according to religious background

Variables		N	Average	SD	t		
Current religion	Christian	154	3.15	0.77	3.44***		
	Non-Christian	231	2.90	0.63			
Christian background	Graduate from christian school	graduate	59	3.07	0.69	0.83	
		non-graduate	326	2.99	0.70		
	Parent's religion	christian	151	3.13	0.76	2.89**	
		non-christian	234	2.91	0.64		
	Attending church currently	attend	113	3.24	0.74	4.58***	
		non-attend	272	2.90	0.65		
	Attended church in past	attended	257	3.03	0.72	1.15	
		non-attended	128	2.94	0.66		
	Attending church	period of attending church	over than 5 years	18	3.07	0.73	-0.79
			less than 5 years	95	3.18	0.79	
Attendance of church (per month)		less than 3 times	26	2.99	0.81	-2.17*	
		over than 3 times	87	3.26	0.72		
Attending voluntary services in church		attend	54	3.26	0.69	1.01	
		non-attend	59	3.10	0.81		

\*\*\*  $p<.001$ , \*\*  $p<.01$ , \*  $p<.05$

#### 4.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개인배경특성, 종교적 배경, 대학환경풍토에 대한 인식이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기독교인 학생과 비기독교인 학생의 공통적인 종교적 배경(기독교학교 출신, 부모의 종교) 요인만을 변수로 분석하며, 추가적인 변수들은 다음 장에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Table 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ffecting the Institutional Commitm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Constant	2.34 (0.11)	-	2.07 (0.28)		0.14 (0.17)	
Individual characteristics						
Sex	0.05 (0.07)	0.03	0.07 (0.07)	0.05	0.11 (0.05)	0.08*
Class level	-0.01 (0.03)	-0.02	-0.02 (0.03)	-0.02	0.00 (0.02)	-0.01
Major						
Theology	0.36 (0.15)	0.12*	0.22 (0.16)	0.07	0.19 (0.12)	0.06
Social Science	0.10 (0.08)	0.06	0.10 (0.08)	0.06	0.10 (0.06)	0.07
Science and Engineering	0.20 (0.11)	0.09	0.24 (0.11)	0.11*	0.14 (0.09)	0.06
Fine Arts	0.11 (0.11)	0.05	0.11 (0.11)	0.05	0.04 (0.08)	0.02
Residence	0.19 (0.10)	0.11*	0.17 (0.10)	0.10*	0.10 (0.08)	0.05
Initial Commitment	0.23 (0.03)	0.35***	0.23 (0.03)	0.35***	0.15 (0.03)	0.23***
Religious background						
Current religion			0.19 (0.10)	0.15*	0.03 (0.08)	0.09*
Graduate from christian school			-0.01 (0.09)	0.00	-0.02 (0.07)	-0.01
Parent's religion			0.04 (0.09)	0.02	0.00 (0.07)	0.00
Campus climate						
Academic climate					0.33 (0.06)	0.28***
Social climate					0.14 (0.05)	0.14**
Religious climate					0.32 (0.04)	0.33***
F	10.03***		7.77***		25.21***	
R <sup>2</sup>	0.17		0.20		0.51	
R <sup>2</sup> change	0.17***		0.03*		0.08***	

\*\*\*  $p < .001$ , \*\*  $p < .01$ , \*  $p < .05$

회귀계수의 검증 결과에 따르면, 모형 1의 통제변수 중에서는 입학선호도( $\beta=0.35$ ), 기숙사 거주 여부( $\beta=0.11$ )가 대학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입학 당시 해당대학이 우선순위에 있었으며, 대학 내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학계열 전공( $\beta=0.12$ )학생들이 준거변인인 인문계열 전공학생들에 비해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배경 변수를 포함한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서와 마찬가지로 입학선호도( $\beta=0.35$ ), 기숙사 거주 여부( $\beta=0.10$ )가, 그리고 현재 종교가 기독교인 학생이 비기독교인 학생에 비해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0.15$ ). 반면 신학계열 전공은 유의한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환경 풍토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의 분석결과 개인배경특성 중에는 성별( $\beta=0.08$ ), 입학선호도( $\beta=0.23$ ), 종교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현재 종교가 기독교인 학생들이( $\beta=0.09$ ), 그리고 학업적( $\beta=0.28$ ), 관계적( $\beta=0.14$ ), 신앙적( $\beta=0.33$ ) 풍토 변수가 대학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배경특성 중에는 모형 1, 2와 마찬가지로 입학선호도가 높은 학생들이( $\beta=0.23$ )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숙사 거주 통계적 유의성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인식하는 소속대학환경의 풍토의 영향력에 따라 기숙사 거주에 따른 대학 몰입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주함으로써 동료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기숙사 거주’ 변수가 대학 몰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의 정도가 ‘대학환경풍토’의 영향력에 의해 상쇄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개인배경특성 중 성별이 새로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롭게 투입된 대학환경풍토의 세 가지 하위요소인 학업적, 관계적, 신앙적 풍토 변수는 모두 대학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소속 대학 내에서 수업 및 학업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을수록, 대학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 내 구성원들과의 신앙적 교류 정도 및 만족도가 대학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학생의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기독교대학에 재학생들을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을 두 부류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현재 종교 여부에 따라 종교적 배경의 측정요인이 다르며, 이에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 학생은 종교적 배경 요인 중 ‘현재 교회에 출석 여부’와 ‘교회 생활 참여 정도’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비기독교인 학생은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므로 ‘과거 교회를 다닌 경험 여부’만 종교적 배경 변수에 포함하였다.

##### (1) 기독교인 학생의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9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ffecting the Institutional Commitment for christian stu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Constant	2.31 (0.20)		2.02 (0.32)		-0.38 (0.36)	
Individual characteristics						
Sex	0.31 (0.12)	0.20**	0.30 (0.12)	0.19**	0.29 (0.10)	0.19**
Class level	0.00 (0.05)	0.00	0.03 (0.05)	0.04	0.00 (0.04)	0.01
Major						
Theology	0.25 (0.19)	0.11	0.21 (0.20)	0.10	0.20 (0.15)	0.09
Social Science	0.21 (0.14)	0.12	0.23 (0.15)	0.13	0.20 (0.11)	0.12
Science and Engineering	0.07 (0.22)	0.03	0.09 (0.23)	0.03	0.14 (0.18)	0.05
Fine Arts	0.37 (0.19)	0.16*	0.32 (0.20)	0.14	0.19 (0.15)	0.08
Residence	0.20 (0.16)	0.19*	0.23 (0.16)	0.16*	0.14 (0.13)	0.07
Initial Commitment	0.22 (0.06)	0.30***	0.22 (0.06)	0.29***	0.11 (0.05)	0.15*

<continued>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Religious background						
Graduate from christian school			-0.03 (0.14)	-0.02	-0.04 (0.11)	-0.02
Parent's religion			0.01 (0.17)	0.01	0.09 (0.13)	0.04
Attending church			0.28 (0.13)	0.18*	0.05 (0.14)	0.11*
Period of attending church			0.02 (0.18)	0.01	-0.03 (0.14)	-0.02
Attendance of church (per month)			0.20 (0.16)	0.13	0.12 (0.13)	0.07
Attending voluntary service in church			0.00 (0.14)	0.00	0.04 (0.11)	0.02
Campus climate						
Academic climate					0.27 (0.11)	0.21**
Social climate					0.19 (0.09)	0.18*
Religious climate					0.41 (0.08)	0.36***
F	4.50***		2.63**		9.28***	
R <sup>2</sup>	0.20		0.23		0.57	
R <sup>2</sup> change	0.17***		0.03		0.09***	

\*\*\*  $p < .001$ , \*\*  $p < .01$ , \*  $p < .05$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에 따르면, 모형 1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beta=0.20$ ), 입학 당시 해당대학이 우선순위에 있었으며( $\beta=0.30$ ), 대학 내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 $\beta=0.19$ ), 그리고 예체능계열 전공( $\beta=0.16$ ) 학생들이 준거변인인 인문계열 전공학생들에 비해 대학 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배경 변수를 포함한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 $\beta=0.19$ ), 입학선호도( $\beta=0.29$ ), 기숙사 거주( $\beta=0.16$ )가 대학 몰입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체능계열 전공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추가로 투입한 종교적 배경 변수들 중에는 현재 교회 출석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18$ ). 즉,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대학

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환경풍토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의 분석결과 성별( $\beta=0.19$ ), 입학선호도( $\beta=0.15$ ), 현재 교회 출석 여부( $\beta=0.11$ ), 학업적 풍토( $\beta=0.21$ ), 관계적 풍토( $\beta=0.18$ ), 신앙적 풍토( $\beta=0.36$ ) 변수가 대학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숙사 거주 변수의 영향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롭게 투입된 대학환경풍토 하위변수 3가지는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드러났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앙적 풍토에 대한 인식( $\beta=0.36$ ,  $p<.001$ ) 이 기독교인 학생들의 대학 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적 풍토( $\beta=0.21$ ,  $p<.01$ ), 성별( $\beta=0.19$ ,  $p<.01$ ), 관계적 풍토( $\beta=0.18$ ,  $p<.05$ ), 입학선호도( $\beta=0.15$ ,  $p<.05$ ), 교회 출석 여부( $\beta=0.11$ ,  $p<.05$ ) 순으로 학생들의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개의 대학환경풍토 하위변인이 대학 몰입을 설명하는 정도가 약 34%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기독교인 학생들이 인식하는 소속 대학환경의 학업적, 관계적, 신앙적 풍토가 대학 몰입을 설명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중 학업적 풍토 변수의 영향력은 약 2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학의 학업적 분위기는 기독교인 학생들의 대학 몰입수준을 설명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대학 몰입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개인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대학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10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ffecting the Institutional Commitment for non-christian stu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Constant	2.36 (0.12)		2.29 (0.15)		0.35 (0.21)	

<continued>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Individual characteristics						
Sex	0.07 (0.08)	0.05	0.06 (0.08)	0.05	0.11 (0.05)	0.08*
Class level	-0.02 (0.04)	-0.03	-0.02 (0.04)	-0.03	0.01 (0.03)	0.01
Major						
Social Science	0.05 (0.09)	0.04	0.06 (0.09)	0.04	0.05 (0.07)	0.04
Science and Engineering	0.26 (0.12)	0.14*	0.28 (0.13)	0.15*	0.12 (0.11)	0.06
Fine Arts	-0.07 (0.12)	-0.04	-0.07 (0.12)	-0.04	-0.10 (0.10)	-0.05
Residence	0.21 (0.12)	0.12*	0.20 (0.12)	0.11*	0.13 (0.10)	0.07
Initial Commitment	0.23 (0.04)	0.38***	0.23 (0.04)	0.39***	0.18 (0.03)	0.30***
Religious background						
Graduate from christian school			-0.04 (0.13)	-0.02	0.00 (0.11)	0.00
Parent's religion			-0.02 (0.12)	-0.01	-0.11 (0.10)	-0.01
Attending church			0.01 (0.08)	0.00	0.02 (0.06)	-0.06
Campus climate						
Academic climate					0.38 (0.07)	0.34***
Social climate					0.11 (0.06)	0.12*
Religious climate					0.22 (0.05)	0.24***
F	8.08***		5.21***		14.85***	
R <sup>2</sup>	0.20		0.20		0.49	
R <sup>2</sup> change	0.17***		0.00		0.05***	

\*\*\*  $p < .001$ , \*\*  $p < .01$ , \*  $p < .05$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모형 1의 통제변수 중에서는 입학선호도( $\beta=0.38$ ), 기숙사 거주( $\beta=0.12$ ), 이공계열 전공( $\beta=0.14$ )이 대학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드러났다.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경우 이공계열 학생들이 준거변수인 인문계열 학생들에 비해 대학 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독교인 학생들과 달리 성별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배경 변수를 포함한 모형 2에서는 입학선호도( $\beta=0.39$ ), 기숙사 거주 ( $\beta=0.11$ ), 이공계열 전공( $\beta=0.15$ )이 모형 1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 몰입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투입된 기독교적 배경 변수 중 대학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환경풍토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의 분석결과 성별( $\beta=0.08$ ), 입학선호도( $\beta=0.30$ ), 학업적 풍토( $\beta=0.34$ ), 관계적 풍토( $\beta=0.12$ ), 신앙적 풍토( $\beta=0.24$ ) 변수가 대학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추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열 전공, 기숙사 거주 변수의 유의한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롭게 투입된 대학환경풍토 하위변수 3가지는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드러났다. 비기독교인 학생들도 기독교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소속 대학환경에 대한 학업적, 관계적, 신앙적 풍토 인식이 높을수록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기독교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종교적, 신앙적인 분위기 및 풍토에 대한 인식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비기독교인 학생들도 대학구성원들과의 종교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대학 내 많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낄수록 대학 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업적 풍토인식 정도( $\beta=0.34$ ,  $p<.001$ )가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대학 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학선호도( $\beta=0.30$ ,  $p<.001$ ), 신앙적 풍토( $\beta=0.24$ ,  $p<.001$ ), 관계적 풍토( $\beta=0.12$ ,  $p<.05$ ), 성별( $\beta=0.08$ ,  $p<.05$ ) 순으로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개인배경특성, 종교적 배경, 대학환경풍토에 대한 인식이 대학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대학소속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4년제 기독교대학 재학생들의 대학 몰입은 학생의 개인배경특성, 종교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현재 기숙사가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거주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학 내 같은 공간에 거주하면서 대학공동체에 학업적, 사회적으로 통합되는 정도가 높아지며 이는 대학 몰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의 선행연구결과와 상충되는 점이 있어(권도희, 2013; 한송이, 2016)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입학할 당시 소속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전공별로 신입생들의 특성과 신앙적 배경, 진로 등을 고려해서 학생이 대학체제에 긍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종교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부모님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가 둘 다 아닌 경우보다, 현재 종교가 개신교인 학생이 무교인 학생에 비해 대학 몰입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기독교대학 학생의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배경특성 중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입학 할 당시 소속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선호도가 높을수록 입학 후 소속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결과는, 입학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소속 대학에 대한 몰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몰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로 나온바, 성별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대학에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나 공동체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학 내 여학생이 정서적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현재 종교가 기독교인인 학생이 비기독교인인 학생보다 대학 몰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때, 기독교적 배경 요인이 소속 대학의 몰입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대학환경 풍토 변수의 영향력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업활동과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종교 활

동을 긍정적으로 권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식할수록 소속대학에 대한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지각하는 대학 내 환경의 분위기, 풍토가 대학의 전체적인 느낌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Tinto(1993)는 대학 내 경험 및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학업적, 사회적 통합(integration)을 이끌어내고, 대학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기독교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 학생들의 학업적, 사회적, 신앙적 통합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만족도 및 학업유지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alter, 2000; Morris, 2002; Morris &

Smith & Cejda, 2003). 따라서 기독교대학들은 대학 내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학업적, 관계적, 신앙적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분위기, 풍토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충분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고, 교수 및 동료들과 학업적, 신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학생으로 나누어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종교적 배경을 제외하고 성별, 입학선호도, 대학환경풍토 요인이 공통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기독교인 학생의 기독교적 배경과 교회생활 정도는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해외선행 연구들과는 상충되는 점이며(Astin, 1975; Stephen & Gregory, 2009), 추후 해외와 우리나라 기독교대학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종교적 배경과 관련해서 기독교인 학생은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기독교인 학생은 대학 몰입에 종교적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비기독교인 학생의 종교적 배경이 소속 대학에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은 대학에서 비기독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학환경풍토 요인은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학생 모두의 대학 몰입형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신앙적 풍토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온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캠퍼스 내 다양한 기독교적 활동 등에 부담 없이 참여하고, 대학 내 구성원들과 신앙 관련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기독교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Schipull(2009)

은 기독교대학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경진회, 동료 학생들의 신앙생활, 신앙 관련 훈련, 성경 교과목, 기독교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속대학의 풍토 인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학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신앙 프로그램 및 제도 등을 통해 교수-학생 또는 동료 간 서로의 종교 및 신앙적 배경을 초월하여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층모형을 통한 보다 많은 기독교대학들의 대학 수준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기독교대학들 또한 규모나 교단 배경, 입학난이도, 학생 구성 등에 따른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소속 대학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다 할 수 있다. 선행연구결과(Walter, 2000) 대학수준 특성 중 학생1인당 교육비, 규모, 성별 비율 등이 학업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개인이 인지하는 대학환경풍토가 대학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대학 간 차이를 파악하여 더욱 체계적인 연구 및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몰입을 측정함에 있어 종단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Tinto의 대학생통합모형은 대학 입학 이전의 학생 특성과 입학 시 대학 몰입, 그리고 재학 중 대학기관 경험을 통한 학업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기 까지는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종단연구를 통해 학생이 대학 입학 후 대학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학업적, 사회적, 신앙적 체제에 통합되는지 이후 어떻게 대학 몰입에 학업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 몰입이 실제 학생들의 학업유지 또는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더욱 많은 변수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종교적 배경 특성이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민감한 변수들은 제외시켰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 대학 학점, 고등학교 성적, 경제적 형편, 부모 학력, 입학난이도 등의 변수 등은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이기에 추후에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파악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교육부 (2018.08.29.). 「2018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조간보도자료.  
[2018 basic education statistics (August, 29, 2018). Ministry of Education.]
- 권도희(2013). **대학생-대학환경 적합성'과 '대학조직 몰입'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Kwon, D. H.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university environment fit and institutional commitment*.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김영중 · 이현철 (2016). 기독교대학에서의 학교부적응 및 중도탈락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학과 선교**, 30, 263-295.
- [Kim, Y. J., Lee, H. C.(2016). Qualitative Research on School Maladjustment and Dropout in Christian University. *University and mission*, 30(0), 263-295.]
- 배상훈 · 한송이 (2015). 대학생의 수업 외 활동이 능동적 협동적 학습 및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3(2), 323-356.
- [Bae. S. H., Han, S, E.(2015). The impact of out-of-class activities on active and collaborative learning and institutional commitment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3(2), 323-356.]
- 유현숙 · 고장완 · 임후남 (2011).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및 종합적 사고력에 영향을 주는 학습과정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4). 319-337.
- [Yu. H. S., Ko, J. W., Lim, H. N. (2011). Examining Learning Experiences Influencing on the Communication Skills and High-order Thinking Skill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9(4). 319-337.]
- 이상운 (2004). 기독교대학의 정체성과 과제. **기독교문화논집**, 8, 75-90.
- [Lee, S, Y. (2004). The Identity and the Task of Christian College. *Collected Papers on Christian Language Culture*, 8, 75-90.]
- 전하람 (2017). 대학생의 기숙사 거주가 초기 대학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37-63.
- [Jeon, H, R. (2017). The Impact of On-campus Residence on Early Institutional Commitment among College Freshmen: A Focus on Faculty and Peer Interactions. *Korean Education Inquiry*, 35(4). 37-63.]
- 최보금 · 조성희 (2014). 대학생의 교수-학생 및 동료학생간의 상호작용 유형 변화에 따른 자기결정성 동기 분석. **교육학연구**, 52(3), 29-54



- [Choi, B. K. & Cho, S. H. (2014). The analysis of change in college students' interaction with faculty and peer students and differences in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2(3), 29-54.]
- 최정윤 · 신혜숙 (2016). Tinto 이론을 활용한 대학 몰입의 영향요인 및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효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4(2). 1-22.
- [Choi, J. Y., Shin, H. S. (2016). Investigating Determinants of Institutional Commitment during College and Its Effect on Academic Performance.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4(2). 1-22.]
- 한미희 (2016). **교우와의 학업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 [Han, M. H. (2016). *Effects of academic and social Interactions with peers on institutional commitment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한송이 (2016).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대학변인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 [Han, S. E. (2016). *Influential factors of the students' backgrounds and campus learning environments on institutional commitment*. Masters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홍지인 · 배상훈 (2015).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33(3). 351-379.
- [Honh, J. I., Bae, S, H.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Institutional Commitment of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3(3), 351-379.]
- Astin, A. W. (1975). *Preventing students from dropping out*. San Francisco: Jossey-Bass.
- Astin, A. W. (1993).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San Francisco: Jossey-Bass.
- Bean, J. P. (1980). Dropouts and turnover: The synthesis and test of a causal model of student attrition.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12, 155-187.
- Bean, J. P. (1982). Student attrition, intentions, and confidence: Interaction effects in a path model.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17(4), 291-319.
- Bean, J. P. (1990). Why students leave: Insights from research. *The strategic management of college enrollments*, 147-169.
- Cash, W. R., & Bissel, L. H. (1985). Testing Tinto's model of attrition on the

- church related campus. Portland, OR: *Association for Institutional Research*.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59 686)
- Diggs, T. M. (1986). *An application of a model of attrition at a private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harlottesville.
- Love, K. (2013). Demographic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the University of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tudents: An Application of the Allen and Meyer Model. *College Student Journal*, 47(1), 192-201.
- Morris, J. (2002). *Academic integration, social integration, goal and institutional commitment, and spiritual integration a predictor of persistence at a hristi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Tech University, Lubbock, Texas.
- Morris, J. & Smith, A. B. & Cejda B. D. (2003), Spiritual integration as a predictor of persistence at a christi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hristian Higher Education*, 2:4, 341-351.
- Morris, J. M., Beck, R., & Smith, A. B. (2004). Examining student/institutionfit at a Christian university: The role of spiritual integration. *Journal of Education and Christian Belief*, 8(2), 87 - 100. Morris,
- Nora, A. & Cabrera, A. F. (1993). The construct validity of institutional commitment: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earch in Higher ducation*, 34(2), 243-262.
- Pascarella, E. T., & Chapman, D. (1983). A multi-institutional path analytical validation of Tinto's model of college withdrawa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1), 87-102.
- Pascarella, E. T., & Terenzini, P. T. (2005).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v.2, A third decade of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 Schipull, Rachel L. (2009). *Factors determining student choice of Christian liberal arts colleges*. Theses and Dissertations, University of Toledo.
- Schreiner, L. (2000). Spiritual fit. In FIPSE - Through the Eyes of Retention. *Washington, D.C.: CCCU*, 10 - 12.
- Stella, Y. MA. (2010). The christian college experience and the development of spirituality among students. *Christian Higher Education*, 2(4), 321-339.
- Stephen A. Burks & Gregory Barrett(2009). Student Characteristics and Activity Choices of College Freshmen and their Intent to Persist in Religiously Affiliated Institutions. *Christian Higher Education*, 8:5, 351-392.

- Strange, C. C. & Banning, J. H. (2001). *Educating by design: Creating campus learning environments that work*. The Jossey-Bass Higher and Adult Education Seri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trauss, L. C., & Volkwein, J. F. (2004). Predictors of student commitment at two-year and four-year institution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203-227.
- Tinto, V. (1987).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into, V. (1993).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of student attr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lter, K. L. (2000). *Staying or leaving: A multilevel approach to explaining variation in persistence rates among Christian college undergradua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izona, Tucson.

## 논문초록

#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백상현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개인배경특성, 종교적 배경과 대학환경 풍토에 대한 인식이 학생의 소속대학에 대한 몰입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4년제 기독교대학 4곳에 재학 중인 학생 385명의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서면으로 진행하여 최종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의 분석은 spss statistic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배경특성 중 현재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입학 당시 해당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소속 대학에 대한 몰입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종교적 배경 요인과 관련해서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부모님의 종교가 기독교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현재 종교가 기독교인 학생이 무교인 학생에 비해 대학 몰입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대학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입학선호도, 현재 종교, 대학환경풍토의 인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입학 전 소속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기독교인 학생이 비기독교인 학생에 비해 대학 몰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환경풍토의 하위변인인 학업적, 관계적, 신앙적 풍토는 대학 몰입에 가장 뚜렷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의 현재 종교와 상관없이 성별, 입학선호도, 대학환경풍토 요인이 공통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종교적 배경과 관련해서 기독교인 학생들은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 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기독교 학생들의 종교적 배경 요인은 대학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 대학 재학생의 대학 몰입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 재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종교적 배경, 대학환경 풍토에 대한 인식을 통해 향후 이와 관련된 대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대학, 개인적 배경, 종교적 배경, 대학환경풍토, 대학 몰입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영상물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업무수행역량 및 직업만족에 관한 연구**  
–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Problem of the Violence  
in Films, Job Performance Ability and Job Satisfaction of  
both Christian Film Crews and Atheistic Film Crews**  
– On the Basis of Binary Logistics Analysis –

이희진 (Hee-Jin Lee)\*

이원준 (Won-June Le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research is an empirical study that aims to reveal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 and atheistic film crews in awareness of the violence of films, job performance ability(job efficacy, professional capacity), and overall job satisfaction(job satisfaction, job environment satisfaction). In order to do this research, t-test and binary logistics analysis are used with the survey data obtained by 364 film crews of various jobs (production, filming, lighting, editing, planning, scenario, etc.) and staff level (director~third and below). This The main facts revealed by the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Christians and atheistic people) in the area of job performance ability(job efficacy, professional capacity)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job environment, but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of Christians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crews without religion. Second, the awareness of violence in film contents has confirmed that Christians have a much more critical perception than atheistic crews. Criticism of film violence and job satisfaction concluded that it is a

---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언론정보문화학부 조교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hjlee@handong.edu, 주저자

\*\* 창신대학교(Changshin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wjlee@cs.ac.kr, 교신저자

2019년 05월 11일 접수, 06월 11일 최종수정, 06월 12일 게재확정

major characteristic that distinguishes between Christian and others with no relig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actively utilize Christian film crews as useful human resources to be used to find ways to deal with the problem of harmfulness of film violence.

**Key Words** : film crew, violence, consciousness, job performance capacity, job satisfaction

## I. 서론

영상매체는 시청각 매체로서 텍스트에 기반을 둔 매체에 비하여 메시지 전달효과가 강력하고 효과적이기에 점점 영상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만, 영상매체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영상콘텐츠 내용 및 연출(표현)방식 등에 따라 영상매체가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상제작인력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영상콘텐츠의 내용 및 표현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폭력성’(violence)이 강한 영상물이 유해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장면들은 다양한 장르영화 및 영상물에서 여전히 빈번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폭력성이 강한 내용의 영상물을 쉽게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영화나 TV 방송물 뿐 만 아니라,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에 접속해서도 폭력물을 쉽게 시청할 수 있다. 영상콘텐츠의 주 소비층을 이루는 10-20대들은 디지털 시대에 출생하여 성장한 세대로 다양한 영상콘텐츠의 시청에 매우 익숙하고 활발한 세대이다. 아직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연령대인 이들이 폭력적인 장면들이 들어간 영상물에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은 매체를 통하여 폭력적인 장면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의 유해성을 단순히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박찬욱 감독이나 김기덕 감독의 작품들 중에서는 매우 폭력성이 강한 장면들이 연출된 영화들이 꽤 있지만 다수의 작품들이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여 명작의 반열에 올라가 있다. 그렇기에 폭력적인 영상물의 유해성에 대한 기준은 다양한 측면(폭력성의 내용, 예술성, 연출의 완성도, 시청자의 인지능력, 정서적 성숙 등)에서 고려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영상물에 대한 등급판정과 시청 연령 제한 등의 검열 등이

폭력물의 유해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령제 한가대로 콘텐츠의 시청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폭력적인 연출장면을 담은 영상물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폭력적인 장면이 줄 수 있는 유해성에 취약한 대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폭력경험 뿐 만 아니라, 폭력상황을 관찰한 경험 또한 사람들의 폭력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하여 왔다(Bergman & Brismar, 1992; 안미숙, 2000; 유제민·김정휘, 200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폭력적인 영상물에 대해 노출빈도가 높아질수록 폭력적인 행위나 언어를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비행행동의 수준 또한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김우준, 2011; 유상미, 2010). 실제로 영상매체에서 표현된 폭력성, 비행, 범죄 내용을 모방·학습한 범죄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스 또한 심심찮게 접하곤 한다. 실제로 영화 <그놈 목소리>를 모방한 유괴범죄가 일어났고(서울신문, 2007), 미국 덴버시에서는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상영하던 중에 영화속 악당을 모방한 총기난사사건으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뉴데일리 2012). 특히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 및 청소년기에는 폭력성 및 공격성이 강한 내용의 영상물을 모방·학습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들은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의 유해성에 특히 취약하다.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영상물에서 재현된 폭력적인 상황에 자주 노출되면서, 폭력성에 둔감하게 되고, 그 결과 폭력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물 폭력성이 지닌 유해성은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영상물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제작인력들을 대상으로, 이들은 폭력성이 강한 내용의 영상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상제작인력들은 영상콘텐츠의 제작 관련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영상물에 관련한 전문가 집단이다. 영상물의 폭력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영상제작인력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영상물에서 다룬 폭력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영상물의 폭력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선행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폭력은 타인을 아프게 하고 해친다. 타인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마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출발이다(김재민, 2016: 47). 이웃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계명이며 핵심가치이다(레위기 19: 18; 신명기, 23: 24-25, 24: 12-13, 14: 21; 마가복음, 12: 31, 김재민, 2016: 47). 종교적 신념은 지각의 틀로서 사람들이 어떤 사안 및 사물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김성수·장성수, 2010: 34). 사람들의 인지, 감정, 의지 등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선행연구자들은 강조한 바 있다(김성수·장성수, 2010: 34). 이러한 맥락에서, 영상제작인력들 중 기독교인들은 무교인들에 비해 폭력성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비판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기독교 영상제작인력들은 과연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에 비해서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의 유해성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인지, 감정, 의지 등이 종교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성수·장성수, 2010: 34)를 토대로, 기독교인은 무교인보다 영상물 폭력성에 대해 훨씬 더 비판적일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볼 수 있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폭력성에 대한 인식이 이들의 종교적 배경(기독교 유무)과 같은 단일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영상제작에 직접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일반인들과는 영상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영상제작인력들은 자신을 영상을 제작하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예술가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최인이·강윤주, 2010; 하철승, 2014; 이희진, 2018). 영상제작인력들의 정체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에 대한 이들의 판단에 자신들의 종교적 배경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영상물을 제작하는 근로자이면서 예술가라는 강한 정체성의 영향에 의해 상쇄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의 구별된 특성을 영상 속의 폭력성에 대한 인식 뿐 만 아니라, 이들의 영상을 제작하는 전문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예: 업무효능감, 전문성)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인식 등에서도 두 집단 간에 과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상물 폭력성의 유해성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인력자원으로서의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 활용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과제로서의 의미를 지닌 본 연구에서, 만약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이 무교인에 비해 영상물 폭력성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상제



작인력으로서의 자질 및 전문적 역량이 부족하고 자신의 직무 및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이 오히려 무교인보다 저조할 경우에는, 영상물 폭력성 대처를 위한 유용한 인적 자원으로서의 활용할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상제작인력의작인력의 기독교 유무(기독교 vs. 무교)에 따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전문가로서의 역량, 그리고 직업(직무, 직업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 등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함께 분석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비판의식이 전문직 업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자질이며 직업만족과 직무 동기 및 성과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있다(Cournoyer, 2000; Rainely, 2009: 301).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 본 연구에서 특정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예: 전문성, 업무효능감 등) 및 직업에 대한 인식(예: 직무만족, 직업환경만족) 등도 함께 포함시켜 영상제작인력의 기독교 유무를 구별 짓는 유의미한 특성이 될 수 있는지를 밝혀보기 위해 각각의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분석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논의점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에 비해서 영상 속 폭력성에 대해서 과연 더 비판적인지, 그리고 전문적 역량 및 직업만족 수준에서도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다.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이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의 유해성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는데 유용한 인력자원으로서의 활용가능성과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전술한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 간에 차이가 있는가?
2. 업무효능감 및 전문성 등 업무수행역량에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 간에 차이가 있는가?
3. 직무에 대한 만족 및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에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 간에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이 미치는 영향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을 시청 혹은 관람하는 것이 어떤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그 연구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인 연구가 많았다. 폭력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많이 시청한 아동들은 아이들 간에 실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를 말리거나 어른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Drabman & Thomas, 1974; Thomas, Horton, Lippincott, & Drabman, 1977). 청소년의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영상물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비행행동의 수준이 높아지고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대한 수용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우준, 2011; 유상미, 2010). 우형진과 김성벽(2006)은 폭력물에 얼마나 반복되게 노출되었는가에 따라 신체반응을 측정하였는데, 폭력적인 영상물을 과다하게 시청할수록 폭력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저하되고 결국 폭력에 둔감화 된다는 사실을 실증연구로 밝혀내었다. 미국에서 실시된 텔레비전의 폭력성에 대한 연구에서 폭력적인 TV장면을 시청한 대상자는 세 가지의 유형의 유해성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첫째로는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 두 번째 유해성은 폭력에 의해 자신이 희생자가 될수 있다는 공포심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유해성은 폭력적인 행위와 언사에 대하여 점차 둔감해 진다는 것이다(National Television Violence Study 1996; 우형진 · 김성벽, 2006: 191 재인용).

이처럼 그동안 폭력적인 영상물에 노출되는 것이 영상을 보는 수용자에게 어떠한 유해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수용자 입장인 아닌 영상을 만드는 영상제작인력의 입장에서 폭력적인 영상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영상물의 폭력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폭력이 아닌 사랑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종교가 없는 영상제작 인력 간에 폭력적인 영상물의 유해성이 대한 인식에 어떤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위의 연구문제들의 개념적 틀을 구성할 수 있는 주요 이론적 근거(rationale)는 ‘사회정체성 이론(Tajfel and Turner, 1986; Ashforth and Mael, 1989),

자기범주화 이론 그리고 과제가치이론(Wigfield and Eccles, 1990) 등이 될 것이다.

## 2. 사회정체성 이론

사회정체성 이론가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범주, 또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준거체계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지각한다고 설명하고 있다(Tajfel and Turner, 1986, Ashforth and Mael, 1989; 이원준·이희진, 2017: 201). 사회정체성이란,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집단(들)의 일원이라는 지식과 그러한 멤버십에 부여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로부터 생기는 개인의 자기개념의 일부로 정의한다(Tajfel, 1978; 장미향·정한기, 2007: 79 재인용). 다양한 집단현상을 사회정체성의 효과로 설명하는 자기범주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은 사회정체성의 영향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집단현상을 설명하고 있다(Tajfel, 1978). 사람들의 자기지각은 개인으로서의 자기지각(개인의 정체성)과 함께, 내집단 범주의 일원으로서의 자기지각(사회정체성)의 연속선을 따라 변화하는데, 국적, 종교, 성, 학교 등 다양한 사회범주에 소속함으로써 획득되는 사회정체성은 개인이 자신과 세상을 지각하는 중요한 참조 틀이 된다(장미향·정한기, 2007: 79).

사회정체성이론 및 자기범주화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특정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할수록,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치 및 규범이 내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월시와 미들턴(Walsh & Middleton, 1984)은 종교적 신념은 지각의 틀(perceptual framework)로,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라 설명하였고(김성수·장성수, 2010: 34), 월터스(Wolters, 1992)는 종교적 신념은 세계관이라 했다. 즉, 종교적 신념은 개별적으로 사람들의 인지적, 감정적, 의지적 차원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종교는 사회학적 현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피력하였다(김성수·장성수, 2010: 34).

“약자에 대한 보살핌, 양심, 도덕성, 사회적 책임성 등은 일반적으로 고등 종교에서 강조해온 보편적인 가치이다”(이원준·이희진, 2017: 201). 종교적 안녕감과 폭력비행은 부적 상관성이 있고(김성수·장성수(2010: 40), 종교적인 또는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타인을 돕는 성향이 높으며(Batson et al., 1985: 198; 김셋별·이호담, 2018: 110 재인용), 선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 및 부정적인 정서를 갖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종교인이 지닌 구별된 특성(salience)을 시사해주고 있다(장훈태, 1991). 이웃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계명이며 핵심가치이다(레위기 19:18, 신명기, 23:

24-5, 24: 12-13, 14: 21; 마가복음, 12: 31; 김재민, 2016: 47). 이웃에 대한 사랑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을 전제로 한다. 즉, “이웃사랑은 아픔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폭력은 타인을 아프게 하고 해친다(김재민, 2016: 47). 이러한 맥락에서, 폭력성이 강한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에 대해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영상은 매우 강력한 매체임으로,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에 많이 노출 될 때, 폭력에 대하여 점차 둔감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될 때, 폭력성을 모방 및 학습할 수 있는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여러 선행연구자들이 밝힌 바 있다(Bergman & Brismar, 1992; 안미숙, 2000; 유제민 · 김정휘, 2004). 폭력성이 강한 내용이 영상매체를 통해 표현되고 전달될 때는, 글과 같은 텍스트로 표현될 때 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적인 행위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의 가치와 완전히 상반된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핵심가치인 기독교를 믿는 영상제작인력의 경우, 영상물에서 표현된 폭력성의 위험에 대해 더 민감할 것이라 사료된다. “기독교 가치관에서 폭력은 인간의 죄성에 근거한다”(배은주, 2015: 101). 폭력은 반기독교적인, 비인격적인 행위이다. 실제로 선행연구는 종교적 안녕감과 폭력비행 간에는 부적 상관성(배은주, 2015: 109)이 있고, 기독교인 고등학생의 신앙적 성숙이 친사회적 성향과 높은 상관성이 있지만, 비행과는 부적상관성(김성수 · 장성수, 2010: 40)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종교적 신념은 사람들의 특성과 성향을 이해(김성수 · 장성수, 2010: 34)하는데 중요한 측면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영상물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의식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 보다 훨씬 더 뚜렷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볼 수 있다[연구문제1].

영상제작인력들의 종교배경(기독교 vs. 무교)이라는 단일 요인에 의해서 두 집단(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 vs. 무교인 영상제작인력) 간에 유의한 차이를 가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빈약하다. 종교 및 신앙의 성숙은 개인의 사회기능 및 적응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기독교인의 신앙의 성숙도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정진방, 1997), 부부간 결혼만족 및 효율적 의사소통(박병윤, 2001),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전교식, 2002), 친사회적 행동 등과 정적 관련성(김성수 · 장성수, 2010)이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 및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닌 긍정적 특성을 시사해주고 있지만,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 혹은 무교인 영상제작

인력 간에 어떤 집단이 전문적 역량 및 직업만족 수준이 높을 것인지 혹은 낮을 것인지를 가정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을 설정한 것은,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영상물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의 전문적 역량과 직업만족 수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본 연구는 영상물 폭력성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을 주요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과제의 성격을 지닌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비판의식과 함께, 영상제작인력으로서의 전문적 역량 및 자질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인식 또한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이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적어도 유사한 수준으로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전문적 역량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은 자질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폭력적인 영상물로 인한 유해성을 감소시키고, 양질의 영상물 제작물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인적자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상제작인력들은 전문가로서의 분명한 비판의식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과 함께, 자신의 성과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민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판의식은 전문직인 (professionals)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 및 역량이고(Courmoyer & Klein, 2000), 직업만족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동기 및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Rainely, 2009), 기독교 유무에 따른 영상제작인력의 특성파악에서,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연구문제2]와 [연구문제3]을 설정하여 영상제작인력들의 전문적 역량 그리고 직업만족도를 두 집단 간에 비교·분석해보는 것은 바람직한 연구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과제가치이론

과제가치이론은 앳킨슨(Atkinson, 1957)의 기대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이론이다(김섯별·이호담, 2018: 108). 위스필드와 에클스(Wigfield & Eccles, 1992)는 기대와 가치는 정적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과제가치’를 “개인이 특정 과제에 대하여 지각하고 평가하는 중요성, 가치로움, 흥미, 유용성 등을 의미

한다.”라고 정의하였다(김셋별·이호담, 2018: 109; 한순미, 2004: 334). 개인이 느끼는 중요성, 흥미, 유용성과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과제의 가치를 높게 지각할 수록 과제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감 및 성취감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김셋별·이호담, 2018; 정혜승, 20005; 한순미, 2004; Bong, 2001; Bures et al., 2002; Miltiadou, 2000).

Eccles(1983)는 성취과제가치(achievement task value)를 정의함에 있어서, 획득/성취 가치(attainment value), 내재가치(intrinsic value), 유용성(활용)가치(utility value), 비용(cost)등 네 차원에서 설명하였다(Wigfield & Eccles, 1992: 16). 영상제작인력이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 제작에 참여할 경우, 기독교의 가르침과 가치가 내면화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과제의 의미와 가치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첫째, 획득/성취가치 관점에서 보면, 자기도식(self-schema)의 핵심적인 측면(salient aspect)을 승인 또는 비승인 할 수 있는 과제를 맡을 수 있는 것과 관련된다(Wigfield & Eccles, 1992: 16). 폭력성은 배려와 보살핌이 전제된 이웃에 대한 사랑의 핵심가치와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이다. 둘째, 과제수행을 위한 활동(activity)을 하면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즐거움, 흥미, 관심을 갖게 하는 내재적 가치 또한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활용/유용성 가치는 자신이 수행하는 과제를 얼마나 유용하게 느끼는지를 의미한다(Wigfield & Eccles, 1992: 16). 폭력성이 강한 내용을 담은 영상물 제작 업무는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활용/유용성 가치(utility value)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획득/성취가치, 내재가치 그리고 활용/유용성 가치는,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비교해볼 때,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에 대해 보다 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연구질문 1)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rationale)로 제시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인들과의 인과관계를 도식화하여

[Figure 1]에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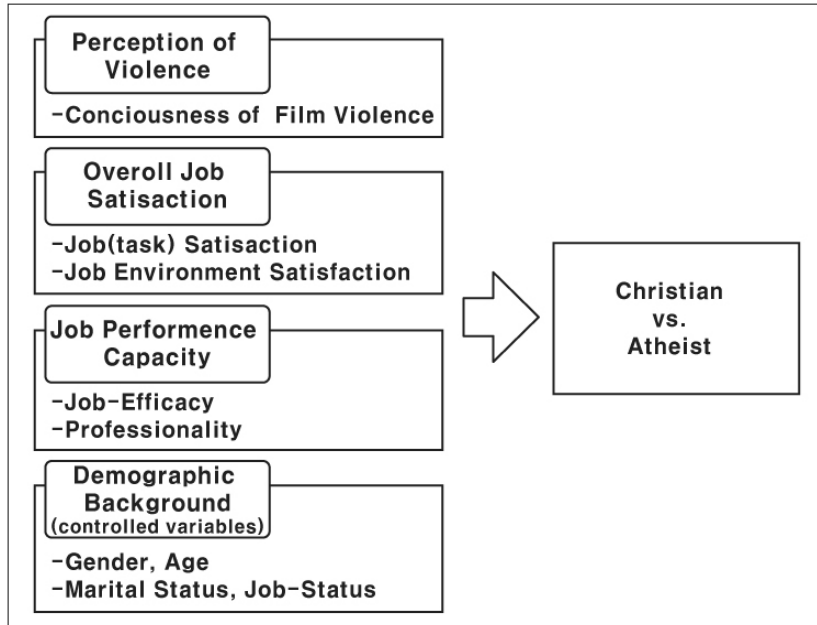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설문조사(survey)를 위해서 영화 프로듀서조합, 시나리오 작가조합, 촬영감독조합, 조감독협회, 독립영화협회, 여성영화인모임, 필름메이커스 등 대표적인 영화인 유관단체들과 본 연구자가 사전 접촉을 하여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각 단체는 소속회원들에게 본 설문조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었다. 온라인 서베이 업체에 의뢰하여 온라인 모발일(2)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 링크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이희진, 2016: 101; 2018: 287). 약 7개월에 걸쳐서 설문조사(2014.8-2015.2)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중에 일부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는 제외하였다. 전체 응답자(402명) 중에서 종교배경을 검토하여, 믿고 있는 종교가 없는 무교인(240명)과 기독교인(124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 자료분석에서 사용한 최종 표본수는 364명이다. 조사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대한 빈도분석은 [Table 1]과 같다.

조사 응답자들(364명) 중에 기독교인은 124명(34.1%),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무교인’은 240명(65.9%)이다. 남성은 237명(65.1%), 여성은 127명(34.9%)이고, 연령분포를 보면 30대가 155명(42.5%)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115명(31.6%), 40대(78명, 21.4%), 50대 이상(16명, 4.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의 직급을 보면, 감독급(150명, 41.2%)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퍼스트급(89명, 24.5%)이 많다, 세컨드급(61명)은 16.8%, 서드급 이하(64명)는 17.6%로 상대적으로 분포비율이 낮은 편이다<sup>1)</sup>. 결혼상태를 보면 미혼(271명, 74.5%)이 기혼(93명, 25.5%)보다 약 3배 정도 많다. 전술한 ‘성별’, ‘연령’, ‘결혼상태’, ‘직급’은 본 연구모형분석에 포함된 통제변수들이기도 하다.

Table 1. Frequency of Controlled Variables by Group(Christian / Atheists)

Variables	Contents	Frequency		Variables	Contents	Frequency	
		N	(%)			N	(%)
Gender	Male	237명	65.1%	Marital Status	Single	271명	74.5%
	Female	127명	32.9%		Married	93명	25.5%
Age	20 -29	115명	31.6%	Job-Status	Director	150명	41.2%
	30-30	155명	42.5%		First	89명	24.5%
	40-49	78명	21.4%		Second	61명	16.8%
	50 -	16명	4.4%		Third -	64명	17.6%

3. 주요 변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는 종속변수 한 개(기독교 vs. 무교)와 통제변수(성

1) 영화제작인력의 세부 업무영역은 매우 다양하다(연출, 촬영, 조명, 제작, 미술, 녹음, 분장, 의상 등). 그리고 각 영역마다 경력과 할당되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4개의 직급으로 나뉜다. 제일 상위직급은 감독급으로 영화의 감독뿐만 아니라 촬영감독, 미술감독, 조명감독 등도 감독급에 속한다. 감독급 아래에는 어시스턴트들이 있는데 제일 상위 어시스턴트를 퍼스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은 세컨드 그 아래는 서드 혹은 필요에 따라 서드보다 아래에 막내라는 이름으로 스태프를 추가하기도 한다. 감독/퍼스트/세컨드/서드/(막내)의 분류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영화스태프 실태조사에서 사용하는 공식 지칭용어이고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다.



별, 연령, 결혼상태, 직급)를 포함한 주요 독립변수들(직무만족, 직업환경만족, 업무효능감, 전문성)을 포함하고 있다. ‘기독교 유무’는 종교가 없는 사람과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을 구분한 단문항 이항변수(0=무종교인, 1=기독교인)이다.

‘직무만족’, ‘직업환경만족’, ‘업무효능감’, ‘직급’, ‘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문항을 참조하였다(이희진, 2016; 2018). 영상물콘텐츠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척도는 단문항의 5점 척도(“거의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이다. 전술한 측정도구의 주요 내용 및 신뢰도(Cronbach’s  $\alpha$  값)는 [Table. 2]에서 요약·정리하여 제시하였다.

Table 2. Information of Instruments(Scales)

Category	Variables	Number of Q.	Score	Main contents and reliability of the scale(Cronbach’s $\alpha$ )
Perception of Violence	Consciousness of Film Violence	1	1-5	The content of violent film increases people’s violence and copycat crime "
Overall Job Satisfaction	Job-Satisfaction	2	1-5	Assess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my work and the degree of pride in my work (Cronbach’s $\alpha$ =.640)
	Job Environment Satisfaction	5	1-5	Assessment of satisfaction with wage and income levels, overall work environment (physical environment), rationality of promotion opportunities, relationships with supervisors, and relationships with peers (Cronbach’s $\alpha$ =.684)
	Job-Efficacy	4	1-5	Satisfaction with job performance ability, advantage about job performance, strength for work (Cronbach’s $\alpha$ =.777)
Job Performance Ability	Professional Capacity	5	0-1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kills, artistry and creativity, theoretical and academic knowledge, common sense and basic literacy, and the ability to read trends at work (Cronbach’s $\alpha$ =.763)
Control Variables	Gender	1	0-1	0=male, 1=female
	Age	1	1-6	1= under 25, 2= 25-29, 3= 30-34, 4= 35-39, 5= 40-49, 6= over 50
	Marital Status	1		0=single, 1=married
	Job- Status	1	1-4	1=director, 2=first, 3=second, 4=third and below

####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인 영상제작 인력들이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영상물 폭력에 대한 인식과 함께 직무수행을 위한 역량(업무효능감, 전문성)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직무만족, 직업환경에 대한 만족)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주요 변인들(영상물에 대한 폭력인식, 직무만족도, 직업환경에 대한 만족도, 업무효능감, 전문성)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집단 간의 평균비교(t-test)와 이항 로지스틱 분석(binary logistics analysis) 등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이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 연령, 연봉, 결혼상태 그리고 직급 등과 같은 배경변수들을 통제변수군에 포함시켜 함께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 응답자들(364명) 중에 20대와 30대가 74.1%에 이르고 40대(21.4%)와 50대 이상(4.4%)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현상은 최근 우려되는 영화제작인력들의 현장이탈 문제와도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결혼상태를 보면 미혼(271명, 74.5%)이 기혼(93명, 25.5%)보다 약 3배 정도 많은데, 이는 응답자들 중에 약 64%이상이 20대 혹은 30대 연령대인 점을 감안할 때, 쉽게 납득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인(124명)중에는 약 36% 이상(44명)이 기혼자이지만, 무교인의 경우는 기혼자가 20%(49명)정도로 기혼자의 비율이 훨씬 낮다. 이러한 현상은 영상제작인력들의 경우에도 기독교인이 무교인에 비해서 결혼을 선택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봉(지난 3년간의 연봉 평균액수)은 약 1967만원인데, 응답자들 중에 약 66%가 상당한 경력이 요구되는 감독급 및 퍼스트급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영화제작인력들의 임금수준이 매우 낮음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

인(1847만원)에 비해서 무교인(2103만원)의 평균연봉의 액수가 다소 높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 2.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두 집단 비교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주요 변인들(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직무만족, 직업환경만족, 업무효능감, 전문성력 등)의 각 평균값을 살펴보고, 주요 변인들의 평균값을 t-검증을 통해 두 집단(무교인, 기독교인)간에 비교·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3]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Table 3. Comparing Means of Major Variables by Group(Christian/Atheistic)

Major Independent variables	Total Group (N=364) Means(SD)	Atheistic Group (N=240) Means(SD)	Christian Group (N=124) Means(SD)	t-value	p-value
Consciousness of Film Violence	2.4900(1.2210)	2.3900(1.1740)	2.6900(1.2890)	-.3020	.138
<b>Satisfaction of Job(task)</b>	<b>3.7418(.7418)</b>	<b>3.6271(.7919)</b>	<b>3.9637(5.7443)</b>	<b>-3.370</b>	<b>.000</b>
Satisfaction of Job Environment	2.9835(.5927)	2.9258(.61530)	3.0952(.5310)	-.1693	.224
Job -Efficacy	3.9251(.5690)	3.0963(.5840)	3.9617(.5840)	-.0555	.378
Professional Capacity	3.1527(.7505)	3.1183(.7880)	3.2194(.6701)	-1.2820	.201

주요 변인들(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직무만족, 직업환경만족, 업무효능감, 전문성)의 척도(5점 척도)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업무효능감’(M=3.9251)과 ‘직무만족’(M=3.7418)은 ‘전문성’(M=3.1527)보다는 다소 양호한 수준이다. 반면, ‘직업환경만족’(M=2.9935)은 척도의 중간값(3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직업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은,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M=3.718)에 비해서는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직무만족’, ‘직업환경만족’, ‘업무효능감’, 그리고 ‘전문성’ 등 5개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값을 t-검증을 통해서 두 집단(무교인 집단, 기독교인 집단) 간에 비교해 보았다. t-검증 결과, ‘직무만족’에서만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무교인 영화제작인력들에 비해 기독교인 영화제작인력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만족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직무만족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변인들, 즉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직업환경만족, 업무효능감, 그리고 전문성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직무만족만이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을 구별짓는 유일한 특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을 비교해보았을 때, 어떤 특성이 두 집단을 구별짓는 특성인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일 변수의 평균값을 두 집단 간에 비교해 볼 수 있는 t-검증은 방법론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과 무교인의 특성을 구별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를 결정하는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독립변수들이 과연 얼마만큼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다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binary logistic analysis)을 해 보면, ‘기독교 유무’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들(determinants)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3. 기독교 유무 관련 변인파악을 위한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기독교 유무’(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요인들(determinants)을 찾기 위해서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의 목적은 독립변인들의 설명력 자체(베타 계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반적으로 각 개별 독립변인의 적절성 정도를 승산비(odds ratio)를 토대로 검증하는데 더 목적을 둔다(이원준·이희진, 2018). 로지스틱 분석은 승산비(odd ratio)에 근거하여, 개별 독립변수의 척도값이 한단위 증가(또는 감소)할 때, 종속변수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방법이다. 즉, 어떤 특성에서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교인 영상제작인력과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을 구별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독립변인들을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폭력성에 대한 인식 평가 영역(‘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수준 파악을 위한 영역(‘직무 만족’, ‘직업환경 만족’), ‘업무수행능력 평가 영역(‘업무효능감’, ‘전문성’),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배경(‘성별’, ‘연령’, ‘결혼상태’, ‘직급’)이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영상물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직무만족’이 두 집단

간 특성을 구별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통제변수로 포함된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들 중에는 ‘성별’과 ‘결혼상태’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영상물 폭력성에 문제의식’, ‘직무만족’과 함께, ‘성별’과 ‘결혼상태’등이 영화제작인력들 중에서 무교인과 구별되는 기독교인의 의미있는 특성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각 변인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상폭력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 단위씩 증가할수록, 영화제작인력들이 무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약 1.262배씩 증가하였다.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job)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가 한 단위씩 증가할수록, 무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약 2배(2.079)이상 증가한다는 것이다.

Table 4. Binary Logistic Analysis and Marginal Effect Analysis

Category	Variables	Beta-Coefficiency	Standard Deviation	P Value.	Odds Ratio
Perception of Violence	<b>Consciousness of Film Violence</b>	<b>.232</b>	<b>.099</b>	<b>.019</b>	<b>1.262</b>
Overall Job Satisfaction	<b>Job-Satisfaction</b>	<b>.732</b>	<b>.220</b>	<b>.001</b>	<b>2.079</b>
	Job Environment Satisfaction	.188	.237	.428	1.207
Job Performance Ability	Job-Efficacy	-.418	.268	.118	.658
	Professional Capacity	.200	.200	.318	1.221
Demographic Background	<b>Gender</b>	<b>.616</b>	<b>.270</b>	<b>.022</b>	<b>1.852</b>
	Age	.151	.134	.262	1.163
	<b>Marital Status</b>	<b>.630</b>	<b>.306</b>	<b>.040</b>	<b>1.879</b>
	Job- Status	-.008	.163	.961	.992
	Constant	-5.738	1.431	.000	.003
-2 log Likelihood .425.806, Hosmer & Lemeshow test $\chi^2= 10.942$ df=8 P. 205					
Model $\chi^2= 41.1869$ df=9 P <.000, Nagelkerke $R^2$ .148 분류정확 67.9%					

영화제작인력들의 ‘업무효능감’, ‘전문성’ 등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영역은 무교인과 기독교인을 구별 짓는 특성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제작인력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 및 자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 중에 기독교인과 무교인을 구별하는 특성으로 ‘성별’과 ‘결혼상태’가 선정되었

는데, 각 변인들의 승산비(odds ratio)를 근거로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본 조사 응답자인 영화제작인력들 중에 남성이 아닌 여성일 경우, 기독교인일 가능성은 약 1.852배 증가하고, 미혼자이 아닌 기혼자일 경우,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약 1.879배 증가한다. ‘성별’과 ‘결혼상태’는 주요 독립변인이라기보다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 및 영역에서 활동하는 영상제작인력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전문가로서의 역량, 그리고 직업만족 등이 이들의 종교배경(기독교 vs. 무교)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밝혀진 주요 내용은 요약·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124명)이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240명)에 비해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다 더 뚜렷하였다(odds, 1.262). 둘째, 직업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은 두 집단(기독교인, 무교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직무에 대한 만족수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무교인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odds, 2.079). 셋째, 영상제작인력들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이들의 전문성과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두 집단 간에 비교해본 결과,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전문성 및 직무만족이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군(성별, 연령, 결혼상태, 직급)에서는 성별과 결혼상태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이 무교인에 비해서 남성(odds, 1.852)이 많고, 기혼(odds, 1.8979)인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기독교인의 기혼율이 더 높은 것은 결혼 및 가정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독교 가치와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에서 남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힘든 현장작업이 많은 영상제작현장의 특성과, 성별 역할에 대한 규범에서 기독교가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이 영상제작인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적 역량(전문성, 업무효능감)에서는 무교인과 대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무교인에 비해서 영상물 폭력

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다 분명하고,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도 만족수준이 더 높다는 사실은 의미있는 시사점을 준다.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 간에는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직무만족 등)이 있음이 입증되었고,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의 유해성 문제를 대처하는데 매우 유용한 전문인적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시사점 및 함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영상제작 인력들이 업무효능감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폭력적인 영상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나 최근 한국영화계의 조직폭력배와 같은 캐릭터들이 중심이 되면 폭력의 수위가 매우 높은 영화들이 주를 이루었다. 자극적이며 상업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영상들이 제작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더 양질의 영상콘텐츠를 만들고자 기여하는데 기독교 영상제작인력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뜻이 있는 기독교 영화인들이 서울국제사랑영화제나 가톨릭영화제, 서울기독교영화제 등을 통하여 사랑과 인간애가 잘 표현된 영화들을 상영하고 사전제작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폭력적인 장면없이 감동과 인간애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데 작게나마 기여해 나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꼭 기독교 영상콘텐츠가 아닌 기독교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만드는 양질의 영상콘텐츠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기독교계에서는 영상콘텐츠를 만든다면 기독교 자체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주력해왔고 이러한 영상콘텐츠들의 주 시청층은 기존의 기독교인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고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담은 <울지마, 톤즈>와 같은 다큐멘터리는 극장에서 4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여 일반관객에게도 많은 호평을 받았지만 이는 극히 드문 몇몇의 케이스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폭력적인 영상물에 노출되어 폭력에 둔감해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증가시킬 위험성은 일반적인 상업적인 영상콘텐츠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영상물의 폭력성의 유해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시사수준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영상물의 폭력성을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영상물에 대한 등급판정과 시청자의 연령에 대한 제한 등을 명기하는 내용 등의 검열장치에만 초점을 둔채, 영상물 폭력성의 유해성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모색이 없어왔다. 그렇기에 기독교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일반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기독교계도 관심을 기울

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의식 있는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에 대한 제작지원들도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비영리 기독교 방송인 CGNTV는 일체의 광고 없이 100% 후원금으로 운영이 된다. 아직 상당수가 기독교 콘텐츠들이 주를 이루지만 CGNTV에서 몇 년 전 론칭한 온라인 채널인 KNOCK는 젊은 감성으로 종교와 크게 상관없이 누가 보아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영상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 곳곳에서 작은 발걸음이나마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이 아니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영상제작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독교계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영상제작 인력들이 전문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일반인에 대하여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기독교 영화인들이 출연하여 좋은 영화들을 소개하는 팟캐스트와 같은 활동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기독교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독교적 가치인 사랑이 잘 담겨 있어 일반인에게도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화들을 소개하고 있다. 폭력적인 영상물의 제작을 강제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양질의 영상콘텐츠를 기독교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개하면서 일반 관객들이 서서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기 보다 감동이 있는 영상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이 앞으로 영상콘텐츠를 만들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 10대 20대 기독교 청년들에게 좋은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영상업계는 많은 부분 기독교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는 업계 특성들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주일을 지키며 영상작업을 해나가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영상업계 특유의 친목도모적인 분위기는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향락적인 문화가 만연한다. 또한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 더더욱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등 실제로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기독교 영상제작인력들도 많은 갈등의 상황에 부딪히곤 한다. 그래도 그런 환경에서 업무효능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성장한 기독교 제작인력들은 영상제작을 꿈꾸는 청년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양질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좋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전문성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기독교청년들이 영상제작 업계에 더 많이 진출을 한다면 상업적인 영상물에서도 폭력성이 줄어들고 양질의 영상물이 만들어 지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된다. 프리랜서신분으로 프로젝트별로 일을 하는



인력이 다수인 영상업계의 특성상 이 기독교 제작인력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기독교계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단 유니언이나 길드와 같은 단체를 설립하고 온라인에서라도 개개별이 등록을 하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과연 영상제작인력들 자신들은 과연 영상물 폭력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보다 영상물 폭력성에 대해 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할 필요성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제작인력들을 대상으로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개척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연구의 내용에서 명백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들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후속연구를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단문항에 의한 전반적인 평가만을 한 것은 명백한 한계점이라 생각한다. 후속연구에서는 폭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양한 특성(예: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학대 등)과 폭력자와 피해자의 상황적 맥락 등을 함께 고려한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군으로 포함되어 영상제작인력의 기독교 유무를 구분 짓는데 유의미한 변수로 선택된 ‘결혼상태’와 ‘성별’은 주요 독립변수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두 집단(기독교인 vs. 무교인)간을 구별지을 수 있는 중요한 특성으로 확인된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직무에 대한 만족 수준’이 기독교인의 ‘결혼상태’와 ‘성별’에 의해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후속연구에서는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후속연구에서는 ‘결혼상태’ 및 ‘성별’이 미칠 수 있는 조절효과 분석이 용이할 수 있는 보다 큰 규모의 표본을 확보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영상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영상제작인력들을 대상으로, 영상물 폭력성의 유해성을 감소하는데 어떠한 것이 장애요인들이 되고 있는지,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설문조사 연구와 함께 심층 면접에 기초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김셋별 · 이호담 (2018). 교육심리이론에 근거하여 본 기독교소년의 봉사활동이 갖는 교육적 의미 탐색. **신앙과 학문**, 23(3), 99-128.
- [Kim, S. B. & Lee, H. D. (2018). A Literature Review and Reflection on Educational Meaning that Christian Youths Have in Doing Volunteering Works : View from the Educational Psychological Theories. *Faith & Scholarship*, 23(3), 99-128.]
- 김성수 · 장성수 (2010). 종교정향 및 신앙성숙과 심리적 안녕감, 비행,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기독교 신앙을 가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심리와 학습컨설팅**, 2(2), 22-49
- [Kim, S. S. & Jang, S. S. (2010). The Relationship of the Religious Orientations, the Maturity Fai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elinquency, Pro-Social Behaviors-Based in High School Christian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and Learning Consultation*, 2(2), 22-49.]
- 김성일 (2005). 가정폭력, 성역할 학습, 학교폭력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2(4), 215-241.
- [Kim, S. I. (2005). Relations of Family Violence, Gender Role Socialization, and School Viol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4), 215-241.]
- 김우준 (2011). 폭력적 영상물에의 노출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논집**, 8(1), 305-326.
- [Kim, W. J. (2011). The Effect of Exposure to Violent Television Programs on Juvenile Delinquent Behavior.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8(1), 305-326.]
- 김재민 (2016).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실천원리 탐색 - 성경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중심으로 -. **신앙과 학문**, 21(3), 37-59.
- [Kim, J. M. (2016). A Study on the Practical Principles of the Crime Victim Policies - Focusing on the Parable of Good Samaritan in the Gospel of Luke -. *Faith & Scholarship*, 21(3), 37-59.]
- 박병운 (2001). 기독교인의 신앙성숙,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Park, B. Y. (2001). *The relation of christian's faith maturity, couple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Masters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배은주 (2015). 기독교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영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검증. **신앙과 학문**, 20(3), 99-122.

- [Bae, E. J. (2015). The Effect of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mong Christian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on their Violent Delinquency: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Faith & Scholarship*, 20(3), 99-122.]
- 안미숙 (2000). 학생폭력,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교육개발**, 122, 54-56.
- [An, M. S. (2000). Student violence, who's the victim and who's the perpetrator?. *Journal of Education Development*, 122, 54-56.]
- 양성만 역. (1992). **창조, 타락, 구속**. Wolters, A. M. (198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서울: IVP. Ch. All.
- [Yang, S. M. (1992).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Seoul: IVP. Ch. All. Trans. Wolters, A.(1992).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 우형진 · 김성벽 (2006). 폭력 영상물 둔감화(desensitization)에 대한 실험연구. **한국방송학보**, 20(5), 187-219.
- [Woo, H. J. & Kim, S. B. (2006). An Experimental Study to the Desensitization of Media Violenc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0(5), 187-219.]
- 유상미 (2010). 폭력 영상매체 노출에 따른 청소년 비행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3(1), 41-71.
- [Yu, S. M. (2010). A Study on Juvenile Delinquency Focusing on Their Exposure to The Violent Program of Visual Media. *Forum For Youth Culture*, 23(1), 41-71.]
- 유재민 · 김정휘 (2004).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정신병리학**. 서울:시그마프레스.
- [Yu, J. M. & Kim, J. H. (2004).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eoul: SigmaPress.]
- 이상욱 (2014). 영화제작 현장인력의 이직 현상 연구. **씨네포럼**, (18), 197-253.
- [Lee, S. U. (2014). Research of leaving workers of Korea filmmaking industry. *CineForum*, (18), 197-253.]
- 이원준 (2015). 사회복지기관 개인기부자들의 이타행위 노출경험이 기부지속노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책임성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여부 및 주관적 경제형편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4, 181-212.
- [Lee, W. J. (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Private Donors' Experience of Being Exposed to Altruistic Action on their Efforts of Continuing Sponsorship

- for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hristian Religious Affiliation and Subjective Financial statu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54, 181-212.]
- 이원준 · 이희진 (2016). 사회복지조직을 후원하는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인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후원 후 감사증가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1(4), 75-104.
- [Lee, W. J. & Lee, H. J. (2016). Effect of Private Donors' Utility on their Mental Health: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Increasing Gratitude after Donation and Moderation Effect of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Faith & Scholarship*, 21(4), 75-104.]
- 이원준 · 이희진 (2017). 사회복지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2(3), 191-227.
- [Lee, W. J. & Lee, H. J.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Students' Social Commitment on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s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Intention for Advocacy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Faith & Scholarship*, 22(3), 191-227.]
- 이원준 · 이희진 (2018). 중국 에이즈 고아들의 자살생각 관련 변인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48, 169-204.
- [Lee, W. J. & Lee, H. J. (2018). A Study on variables related to suicide ideation of AIDS orphans in China. *Korean-Chinese Social Science Studies*, 48, 169-204.]
- 이유리 (2002). 기독교사의 신앙성숙 수준과 정신 건강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Lee, Y. R.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Faithfulness and the Satisfaction of Mental Health and Life in Christian Teachers*. Masters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이은정 (2002). 학교체계요인이 집단 따돌림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해경험집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Lee, E. J. (200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school-system factors on experience of bullying offending : focusing on the bullies*.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이희진 (2016). 영화제작인력의 직무만족과 관련변인 연구: 업무효능감 및업무자

울성, 의사소통능력의 직간접효과와 경력장애와 직급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Lee, H. J. (2016).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o film crews' job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direct effects of job efficacy and job autonomy, the indirect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barrier and staff level*. Doctoral Dissertation. Sognag University, Seoul, Korea.]

이희진 (2018). 영화제작 인력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전문성과 업무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영화연구**, 76, 273-316.

[Lee, H. J. (2018). The Effect of Film Crews' Artistic Identity on their Professionalism and Job Autonomy. *Film Studies*, 76, 273-316.]

장미향 · 성한기 (2007).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지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77-87.

[Jang, M. H. & Seong, H. G. (2007). The Relationships Between Bullying, Social Identity and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1(1), 77-87.]

장훈태 (1991). 기독교소년의 신앙수준과 도덕적 행동: 선행과 비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Jang, H. T. (1991). *Christian youth's religious level and moral behavior: Focused on good deeds and misbehavior*.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전교식 (2002). 기독교신앙 수준에 따른 자기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Jeon, K. S.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lf-Esteem according to Christian Faith*.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정진방 (1997). 성숙 신앙인과 기복 신앙인의 스트레스와 갈등 대처 양식.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Chung, J. B. (1997). *Stress and Conflict Coping Style of the Maturity Faith and the Wish-Fulfillment Faith - focused o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정혜승 (2005). 기업내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 과제가치, 학습형태(집합교육, e-Learning, Blended Learning)가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Jeong, H. S. (2005). *Effects of Self-Directedness, Task Value, and Learning Types on Learner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조미숙 역. (2005) **가정폭력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Kashani, J. H., & Allan, W. D.(1998). *The impact of family violenc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서울: 21세기사.
- [Jo, M. S. (2005). *The impact of family violenc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Seoul: 21st Company. Trans. Kashani, J. H., & Allan, W. D.(1998). *The impact of family violenc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Columbia, Sage Publications.]
- 최인이 · 강윤주 (2010). “영화인”의 영화 “노동자” 되기 -영화산업노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13(4), 37-69.
- [Choi, I. Y. & Kang, Y. J. (2010). Articles : Why Do Film Artists Become Film Workers? -A Case of Korean Film Industry Workers Union. *Discourse 201*, 13(4), 37-69.]
- 하철승 (2014). 영화 Production 스태프의 탈 현장 원인 분석과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2), 665-673.
- [Ha, C. S. (2014). Analyses of the Causes that Film Production Staffs Leave Film Sites and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665-673.]
- 하순미 (2004). 학습동기 변인들과 인지전략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1), 329-350.
- [Han, S. M. (2004).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cademic motivation variables, cognitive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1), 329-350.]
- Ashforth, B. E. and F. Mael (1989).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1), 20-39.
- Atkinson, J. W. (1957). Moticational determinants of risk-taking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64(6, Pt.1). 359-372.
- Batson, C. D., Schoenrade, P. A. and V. Pych (1985). Brotherly love or self-concern? Behavioural consequences of religion. *Advances in the psychology of religion*, 11, 185-208.
- Bergman, B. K., and B. G. Brismar (1992). “Can Family Violence be Prevented?”. *Public Health*, 45-52.

- Bong, M. (2001). Role of self-efficacy and task-value in predicting college students' course performance and future enrollment inten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6(4). 553-570.
- Bures, E. M., Amundsen, C. C. and P. C. Abrami (2002). Motivation to learn via computer conferencing: Exploring how task-specific motivation and CC expectations are related to student acceptance of learning via CC.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27(3). 249-264.
- Cournoyer, D. E. and W. C. Klein (2000).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Allyn and Bacon.
- Drabman, R. S., & Thomas, M. H. (1974). Does media violence increase children's toleration of real-life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0(3), 418-421.
- Eccles et al. (1983) General expectancy-value and developmental model of achievement behaviors. From Spence, J. T. (1983). *Achievement and Achievement Motives*. W. H. Freeman, San Francisco, CA: W. H. Freeman.
- Miltiadou, M. (2000). Motivational constructs as predictors of success in the online classroom. *The Arizona Educational Research Organization (AERO)*. 13th Conference, Oct. 2000.
- National Television Violence Study (1996). *National Television Violence Study*. Vol. 2. Thousands Oaks, CA: Sage.
- Rainey, H. G. (2009).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anization*. 4th edition, Jossey-Bass.
- Rokeach, M. (1979). From individual to institutional valu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values of science. *Understanding human values*, 47, 70.
- Tajfel, H. (1978). *Social categorization,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 In H. Tajfel,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Tajfel, H. and J. C. Turner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W. G. Austin and S. Worchel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2nd ed.) (pp. 7-24). Chicago: Nelson-Hall.
- Thomas, M. H., Horton, R. W., Lippincott, E. C., & Drabman, R. S. (1977). Desensitization to portrayals of real-life aggression as a function of television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6), 450-458.
- Walsh, B. J. and J. R. Middleton (1984).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Christian world view*. Grand Rapids, MI: Baker.

Wigfield, A. and J. S. Eccles (1992).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task values: a theoretic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2, 265-310.

서울신문 2007. 3. 16일자. “‘그놈 목소리’ 모방범죄 논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316026006>. (검색일 2019.06.08)

[“‘Voice of Murder’ Copycat crime controversy”, Seoul Sin-Mun (2007.3.16.). Retrieved from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316026006> (2019.06.08.)]

뉴데일리 2012. 7. 22일자. “배트맨보다..날벼락! 극장서 ‘총기난사’..50여명 사상.”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2/07/20/2012072000098.html>. (검색일 2019.06.08)

[“About 50 people were killed and wounded in the shooting at a theater where they were watching the movie Batman.”, NewDaily (2012.7.22.). Retrieved from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2/07/20/2012072000098.html> (2019.06.08.)]



## 논문초록

#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영상물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업무수행역량 및 직업만족에 관한 연구 -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중심으로 -

이희진 (주저자/한동대학교)

이원준 (교신저자/창신대학교)

본 연구는 영상물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업무수행능력(업무효능감, 전문성)과 직업만족(직무만족,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 등에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종교가 없는 영상제작인력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실증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직종(연출, 촬영, 조명, 편집, 기획, 시나리오 등) 및 직급(감독급-서드이하)의 영상제작인력들을 대상(364명)으로 한 설문조사데이터를 평균비교(t-test)와 이항 로지스틱 분석(binary logistic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밝혀진 주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수행능력 영역(업무효능감, 전문성)과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은 두 집단(기독교인, 무교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업무에 대한 만족수준은 기독교인들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둘째, 영상콘텐츠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는 무교인들에 비해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영상콘텐츠 폭력성에 대한 비판의식’과 ‘직무만족’은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을 구별 지을 수 있는 주요한 특성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본 연구는 영상물의 폭력성과 이로 인한 유해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방안모색을 위해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을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영화제작인력, 폭력성, 문제의식, 업무수행역량, 직업만족



##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2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10편, SSCI급 국제저널에 5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5)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경우 (최근 10년 동안 SSCI급 국제저널에 20편 이상 논문을 게재) 1개 이상의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편집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3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4) 1개 이하의 다른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단,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경우 1개 이상의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3장 기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4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제5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 · 적절성, |
| (3) 결과의 학문적 · 사회적 기여도,               | (4) 연구방법의 적절성,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 · 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 · 인용 · 참고문헌 · 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회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 및 초청된 기고자도 예외 없이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하며, 게재순서는 논문투고순서 (즉, 논문번호의 순서)로 결정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심사는 투고 이후 3주 내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심사규정 세칙>에 따른다.

## 제6장 부칙

- 제2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 제23조 본 1차 개정된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제24조 본 2차 개정된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제25조 본 34차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발효한다.
- 제26조 부록 #1: 「신앙과 학문」 학술지 논문 심사규정. 끝.

##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심사판정기준)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을 위한 재 투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논문으로 판정한다.

-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 시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가”를 판정할 경우 게재하도록 하되, 심사자의 수정요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단)**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5조(원고접수)**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한다.

**제6조(심사를 위한 서식)**

- (1)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 (2)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개정된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식 가

##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표기(v 또는 x)를 하세요.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 · 적절성					
3) 결과의 학문적 · 사회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절성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6) 문장기술 · 용어 사용의 명료성					
7) 각주 · 인용 · 참고문헌 · 논문초록의 정확성					
최종평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능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 논문주요내용:

###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서식 나

##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 명	(인)	소 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있으며, 저자가 게재된 논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편집 규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면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오른쪽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면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면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Ⅰ, Ⅱ, Ⅲ,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인용은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23)
    -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박명순, 2009: 217)
    - ⑤ 강조문은 따옴표(‘ ’)를 사용한다.
    -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희계 · 이회계, 2009: 217-218; Kim and Lee, 2008: 20)
-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2007b: 27)
-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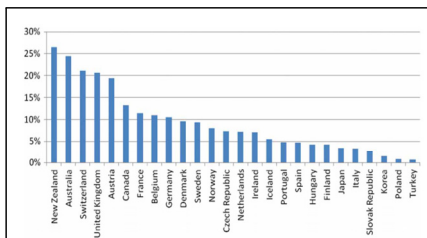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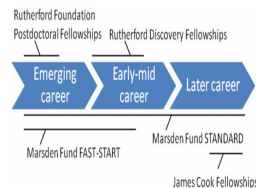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 (2) 표 제시방법

-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 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Study 1	Study 2		Statistical comparisons	
	N = 152	Intervention N = 58	Control N = 58	Study 2 Intervention-control	Study 1 – Study 2
Age range of children in months (M-SD)	48-96 (74.32-12.65)	44-94 (68.18-11.72)	40-96 (71.71-13.50)	$t(114) = 1.50, p > .01$	$t(266) = 2.82, p < .01$
Age range of mothers in years (M-SD)	24-51 (35.95-5.55)	24-45 (34.86-4.17)	27-48 (36.92-5.38)	$t(114) = 2.30, p > .01$	$t(266) = .09, p > .01$
Age range of fathers in years (M-SD)	25-57 (38.02-6.26)	27-47 (36.87-4.46)	26-53 (39.21-6.97)	$t(114) = 2.12, p > .01$	$t(266) = -.01, p > .01$
Gender (% boys)	52	32.2	40.4	$\chi^2(1) = .83, p > .01$	$\chi^2(1) = 7.15, p < .01$
Mo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57 (.72)	2.75 (.68)	2.66 (.69)	$t(114) = -.72, p > .01$	$t(266) = -1.52, p > .01$
Fa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39 (.85)	2.57 (.73)	2.36 (.82)	$t(114) = -1.46, p > .01$	$t(266) = -.79,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Pre-test M (SD)	Post-test M (SD)	<i>t</i> (151)	<i>r</i>	<i>d</i>
<i>Mothers' report</i>					
Support	4.22 (.34)	4.26 (.34)	-2.05*	.69	.15
Control	2.34 (.40)	2.28 (.39)	2.91**	.82	.25
Self-efficacy	4.12 (.36)	4.10 (.38)	1.14	.78	
<i>Fathers' report</i>					
Support	3.97 (.45)	3.96 (.43)	-.35	.76	
Control	2.34 (.35)	2.29 (.37)	2.28*	.65	.17
Self-efficacy	3.99 (.41)	4.03 (.39)	-1.94*	.80	.16
<i>Children's report</i>					
Support	3.69 (.49)	3.79 (.57)	-2.58**	.63	.22
Control	2.65 (.60)	2.49 (.62)	4.45***	.74	.36

\*  $p < .05$ ; \*\*  $p < .01$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 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책이나 잡지명 영어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and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and A. Vining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00II-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

**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 외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ementsuccess>. (검색일 2005.11.11)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6(2), 157-184.]

⑨ 번역서:

조홍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A/London/New Dehl/Singapore/Washington DC: SAGE]

10.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 7만원의 심사료(영문논문 심사료 10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3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4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1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위에 제시된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두 쪽 당 15,000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mailto:faithscholar@naver.com)

주소 : 08807 서울시 관악구 과천대로 939 B107호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통상 발간 2개월 전까지 한글 97이상으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항 3절과 3절은 2008년 6월 1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 제5조(조사 및 회의)

제1항. 조사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7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 할 수 있다.

####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4장 후속 조치

###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독교학문연구회

<b>학 회 장</b>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b>편집위원장</b>	손병덕 (총신대학교)
<b>연구부학회장</b>	문석윤 (경희대학교)	<b>편 집 위 원</b>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b>학술부학회장</b>	이호선 (국민대학교)		김종훈 (성신여자대학교)
<b>감 사</b>	류현모 (서울대학교)		손창민 (University of Virginia Tech, 미국)
	임춘택 (경남대학교)		이명현 (인천대학교)
<b>총 무</b>	이상무 (평택대학교)		우중학 (서울대학교)
<b>학 회 이 사</b>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윤매옥 (한일장신대학교)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조성표 (경북대학교)
	김승욱 (중앙대학교)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현창기 (한동대학교)
	김홍섭 (인천대학교)		황혜원 (청주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Paul Lim (Vanderbilt University, 미국)
	박영주 (前 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서성록 (안동대학교)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윤원철 (카이스트)		
	이경직 (백석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정희영 (총신대학교)		
	조무성 (前 고려대학교 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황호찬 (세종대학교)		
<b>연구윤리위원장</b>	문석윤 (경희대학교)		
<b>부연구윤리위원장</b>	이호선 (국민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신앙과 학문 제24권 제2호 (통권 79호), 2019년 6월호

---

발행일/ 2019년 6월 30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편집인/ 손병덕 (충신대학교)

인쇄/ 진흥인쇄랜드

등록/ 문화 바02789

주소/ 03922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9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